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박사 학위논문

소설에 대한 학습자의 자기 인식 연구

-소설 교육에서 태도 교육의 설계를 위하여-

2024년 8월

지도교수 : 윤대석 (인)

학과장 : 남가영 (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과 국어교육 전공

한 태 구

소설에 대한 학습자의 자기 인식 연구

-소설 교육에서 태도 교육의 설계를 위하여-

지도교수 윤 대 석

이 논문을 교육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4년 4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전공
한 태 구

한태구의 교육학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24년 7월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국문 초록

이 연구는 소설 교육에서 태도에 대한 연구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논의의 바탕으로, 작용태로서 태도를 재조명하고 소설 교육에서 태도 교육 설계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태도 개념 중 문학의 생활화에 초점을 맞추어, 학습자들에게 체화된 태도로서의 아비투스 양상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하려 한다.

이 연구에서는 문학교육 연구의 장 안에서 그간 이루어진 태도 관련 연구들이 가지는 태도에 대한 결과론적 시각이 문학교육의 장에서 태도 개념의 소외를 야기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태도를 보다 실천적이고 역동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내면화되고 체화된 태도로서의 ‘문학의 생활화’ 개념에 주목하며, 이를 구체화하여 포착하기 위하여 부르디외의 아비투스 개념을 원용하였다.

먼저 아비투스 개념을 바탕으로 소설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을 가정의 영역, 교육의 영역, 온라인의 영역, 또래문화의 영역으로 나누고 각 영역이 소설 교육의 장 안에서 어떠한 위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 영역 안에서 주체들이 취향과 태도를 형성하는 기반이 되는 자원으로 지식 자원, 심리적 자원, 사회적 자원을 설정하였고, 이 세 가지 자원의 양과 분포에 따라 학습자 집단을 구별하였다.

소설 교육의 장 안에서 학습자를 상위 집단, 중간 집단, 하위 집단으로 구별하였으며, 중간 집단은 다시 교육적 중간 집단, 독립적 중간 집단, 직관적 중간 집단, 사회적 중간 집단으로 나누었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가 작성한 설문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실제 소설 교육의 장 안에서 해당 집단의 정체성이 어떻게 구성되며, 어떠한 취향과 태도로 발현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객관적 영역으로서의 장과 자원에 기반한 학습자의 취향이 주관적 영역으로서의 학습자 태도 형성에 미치는 복합적

인 영향들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태도에 대한 결과론적인 관점을 벗어나 소셜 읽기에 대한 동기부여에서 내면화까지 전 과정에 포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신 작용으로서 태도를 조명하고 학습자 중심의 성찰적 읽기 교육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의를 가진다.

주요어 : 소셜 교육, 태도 교육, 문학의 생활화, 학습자의 자기인식, 아비투스

학번 : 2009-31022

목차

국문 초록	1
I. 서론	1
1. 문제제기 및 연구의 목적	1
2. 연구사	3
1) 정의적 영역 교육 연구사	3
2) 태도 교육 연구사	7
3.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8
II. 소설 교육에서 태도의 개념	10
1. 태도 개념의 규정	10
1) 태도의 일반적 개념	10
2) 교육과정상 태도의 개념	11
3) 문학의 생활화 - 작용태로서의 태도	14
2. 소설 교육에서 작용태로서의 태도	18
1) 소설 교육에서 태도의 특수성	18
2) 소설 교육의 장과 자원	29
3) 장 안에서 구성되는 위계의 양상	35
3. 학습자 자기인식의 특수성	39
III. 실험 설계 및 요인분석	42
1. 분석의 과정	42
1) 설문 문항 설계 및 자료 수집	42
2) 분석의 방법	46
2. 자료의 분석	47
1) 조사 결과 기술통계 및 항목별 유의도 분석 결과	47

(1) 문학적 취향관련 유의도 분석 결과	48
(2) 독자로서의 자기 인식 관련 유의도 분석 결과	64
(3) 문학적 가치부여 관련 유의도 분석 결과	82

IV. 학습자 자기인식의 양상 85

1. 소설 교육의 장에 대한 인식	85
1) 장에 대한 영역별 인식	85
(1) 가정의 장에 따른 학습자의 취향 인식 양상	85
(2) 교육의 장에 따른 학습자의 취향 인식 양상	94
(3) 온라인의 장에 따른 학습자의 취향 인식 양상	99
(4) 또래문화의 장에 따른 학습자의 취향 인식 양상	102
2) 자원의 양상	106
2. 위계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	122
1) 상위 집단	124
2) 중간 집단	125
3) 하위 집단	128
3. 집단별 학습자 인식 양상	129
1) 상위 집단	132
2) 교육적 중간 집단	136
3) 직관적 중간 집단	140
4) 사회적 중간 집단	144
5) 독립적 중간 집단	147
6) 하위 집단	151

V. 교육적 시사점 154

1. 작용태로서의 태도 개념의 소설교육적 의의	154
2. 학습자 자기인식 양상의 특수성	156

1) 장르에 대한 선호도	156
2) 장에서 구성원 간 관계에 대한 대응	157
3) 문학 역량에 대한 척도로 기능하는 코드	159
4) 학습자 집단별 특성	160
3. 소설 교육에서 태도 교육 설계에 대한 제언	161

I .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소설 교육에서 태도 교육의 설계를 위하여, 태도 관련 연구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소설 독자로서의 학습자 태도 양상을 살피고 그 교육적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자기 인식이 소설에 대한 태도 형성 및 변화와 연관이 있다는 가설을 바탕으로, 학습자가 자신의 인식과 태도에 대한 초인지적 시각을 갖게 하는 것이 소설 교육에서 태도 교육의 한 방향이 될 수 있음을 논의하려 한다. 이는 그간 소설 교육에서 강조되어온 인지론적 읽기 혹은 비판적 읽기와는 다른 맥락의 접근으로, 태도에 대한 초인지적 시각을 바탕으로 해당 작품의 가치와 자신의 읽기 경험에 대해 판단하고 자기화하는 과정으로 학습자의 소설 읽기를 조망하려 한다.

태도에 대한 이러한 접근은 보편가치가 소멸하고 개별 대상에 대한 주체의 가치판단과 태도의 중요성이 커진 현대 사회에 보다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작품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는 논리적인 안목을 기르는 것도 문학능력의 성장을 위해 중요한 요소이지만, 가치를 해체하고 조롱하는 데에 더 익숙해진 현대사회의 학습자에게는 가치를 가치로 바라보고 탐구하는 태도를 형성하게 하는 것이 더욱 필요한 교육적 처치가 될 수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문학과 관련하여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자신의 태도와 문학적 가치관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오늘날의 문학교육 현실에서는 인지적, 논리적 능력이나 작품에 대한 해석 전략의 결핍으로 작품 읽기를 기피하는 학습자도 물론 존재하지만, 그보다 처음부터 문학과 작품의 가치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기에 작품에 대한 이해와 공감에 실패하는 학습자들도 많다. 이러한 작품을

비롯한 문학 전반에 대한 학습자의 태도는 작품에 대한 가치부여 및 해석의 방향성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작품에 대한 무관심이나 무조건적 공감 및 가치부여, 과잉 해석이나 해석의 실패 등의 결과로 이어진다. 따라서 그 태도가 어떻게 형성되며 소설 읽기의 과정과 결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밝히고 교육적 처치 지점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문학교육에서 이러한 부분은 정의적 영역이라는 개념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왔다. 그리고 정의적 영역의 대표적인 개념이 태도 개념이다. 태도는 교육과정상으로도 명시되어 있는 교육의 내용으로, 정의적 요소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은 아니나 대표성을 가지는 개념이며, 교육과정적 목표나 교육 내용에서 정의적 영역을 상징하는 교육 요소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개념 자체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실질적인 교육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국어교육에서 태도 개념에 대한 연구 역시 정의적 영역에 대한 연구의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과거의 국어교육은 인지적 영역에 대한 연구와 교육적 처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그러한 지식 중심의 교육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시작된 후에는 정의적 영역 교육에 대한 고민과 연구도 많은 조명을 받기 시작했다. 그러한 경향이 상징적으로 나타난 것이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 안에 독립적으로 설정된 태도 영역이며, 이후로 체계상 다소 변화된 양상을 보이기는 하나, 태도의 교육적 중요성은 널리 인정되고 있다.

이와 같이 태도 개념의 교육적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공유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생산적인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의적 영역에 대한 연구에서도 철학적 바탕이나 거시적인 방향 설정에 대한 연구들¹⁾이 있었고, 이후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여러 연구가 이어졌

1) 김대행(2002), 「국어교과학을 위한 언어 재개념화」, 『선청어문』 30호, 서울대 국어교육과
김대행(2002), 「내용론을 위하여」, 『국어교육연구』 10,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박인기(2000), 「국어과 교육에서 정의교육의 향방과 재개념화」, 『국어교육학연구』, 국어교육학회

으나, 추상적인 관념에서 나아가 구체적인 교육 내용이나 방법론을 구안하는 데까지 나아갔다고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정의적 영역에 대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교육과정으로 설정된 것이, 교육과정 내용체계의 ‘태도’ 개념이다. 정의적 영역에 대한 연구들에서 이 개념은 일반적으로 정서, 태도, 신념, 동기, 흥미, 가치 등을 포괄한다. 그런데 교육과정에서는 정의적 영역을 대표하는 내용 영역의 명칭을 ‘태도’로 삼고 있다. 이는 태도 개념을 정의적 영역의 교육과정 내용 체계의 범주명으로 확장하여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여기에는 태도 범주가 정의적 영역의 교육 내용 전체를 대변하기 어렵다는 위계적 문제가 있다.²⁾ 그러나 현재 교육과정에서 정의적 영역을 대표하는 교육 내용으로 태도 개념이 대표성을 가지는 것은 사실이며,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태도 개념에 대한 재규정을 바탕으로 소설 읽기에 대한 정의적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2. 연구사

국어과 교육에서 정의적 영역의 교육은 태도 교육으로 대표된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이루어진 정의적 영역에 대한 교육과 태도 교육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대상으로 연구사를 검토하였다.

1) 정의적 영역 교육 연구사

국어교육 연구의 장에서 정의적 영역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

2) 최지현(2000), 「국어과 교육에서 정의적 교육 내용」, 『국어교육학연구』 11집, 국어교육학회

김정우(2003), 「문학교육과 정의적 발달 : 국어과 교육과정에서의 정의교육 범주에 대한 연구 -내용 체계 및 위계의 문제를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12권, 한국문학교육학회, 2003

후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정의적 영역과 태도 개념은 국어교육에서 주요한 화두로 관심을 받아 왔다. 그러나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음에도, 그 중요성에 대한 선언적 차원의 논의들 이외에 실질적으로 보편적인 함의를 이끌어낸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문학교육에서 정의적 교육의 방향을 제시한 연구로는 박인기(2000, 2012)와 김대행(2002a, 2002b, 2003, 2005)을 들 수 있다. 박인기(2000, 2012)에서는 정의의 개념을 정서, 태도, 선호, 동기, 가치관 등을 넓게 포괄하는 확산적인 개념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국어교육에서는 정의교육 일반론에서 이야기하는 미분화된 유아 수준의 정의를 넘어서서 교과 문화와 같은 조건화된 정의의 영역을 구축하고 있음에 주목하여, 심리학적 틀에서 벗어나 인지와 결합된 형태의 정의 개념을 국어교육의 필요를 바탕으로 재개념화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 논의는 심리학 일반에서 주장되는 정의 개념과 차별화된 국어교육 맥락 안에서의 정의 개념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김대행(2002a, 2002b, 2003, 2005)의 연구는 국어교육 전반의 언어 재개념화라는 큰 틀 안에서 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는 언어의 영역을 체계, 행위, 문화, 의사소통, 사고, 예술의 여섯 가지로 규정하고, 이 여섯 가지 본질적 분야들을 수렴하면서 이를 수행적 이론을 통해 성취할 가치를 중심으로 다시 사실(fact), 의미(meaning), 과제(task), 정체성(identity)의 네 가지 특질로 구조화하였다. 이 네 특질에 대응되는 국어교육의 내용을 지식, 경험, 수행, 태도로 구체화하면서 정의적 요소로서 태도의 교육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최지현(2000)의 연구는, 국어교육에서 정의적 요소가 인지적 요소와 통합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며 정의적 요소를 3단계의 추상화 수준을 바탕으로 정의적 요소와 인지적 요소의 관계를 구체화하였다. 태도를 포함한 정의적 영역을 직접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대안적 교육 내용들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태도 교육 논의의 구체화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김정우(2003)는 정의적 영역이 교육과정상에서 다루어지는 방식에 대해 비판하면서 정의교육 범주 설계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다. 하위범주라고 할 수 있는 태도로 정의적 영역을 대표하는 교육과정의 영역 설정과 영역별 내용 요소의 불균형을 지적하면서 자아, 정체성, 가치 등의 문제를 중심으로 태도 개념을 재개념화할 것을 주장하였다. 정의적 영역이라는 관점에서 교육과정상의 개념적 정합성에 대해 논의하면서, 가치 주입 등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으로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던 가치 및 정체성 요소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했다는 점에서 태도 교육의 구체적 내용 및 방향 설정에 시사점을 준다.

김은성(2006)은 국어 문법 교육 영역에서 태도 교육의 내용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국어에 대한 메타적 사고를 통해 즐겁게 몰입하는 태도를 깊이 있는 지식 습득보다도 더 중요한 국어교육의 목표로 설정하고 태도를 국어에 대한 태도, 국어인식 태도, 국어인식 활동에 대한 태도로 구별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태도의 중요성과 작동의 형태와 층위를 밝히어 구체화하였다는 데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문학교육 안에서도 정의적 영역의 교육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김상욱(1996)은 이데올로기 개념을 바탕으로 소설에 대한 비판적 읽기 차원에서 정의적 영역에 대해 접근하였다. 정의적 영역에 이데올로기 개념을 적용함으로써 흥미나 동기 차원의 주관적이고 정서적인 요소 뿐 아니라 물질적 토대에 기반한 교육 내용의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논의라 할 수 있다. 김상한(2011)은 인지적 요소와 정의적 요소 간의 상호교섭을 통해 동화 교육에서 신화적 조화성을 교육 요소로 다룰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들은 문학 영역의 특수성 안에서 정의적 영역을 조망하는 의미있는 시각이라 할 수 있다.

서명희(2006a, 2006b)와 황혜진(2006)은 특정 갈래에서 태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서명희는 문학교육의 범주로서 태도의 개념과 양상을 살피고 시조 교육에서 태도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그의 논의는 태도의 양상을 두 가지로 나누어 교육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황혜진(2006)은 소설 교육에서 가치 경험을 교육 내용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소설이 도덕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보고, 학습자가 도덕적 가치를 경험하여 내면화, 자기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주로 조선시대 애정 소설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는데, 이는 가치 갈등의 요소가 분명하다는 장점과 일반화에 한계를 가진다는 단점을 함께 지닌다. 특정 갈래에서 태도의 문제를 다룬 연구들은 갈래의 특성에 보다 적합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문학 일반으로 확대하려면 변용의 과정을 거쳐야한다.

보다 일반적인 내용의 정의적 교육에 대한 연구도 있다. Knafle(1994)는 아동과 청소년 문학에서 가치와 어젠다, 선호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그는 특히 텍스트 특성과 관련하여 정의적 교육의 문제를 논하였다. 다양한 작품을 예로 들며 구체적인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 태도 교육에서 텍스트의 중요성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계획적인 교육의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Blachowicz & Wimet(1994)는 문학에 대해 가치 있는 정서적 반응을 하도록 하는 교수법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저널 쓰기와 소리내어 읽기, 문학 동아리 활동하기 등을 제시하였다. 교사들이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교수법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거시적인 안목이 결여되어있으며,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문학교육과의 차별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은 한계다.

일반적인 내용의 정의적 교육에 대한 연구들은, 작품 위주로 접근하거나 교수법을 제안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작품 위주의 접근이나 구체적인 교수법 위주의 접근은 교육의 목표를 설계하고 교육의 내용을 마련하는 데에 한계를 지닌다. 현재 문학교육에서 태도 교육의 문제를 생각해볼 때, 구체적인 실태 파악이 선결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실태 파악과 관련된 연구물들이 적다는 것은 아쉬운 점이다.

2) 태도 교육 연구사

태도의 정의는 매우 다양하다. 태도는 인간 심리의 한 부분으로서 직접 관찰이 불가능한 가정적 구성체이기 때문이다. 태도는 오래전부터 심리학의 핵심 개념이었기 때문에 그간 많은 연구자들이 이에 대한 개념 정의를 시도했다. 가장 고전적인 정의는 Allport의 태도란 경험을 통하여 형성 조직된 심리적 준비 상태로서, 그것은 그에 관련된 모든 사물과 상황에 대한 개인들의 반응에 지시적 혹은 역동적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정의이다.³⁾

이후 수많은 태도 개념들이 등장했는데,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태도의 심리학적 소재, 태도의 정체성, 태도의 조직 과정, 선행 경험과 태도의 관계, 태도가 지시적으로 기능하는가 동기화를 가능하게 하는가 등의 쟁점들을 찾아볼 수 있다. 태도 개념을 둘러싼 이견들은 태도 개념 정의의 어려움을 드러내고 있으나, 이러한 다양한 정의들이 태도의 속성에 대한 포괄적인 시각을 확보해 줄 수 있으며, 교육적 재개념화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황정규(1984)에 따르면, 태도는 본질적으로 경향이며, 학습과 경험의 결과이고, 심리적 대상에 대해 방향을 결정하게 하는 감정적 색조이며, 지속성을 가진다. 이러한 속성을 중심으로 태도는 인지적 요소, 감정적 요소, 행동적 요소로 조직된 심리적 실체로 규정할 수 있다. 이는 가장 전통적이며 광범위하게 수용된 가설에 근거한다.(나은영 1994)

이러한 일반적 논의를 바탕으로 정의적 교육의 맥락에서 태도 교육과 관련한 논의들이 문학교육 안에서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 논의들은 II장에서 보자 자세하게 살펴보겠다.

3) 김은성(2006), 「국어 문법 교육의 태도 교육 내용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3.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이 연구에서는 태도 개념과 정의적 읽기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학습자가 가진 태도 요소가 실제 소설 읽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학습자를 대상으로 실험 연구를 진행하였다. 실험 대상은 서울 소재 4개 고등학교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되었다. 조사는 2023년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실험 참여를 학습자에게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교사의 안내를 통해 인쇄물로 참여하는 방식과 온라인 설문 플랫폼(Google Forms)을 통해 참여하는 방식의 두 가지로 진행하였다. 오프라인은 대상 학교의 상황에 따라 한 차시를 할애하여 설문지를 학습자가 직접 작성하고 교사가 수거하는 방식과 학습자에게 설문지를 나누어주고 추후 수거하는 방식을 병행하였다. 오프라인 설문 참여 대상으로 제외되지 않은 해당 학교 학습자들의 경우 URL을 배포하여 희망자에 한하여 온라인으로 응답하는 방식으로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응답란에 학번을 기입하는 것으로 중복응답 방지 및 응답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최종적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응답한 학생은 총 21명이며, 나머지는 모두 인쇄물로 응답한 학생이다. 최종적으로 수집된 설문 자료는 아래 표와 같다.

연번	학교명	소재 지역	성별	인원수	비율	성비	수집 방법
1	A고교	서울시 중구	여	131명	56.0%	56.0%	오프라인
2	B고교	서울시 강남구	남	51명	21.8%	44.0%	오프라인
3	C고교	서울시 양천구	남	40명	17.1%		오프라인31명 온라인9명
4	D고교	서울시 서초구	남	12명	5.1%		온라인
합계				234명			

설문 문항은 1부와 2부로 구성하였는데, 1부는 독서 일반에 대한 태도를 묻는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독서에 대한 가치부여와, 주변인이나 온라인을 통해 접할 수 있는 해석공동체에 대한 태도, 독자로서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들을 제시하여 학습자가 스스로의 문학적 정체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2부는 그러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구체적 장르인 소설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살펴보기 위한 질문들로 구성하였다.

설문 결과의 분석에는 통계적 분석 방법과 근거이론을 적용하였다. 선택형 설문의 문항 중에는 학습자 스스로가 인식하는 자신의 문학적 능력과 타인의 문학적 능력에 대한 지표에 해당하는 설문과 자신 및 타인의 문학적 취향과 태도를 나타내는 설문이 있으며, 이 문항들의 답변 간에 어떠한 통계적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여 학습자들의 문학적 취향 및 태도와 문학 능력에 대한 자기평가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에는 SPSS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 방법론으로는 변수에 따라 카이제곱 검정,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 상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서술형 답안은 근거이론을 바탕으로, NVivo 프로그램을 활용한 축코딩과 초점코딩을 통해 내재한 태도 표현의 코드를 분석하고 이를 코드화하여 통계적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장, 자원, 취향에 대한 인식 등의 요인들이 독자로서의 자의식, 문학적 가치부여 형태 등에 대해 어떠한 영향관계와 설명력을 가지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문학적 태도와 위계를 구별짓는 변수들을 특정하고, 이러한 양상이 학습자들의 집단적 정체성 안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Ⅱ. 태도 중심 소설 읽기의 원리와 교육적 의의

1. 태도 개념의 규정

문학을 향유하는 경험에 대한 정의적 접근은 인지적 접근 혹은 비판적 접근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해당 작품의 가치에 대해 판단하고 고민하며 자기화하는 과정에 대한 초인지적 시각을 전제하고 있는 읽기이다. 자신의 가치판단 기제들이 이미 확립되었거나 객관적 기준으로 통일되었다고 전제하고, 그 기준에 비추어 작품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데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작품에 대한 독서 과정에서 작용하는 스스로의 판단 기준에 초점을 두어, 판단의 근거를 자성적으로 검토하면서 의미와 가치가 구성되는 과정을 초인지적으로 성찰하는 접근 방식이다.

1) 태도의 일반적 개념

태도는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개념화되었으며, 명확하게 하나의 개념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대상이다. 수많은 규정들을 통해 태도 개념에 대해 여러 가지 쟁점들이 논의되어왔다.⁴⁾ 이러한 태도의 다양한 정의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속성은 다음과 같다.⁵⁾ 본질적으로 태도는 어떤 경향이다. 태도는 경험의 결과, 학습의 결과이다. 심리적 대상에 대해 방향을 결정하는 감정적 색조이다.

4) 일반적으로 태도에 대한 쟁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태도의 심리학적 소재(태도는 정신적 상태인가 감정적 상태인가 인지적 상태인가), 태도는 결과인가 원인인가, 태도는 어떻게 조직되는가, 선행 경험이 태도 개발과 학습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 태도는 지식으로 기능하는가 역동적 동기화로 기능하는가. Martin & Briggs(1986), *the Affective and Cognitive Domains : Integration for Instruction and Research*, New Jersey : Educational Technology Publications. 100p,

5) 황정규(1984), 『학교학습과 교육평가』, 교육과학사

또한 태도는 지속적인 경향성이며, 태도에 대한 가장 고전적인 삼자 모형에서는 태도가 인지, 정서, 행동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있다고 설명한다.⁶⁾ 태도는 행위나 사고의 결과가 아니라 인지와 정서, 그리고 실천으로서의 행동에 이르기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태도의 특성들 중 태도의 순환적 속성에 초점을 맞추려한다. 태도는 경험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그 지속적인 경향성으로 인해 경험에 대한 주체의 지향을 결정지어 경험의 결을 변화시킨다.

2) 교육과정상의 태도 개념

‘태도’ 개념은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내용 요소로서 독립적으로 등장한다. 그 이전에 내용 체계가 제시되기 시작한 제6차 국어과 교육과정에는 ‘실제’ 항목의 하위 내용에서, ‘태도 및 습관을 기른다.’는 형태로 언급되기는 했으나, ‘정의적 요소’로 논의되던 부분들을 교육과정상 독립적인 개념으로 정착시킨 것은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태도 영역의 위상은 지속적으로 변천하였다.

태도 영역은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독립적인 내용 체계 영역으로 설정되었고,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삭제되었다가, 2009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부터 다시 독립된 영역으로 설정되었다. 이는 태도 개념이 가지는 교육적 특수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정의적 영역은 인지적 영역과 단절되거나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하나의 개념으로 구체화하여 교육 요소로 명시할 경우, 그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지거나 왜곡될 수 있다. 태도 개념 역시 근본적으로 ‘태도를 교재화하여 제한 시간 내에 교실 수업을 통해 가르치고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가.’⁷⁾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특정 학년의 특

6) Phil Erwin, *Attitudes and Persuasion*, 고은정 역(2006), 『태도와 설득』, 시그마프레스

정 교육내용을 통해 특정한 태도를 도출할 수 있다는 다소 도식적인 사고를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에게 심어줄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고⁸⁾,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태도는 내용 체계에서 다룰 것이 아니라 목표 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삭제되었다.⁹⁾ 이는 다시 2009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태도 항목으로 독립되어 지식, 기능 항목과 병렬적으로 제시되었으며,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내용 체계가 교과 공통으로 주어진 핵심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의 체계로 구획되고 있으나, 그 체계 안에 다른 축으로서 지식, 기능, 태도의 틀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이 다시 202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의 세 범주로 재구성되었고, 가치 개념과 함께 제시하는 것으로 태도의 성격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실제 교육 내용 차원에서는 여전히 성찰, 문학의 생활화, 문학 공동체 참여 등과 같은 기존의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가치 및 태도 개념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¹⁰⁾

이렇게 태도 항목이 내용 체계 안에서 추가와 삭제를 반복하는 것은, 태도의 범주 설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한 주된 논쟁 지점은, 태도를 구체적인 교육 내용으로 볼 것이냐, 목표 차원의 지향점으로 볼 것이냐이며, 이에 대한 논쟁은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이 옳다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이것을 내용 체계가 가지는 ‘논리적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을 우선할 것이냐, 실제 학습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현상으로서의 ‘교육의 실제’를 우선할 것이냐에 대한 선택의 문제로 보는 시각도 있다.¹¹⁾

7) 김창원(2016), 「2015 교육과정을 통해 본 국어과 교육과정 발전의 논제 -영역과 내용 체계」, 『국어교육학연구』 51집,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26쪽.

8) 박종임(2011), 「2011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태도’ 범주의 문제점 고찰 - 쓰기 영역을 중심으로」, 『청람어문교육』 44집, 청람어문교육학회, 250쪽

9) 김창원, 앞의 글, 26쪽.

10) 노은희 외(2022), 『202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시안(최종안) 개발 연구』, 교육부 11-1342000-000911-01

11) 김창원, 앞의 글, 26쪽.

교육과정상에 나타난 태도 관련한 교육 목표나 내용들은 대부분 전통 문화나 공동체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등과 같이 텍스트 외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양상을 보인다. 문학 텍스트의 구체적 내용이나 해당 교육 단계에서 초점화되는 구체적인 교육 내용과의 연결성이 확보되지 않은 채 텍스트 바깥에서 학습자가 길러야 할 태도와 습관을 이야기하는 형태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¹²⁾ 태도는 작품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되고, 작품의 양상이 달라지면 태도의 양상도 달라지기 마련이나, 그 과정에 대한 명확한 교육적 관점이나 처치, 학습자나 학습의 대상으로서의 문학 경험이 갖는 가치론적 특수성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문학에 대해 긍정적인 가치부여를 하고 문화를 계승 발달시키는 태도를 가지라는 교육과정의 관점은 태도를 지나치게 결정론적으로 보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태도를 기르고 성장시켜야 할 교육적 요소로 규정하고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성장하며, 성장 과정에서 교육의 다른 요소들과 어떠한 영향관계 속에 위치하는지에 대한 논의나 규정은 아직 명확히 정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태도에 관련한 교육과정적 요소들에서는 대개 바람직한 방향이 이미 정해져 있고 학습자로 하여금 그 방향을 수용하고 추구하는 상황을 상정하는 양상을 보인다. 학습자로 하여금 자신의 태도와 그 나아갈 방향에 대해 실질적으로 성찰하고 고민할 수 있는 여지를 크게 주지 않으며, 태도에 대해 고민을 하되 방향성을 열어두고 ‘어디로 갈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닌 이미 방향이 정해진 목적지로 ‘어떻게 갈까’에 초점이 맞추어진 양상이다. 태도와 관련한 교육과정상 대부분의 언급은 ‘기른다’ ‘가진다’ ‘지닌다’와 같은 언급과 이어져있다. 교육 이전에 이미 가지고 있을 학습자의 태도에 대한 고려는 거의 보이지 않으며, 바람직한 태도를 학습을 통해 새로이 습득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12) 김정우, 앞의 글 18쪽

3) 문학의 생활화 - 작용태로서의 태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교육과정에서 태도 관련 언급들은 학습을 시작하게 하는 동기로서의 태도와 학습의 결과로 구성되는 태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태도는 학습의 시작과 끝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의 전 과정에서 총체적으로 관여한다. 독자반응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독자와 작품 간의 거래관계와 마찬가지로, 태도를 통해 학습의 내용이 재구성되고, 재구성된 학습 내용들은 다시 태도를 형성하며, 그렇게 형성된 태도는 다시 학습 내용을 재구성한다. 따라서 결과로서의 태도가 아니라 독서 과정 전반에 영향을 주는 역동적인 작용태로 태도를 재개념화할 필요가 있다. 태도가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읽기를 좌우하고, 해석 방향을 설정하고, 주목할 부분을 가려내고 전체적인 가치판단을 만들어내어 이것이 다시 태도로 수렴하는 역동적인 순환으로 태도를 조망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작용태로서의 태도에 대한 교육에서는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태도에 대해 미리 교육적으로 규정하기 보다는, 자신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학습자 스스로 자각하고 이 태도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지, 이 태도의 본질은 무엇인지를 성찰하여 스스로 자신의 태도를 구축하게 하는 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태도 자체가 탐구의 대상, 성찰 및 인식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작용태로서 태도를 조망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문학의 생활화’ 개념에 주목한다. 7차 교육과정에서 최초로 태도가 교육내용의 영역으로 설정하면서 그 하위 요소로 ‘동기, 흥미, 습관, 가치’¹³⁾를 설정하고 있는데, 이 요소들은 태도를 인지, 정서, 행동의 세 요소를 통해 설명하는 심리학의 고전적 삼자 모델에 기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상위의 내용 체계가 ‘지식, 기능, 태도, 실재’로 나뉘기 때문에, 태도 영역에서 명확하게 인지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하위요소를 넣

13) 교육부(1997), 『중학교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별책3]

기는 어려우나, 하위요소들 중 가치요소는 ‘작품의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상황에 나타난 그 시대의 가치를 이해하려는 태도를 지닌다.(7학년)’ ‘작품에 드러난 우리 민족의 전통이나 사상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지닌다.(8학년)’ 와 같이 이해하고 비판하는 활동을 설정함으로써 인지적 요소를 포괄하고 있다. 그 외에 동기와 흥미 요소는 ‘정서’에 대응될 수 있으며, 습관이 ‘행동’에 대응되는 요소로 볼 수 있다.

이 요소는 2007 개정교육과정에서는 태도 영역이 내용요소가 아닌 교육 목표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맥락 영역이 추가되면서 삭제되었다가,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문학의 가치와 필요성, 문학에 대한 흥미, 문학의 생활화’라는 하위요소 체계로 다시 등장하였다. 이는 앞선 7차 교육과정의 체계보다 명확하게 인지, 정서, 행동에 대응하는 하위요소 체계로 볼 수 있다.¹⁴⁾ 이 하위요소 체계는 2015개정교육과정에서는 다시 ‘자아성찰, 타자의 이해와 소통, 문학의 생활화’로 개정되었다가, 2022개정교육과정에서는 ‘문학에 대한 흥미, 문학을 통한 타자 이해, 가치의 내면화’ 등으로 개정되었다.

태도 영역 자체의 위상과 마찬가지로 하위 내용 요소들 역시 교육과정 개정 시기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었으나 공통적인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공통 요소는 흥미 혹은 동기 요소로 대표되는 정서적 요소, 자아성찰 및 타자와의 소통에 해당하는 인지적 요소, 그리고 문학의 생활화로 대표되는 가치의 내면화, 체화에 연관되는 요소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세 요소들은 별개로 독립된 요소라기보다는 태도를 형성하고 유지하고 변화시키는 공동 요소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중에 이 연구에서 주목하는 것은 가치의 내면화 및 체화이며, 이것은 문학교육 안에서 ‘문학의 생활화’라는 개념으로 구체화되어왔다. 이는 학습자가 생활속에서 문학을 접하면서 가치를 내면화하고 정체성을 형성하면서 체화된

14) 선주원(2012), 「초등학교 문학교육에서 ‘태도’범주의 교육 내용과 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초등국어교육』 50권,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pp.161-188

문학 경험을 의미하며, 이는 습관, 취향 등의 행위 요소와 연결되면서 동시에 정의적 요소의 지속성과 관계된다. 지속성은 학습자의 정체성 및 가치관을 생성하고 유지하고 변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구성되며, 문학적 행위를 만들어내는 동기가 되고 문학적 경험을 규정하는 틀이 되어 결과로서의 태도가 아니라 문학 경험의 전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작용태로서의 문학 태도를 구성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체화된 문학 태도로서의 문학 생활화 개념에 주목하였다.

초기의 문학 생활화에 대한 논의는 학습자들이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과 함께 문학을 더 이상 주류문화로 향유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한국문학교육학회는 2001년부터 2년간 기획특집으로 다양한 문학의 생활화에 대해 다루었는데, 이 시기는 90년대 말부터 인터넷 및 PC의 보급으로 인해 웹소설이나 팬픽, 판타지 등 다양한 인터넷 문학과 장르문학이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기존의 본격 문학이 청소년 학습자에게서 소외되던 시기였고,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으로 인해 책의 종말¹⁵⁾이라는 선정적인 용어마저 생겨나던 시기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학교육 안에서는 학습자들의 생활 속에서 문학 작품들이 소외되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¹⁶⁾이 생겨났으며, 이것을 바탕으로 문학 생활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문학 생활화에 대한 이론적 열개는 김대행¹⁷⁾으로부터 제시되었다. 그는 문학의 생활화를 ‘일상의 삶을 문학과 함께 영위’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필수 요건으로 문학을 향유하고, 문학과 함께 살아야 인간답게 살게 되는 상태를 말하며, 이는 문학과 삶을 결합시키면서 문학교육의 본질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논의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문학과 학습자의 삶을 교육을 통해 연결

15) 배식한, 『인터넷 하이퍼텍스트 그리고 책의 종말』, 책세상, 2000

16) 정과리(2001), 「이 아이들을 어찌할 것인가? - 판타지 소설 붐을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7권, 한국문학교육학회, pp.107-114

17) 김대행(2001), 「문학 생활화의 패러다임」, 『문학교육학』 7권, 한국문학교육학회, 2001, pp.9-23

해야한다는 논의에는 현재 그것이 유리되어있다는 전제가 포함되어있으며, 이는 학교 교육에서 지향하는 특정한 형태의 문학을 학습자에게 체화시켜야 한다는 논의로 읽힐 여지가 있다.

문학은 교육 이전에 학습자의 생활 속에 이미 어떤 형태로든 자리하고 있다. 그것이 교과서에 수록된 정전 작품이든, 권위있는 문학상을 받은 본격소설이든,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은 베스트셀러이든, 특정한 매니아층의 사랑을 받는 장르문학이든 간에 어떤식으로든 학습자들은 작품을 접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가치관과 정체성을 구성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웹소설 시장은 2013년 100억원 남짓한 규모에서 2018년 기준 4000억원을 돌파하여 5년만에 40배 넘게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현재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¹⁸⁾ 웹소설의 전체 플랫폼에 대한 이용자 통계가 조사된 바는 없으나, 한 플랫폼에서 2014년에 발표한 이용자 통계 자료에 의하면 전체 이용자 중 10대가 17%를 차지하고 있었다.¹⁹⁾ 대부분의 웹소설 플랫폼이 유료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력이 제한된 10대 이용자가 20% 가까이 된다는 것은 상당한 비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학습자들에게 웹소설을 비롯한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작품을 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생활이 되었으며, 이러한 상황에 순수문학(본격문학)/대중문학(통속문학)의 이분법적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학습자가 처한 문학 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편중된 관점이 될 수 있고, 자칫 가치주입 교육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문학의 생활화는 특정한 성격의 문학을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즐기도록 습관화하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학을 어떻게 생활화하느냐 하는 그 과정을 성찰하고 공유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어떠한 문학을 접하고 어떠한 가치와 의미를 구성하여 문학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변화하고 성장시키는지, 그것이 이후 어떠한 문학의 수용과 생산

18) 이근미(2019), 「웹 소설 시장 5년만에 40배 성장, 4000억원 규모 시장 형성」, 『월간 조선』 10월호

19) 전기정(2020), 「한중 웹소설의 특징 및 시장 현황 비교 분석」, 『열린정신 인문학 연구』 21집 2호,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 pp.55-75

으로 이어지는지. 그 과정 안에서 학습자에게 체화되고 내면화된 문학적 가치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바탕으로 문학의 생활화를 논의해야한다.

이러한 체화된 문학을 포착할 수 있는 것이 부르디외의 아비투스(habitus) 개념이다. 아비투스는 주체의 지극히 주관적인 영역으로 인식되던 취향이 어떠한 객관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이러한 아비투스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학습자의 문학적 인식에 전제된 문학적 정체성의 분석에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2. 소설 교육에서 작용태로서의 태도

1) 소설 교육에서 태도의 특수성

앞선 논의에서 문학교육에서 태도를 다루는 관점과 방법들이 태도를 정적인 결과로 초점화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주어지는 태도에 초점을 두는 관점으로는 태도가 실제 문학 경험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포착하기 어려우며, 바람직한 태도로 규정해놓은 교육 목표들은 자칫 교조적인 강요나 억압으로 작용할 위험성마저 가지고 있다. 태도를 교육의 대상으로 규정하면서도 그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 내용과 방법을 구안하기 어렵게 되는 것은 이러한 관점의 한계다.

태도를 설명하는 많은 논의들을 비롯하여 고전적 모델에서도 인지, 정서, 행동을 아우르는 것으로 태도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지식, 기능, 태도로 영역을 구별하여 인지적 영역과 수행의 영역, 정의적 영역을 각각 별개의 영역으로 구분짓고 있다. 태도를 인지 및 수행과 분리하여 영역을 규정하는 이러한 체계는 영역 구분을 통해 교육 과정의 목표와 지향을 보다 명확히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태도 개념을 보다 역동적으로 확장하는 데에는 한계를 갖는다.

태도를 지식, 기능, 태도의 구도를 통해 독립적 범주로 설정할 경우 영역 구분으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개념적 단절로 인해 지나치게 협소하게 다루어질 염려가 있으며²⁰⁾, 동시에 명제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의 체계를 가진 지식, 기능과 동등한 영역으로 등치시킬 때에는 내용 체계의 논리적 정합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²¹⁾ 또한 2007 개정교육과정에서 시도했던 것처럼 내용 체계 상에서 구체적 항목을 삭제하고 교육적 목표 차원에서 천명할 경우 구체성이 떨어지는 선언적 목표에 그칠 우려가 있다.

태도는 학습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학습의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지적 영역이나 실제 수행의 영역과 배타적으로 분리될 수 없는 개념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태도를 독립된 내용 영역으로 설정하기 보다는 포괄적인 범위로 재개념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맥락’을 설정했던 방법과 마찬가지로, 문학교육과정의 내용 영역에서 태도의 영역을 아래와 같이 설정할 필요가 있다.

실제	
지식	기능
태도	

위 그림은 태도가 작용태로서 인지와 행위의 근간이 되는 구도를 나타낸다. 태도를 기반으로 명제적 지식이 선별되고 구성되며, 절차적 지식의 학습 양상도 결정된다. 그리고 이것이 만들어내는 실제 언어 경험을 통해 다시 태도가 구성되는 순환적 구도이다. 여기서 태도는 행위의 동기가 되고, 명제적 절차적 지식을 바탕으로 해석과 수행의 전략을 결정

20) 박종임(2011), 「2011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태도 범주의 문제점 고찰 - 쓰기 영역을 중심으로」, 『청람어문교육』 44집, 청람어문교육학회, pp.249-268

21) 김정우(2003), 「문학교육과 정의적 발달 : 국어과 교육과정에서의 정의교육 범주에 대한 연구 -내용 체계 및 위계의 문제를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12권, 한국문학교육학회

짓는 지향성이면서 행위의 결과로 인지와 정서를 심화·확장하는 데 관여하는 초인지적 기능을 한다.

이렇게 태도의 위상을 설정하면 작용태로서의 재개념화가 가능하나, 마찬가지로 2007 개정교육과정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설정되었던 맥락 영역이 마주했던 막연한 추상성의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 이러한 한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태도의 작용태를 보다 미시적이고 구체적으로 포착할 필요가 있으며, 태도 형성과 관련된 학습자의 자기 인식 양상을 포착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 주목하는 것이 아비투스 개념이다. 아비투스 개념을 통해 실질적으로 문학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이 어떻게 형성되어있고, 어떠한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며, 이것이 문학 경험과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통해 태도를 결과로서의 완결된 교육 요소로 보는 관점에서 학습자의 인지적 정서적 작용태로 보는 관점으로의 전환을 꾀하며,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태도에 대한 선언적 접근보다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태도에 초인지적으로 접근하여 태도 자체를 탐구의 대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 접근 방법을 마련하려 한다.

아비투스는 부르디외의 개념으로,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개인에게 체화된 가치판단에 대한 일정한 성향과 인식틀을 가리킨다.²²⁾ 이것은 개인에게 사회구조가 오랜 기간 내면화된 결과이며 세계에 대한 인지와 판단을 이끌어내는 원칙이다.²³⁾ 그에 따르면 경제자원과 문화자원에 따라 사회적으로 아비투스가 구성되고, 이것에 따라 개인의 미학적 취향에 차이가 만들어지고, 소비 행위와 생활 양식에 이에 상응하는 차별성이 생긴다.²⁴⁾ 이를 근거로 각 문화 계층은 자신의 취향을 타인과 구별짓는 것으로 문화적 정체성을 구성한다. 아비투스를 바탕으로 구성되는 취향 개념은 체화된 무의식적 영역을 다룬다는 점에서 태도와 범위가 일치하

22) Pierre Bourdieu, *Distinction*, 최종철 역(2006), 『구별짓기』, 새물결

23) 하홍규(2014), 「실천적 전환에 대한 비판적 고찰: 기든스와 부르디외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8권 1호, pp.205-233

24) 홍성민(2012), 『취향의 정치학』, 현암사

는 개념은 아니지만, 인지와 정서를 포함하며 행위를 촉발하기 때문에 태도의 양상을 살펴보는 도구로 유효하며, 아비투스(bourdieu)를 바탕으로 스스로가 인식하지 못하던 가치판단 영역에 대한 인식을 구성하면서 태도에 대한 초인지적 관점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아비투스는 사회적 장(champ) 안에서 구성된다. 장은 막스 베버의 개념을 부르디외가 원용한 것으로, 주체가 속한 사회적 상호작용의 공간이며, 아비투스가 생성되고 계급이 재생산되는 공간이다. 그 장 안에서 주체가 확보한 경제자원과 문화자원의 양과 분포에 따라 위상이 결정된다. 이러한 장들이 다수 연결된 다차원의 접합공간이 사회다. 사회 속에는 경제, 정치, 군사, 법, 종교, 교육, 음악, 과학 등 다양한 장이 있으며, 부르디외는 그 중 서구 문학장의 구조를 부르주아와 정치권력의 관계 속에서 분석한 바 있다.²⁵⁾ 이러한 사회적 장 안에서 지배계급, 중간계급, 민중계급으로 나뉜 계급적 주체들은 취향을 바탕으로 한 소비 행위를 통해 자신의 계급적 정체성을 수립하고 다른 계급과 구별짓는다.

체화된 가치판단과 취향의 도식을 의미하는 개념이기에, 이를 통해 학습자들이 작품에 대해 가지는 태도의 구체적이고 다층적인 차원을 포착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문학 소통의 장’을 설정하고, 이 장 안에서 학습자들이 서로를 구별짓는 집단적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고 이것이 어떠한 아비투스로 이어지고, 소설 읽기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다만, 부르디외의 논의를 그대로 현대 한국의 학습자들에게 적용하는데에는 두 가지 차원에서 무리가 있다. 첫 번째로 사회적 계급이 명확하게 분화하지 않은 한국 사회의 특성을 그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이미 부르디외의 아비투스 논의가 전제하는 계급 개념에 대하여, 사회문화적 기반의 차이를 강조하면서 그 이론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미국 사회에서 제기된 바 있다.²⁶⁾ 미셸 라몬트(Michele Lamont)를 비롯한

25) Pierre Bourdieu, *Les règles de l'art*, 하태환 역(2002), 『예술의 규칙』, 동문선

26) Lamont & Lareau(1988), ‘Cultural Capital: Allusion, Gaps and Glissandos in recent Theoretical Development’, *Sociological Theory* Vol 6, No 2, American

미국의 학자들은 노동계급과 상류 계급의 구별이 오랜 세월을 걸쳐 고착화된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사회와는 달리, 미국 사회는 문화적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문화 간에 엄격한 위계서열이나 배타적 경계가 유럽처럼 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²⁷⁾

마찬가지로 그 계급적 특성의 전형성이 유럽과 다른 한국에서도 부르디외의 계급 개념과 아비투스²⁸⁾를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한국은 식민지배와 전쟁과 같은 극도의 혼란상 속에서 짧은 시기에 급격히 경제구조가 커지고 구시대적 사회구조에서 근현대적 사회구조로의 이행이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급박하게 진행되었다. 그 과정에서 서구 문화권에서 보이는 것처럼 부르주아 계급이 사회를 주도하거나 그들의 문화적 역량이 헤게모니를 완벽하게 독점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현대화 과정에서 의무 교육의 정비와 대학교육의 일반화로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서, 경제적 계급이 명확하게 분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을 매개로 한 계층 간 이동이 부르주아 사회가 고도로 발달하고 계급이 고착화되었던 유럽 사회에 비해 비교적 활발하게 일어났다. 따라서 경제구조라는 하부구조가 문화코드를 그대로 결정한다기보다는 구성원 간의 상호주관적인 문화 교류 과정에서 서로를 구별짓는 코드가 만들어지고, 그 코드들은 지속적으로 생성, 변화, 소멸하면서 뒤섞여왔다.

또한 90년대 후반부터 온라인 환경의 대중화를 시작으로 다매체 정보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더 이상 경제자원이 사회구성원들의 문화적 경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누구나 쉽게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정보를 검색하여 얻을 수 있으며 누구나 쉽게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문화적 인프라를 향유할 수 있는 사회이기에 서구 근대 부르주아 사회처럼 경제 계급에 따라 문화적 경험이 비약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는 사회가 현대 한국 사회이다. 따라서 부르디외의 논의가 전제하고 있는 하부구조로서의 경제 계급이 구성원의 문화적 역량을 결

Sociological Association, pp.153-168

27) 양종희(2009), 「문화적 취향의 분화와 계급」, 『한국사회학』제43집5호, pp.170-209

정하는 유물론적 관점을 한국 현대 사회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문화권 간의 간극에서 오는 차이가 크다.

둘째 이유는 부르디외의 논의를 벗어난 새로운 문화적 경향의 대두 때문이다. 질 리포베츠키(Gilles Lipovetsky)는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현대 사회의 발전 단계를 대중시장사회, 대중소비사회, 과소비 사회로 나누고, 부르디외의 논의는 이중 대중소비사회에서 제한적으로 유효할 뿐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²⁸⁾ 대중소비사회는 생산속도와 생산량이 대폭 증가하면서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된 시기이다. 따라서 이전 산업사회에 비해 제품의 가격이 대폭 하락했으며 이로 인해 상품구매가 대중화 되었고, 현대적 의미의 소비자가 대두한 시기이다.

대중소비사회는 대중이 소비자로 대두한 이후 전체적인 소비 수준이 상승하면서 대중의 욕망을 자극하는 마케팅이 등장하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 소비가 자신의 계급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아비투스(bourgeoisie)를 바탕으로 한 구별짓기의 수단으로 소비 성향에 주목한 부르디외의 논의가 유효하다. 구매를 통해 물품의 효용성을 즐기기도 보다는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고 계급적 소속감을 느끼며 피라미드의 상위를 차지하려고 노력하는 시기이다.²⁹⁾

과소비시대는 대중문화가 소비문화의 주류로 자리잡으면서 개인으로서의 대중들의 취향이 다양하게 분화하면서 등장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공급이 극도로 다양해지고 소비 패턴이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형태로 변화한다.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기 위해 소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목표, 취향, 기준에 따라 소비하기 시작하며, 극도로 개인주의적 사회가 된다. 사회 계급 간에 분명했던 행동이나 습관들이 흐릿해지면서, 소비 패턴을 예측하기가 어려워진다. 오락적인 가치가 명예보다 우선하게 되고, 자아의 행복감이 계급적 구별짓기보다 우월하게 여겨진다.³⁰⁾

28) Gilles Lipovetsky, *Le bonheur paradoxal*, 정미애 역(2009), 『행복의 역설』, 알마.

29) Gilles Lipovetsky, *Le bonheur paradoxal*, 정미애 역(2009), 『행복의 역설』, 알마. 41p.

30) Gilles Lipovetsky, *Le bonheur paradoxal*, 정미애 역(2009), 『행복의 역설』, 알마.

과소비 사회가 되면서 기존의 계급적 정체성에 기반한 과시적 구별짓기의 자리를 ‘개인’이 차지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이 ‘개인’이라는 개념이 부르디외가 이야기했던 계급적 정체성과 통하는 부분이 있다. 즉 계급적 피라미드 꼭대기의 자리에 ‘고급문화’ 대신 ‘개인’이 놓였을 뿐 피라미드의 위계적 구조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대중소비사회에서는 ‘계급적 규칙 안에서 더 비싸고 더 고급 문화적 요소를 담지한 대상’을 소비하는 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구별 지었다면, 과소비사회에서는 ‘개인의 특성’을 더욱 잘 드러내는 대상, ‘나다운 것’을 더 잘 표상해주는 대상을 소비하는 것으로 자신의 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구별 짓는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사회 속의 한 계급으로서의 집단적 정체성을 배타적으로 추구했다면, 과소비사회에서는 개인이 주체로서의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배타적으로 추구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여전히 ‘구별 짓기’의 매커니즘이 작용한다는 점, 취향과 소비를 통해 자기 정체성을 구성한다는 점이며, 이런 측면에서는 부르디외가 분석했던 대중소비사회에서 구별짓기로서의 소비 양상과 맥이 닿아있다고 할 수 있다.

‘나다운 것’, ‘나만의 것’이라는 개인지향의 소비는 일면 무한 다양성을 전제하는 것 같지만, 주체로서의 개인은 그렇게 명확하게 사회나 타인과 구별되는 존재가 아니다. 주체와 타자 간 경계의 불명확성을 극복하기 위해 주체는 끊임없이 자기 정체성을 확인해야한다. 그 과정에서 취향 선택과 소비를 통해 배타적으로 자기 정체성을 규정한다는 것은 나만이 갖는 유일무이한 것이 자신의 정체성이라는 환상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대중 시장의 마케팅 포인트가 된다. 그래서 ‘나는 나야. 남과는 달라’라는 광고 문구를 내세운 제품이 오히려 다수의 대중에게 획일적으로 소비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나타나는 것이다.

과소비사회에서의 남과 다른 것에 대한 추구는 대중소비사회에서의 고급문화에 대한 추구만큼이나 정체성을 구성하는 욕망의 대상이 되고, 나

만의 개성을 더 많이 가진 자와 대중 취향에 함몰된 자 사이에 또 다른 계층적 피라미드가 생긴다. 이런 측면에서 질 리포베츠키가 이야기한 과소비사회에서 대중들의 문화 소비 경향은 부르디외가 이야기한 대중문화의 계급적 정체성 및 구별 짓기에서 완전히 벗어난 양상을 보인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과소비 사회의 위계적 피라미드는 경제계급을 바탕으로 한 유물론적 계급이 아니라 타인과 자신의 배타적 관계를 바탕으로 한 정신적 위계 관계라는 점에서 부르디외의 계급 논의와는 맥락이 다르다. 이 ‘개성’이라는 판단 기준에는 기존의 경제계급을 바탕으로 한 계급적 정체성보다는 사회 안에서 나와 타인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가 더 크게 작용한다. 누가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 누가 더 교육을 많이 받았느냐와 같은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요소가 아니라, 내 관점이 얼마나 남과 다른가, 남과 다른 내 행복을 얼마나 보장하는가가 취향과 판단의 기준이다. 따라서 그 기준에 의한 판단은 훨씬 모호하고 직관적이다. 부르디외 역시 이러한 계급적 요소와 계급 의식의 어긋남을 ‘허위의 동일시’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단지 객관적 계급 취향과의 상관관계 속에서 어긋난 취미선택을 하는 객관적 계급과 주관적 계급의 어긋남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객관적 계급을 구성하는 경제계급이 과소비사회의 계급투쟁에는 더 이상 크게 관여하지 못하고 계층적 정체성 자체가 상호주관적으로 구성된다는 측면에서 맥락이 다르다.

이러한 대중문화 안에서는 고전적이고 객관적인 가치는 조롱의 대상이 되기 쉽고, 단기간에 급격히 주목을 받았다가 금세 사라지는 유행이 대중문화의 주요 코드가 된다. 나만의 개성을 찾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새로운 대상이 등장하면 누구나 그것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모두가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더 이상 나만의 것이 아니게 되기 때문에 사장된다. 결과적으로 모두가 자신의 개성을 추구하지만 그 개성 추구의 양상은 비슷해지면서, 어떤 측면에서는 대립적 개념인 개성과 유행이 구별하기 어

려운 형태로 서로 얹혀서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한국사회의 특수성에 더하여, 이 연구에서는 문학 소통 구도에 대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문학 교육에서 아비투스 논의를 초점화하였다. 부르디외의 아비투스는 사회학의 오랜 딜레마인 객관주의와 주관주의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 개념이다. 모든 것이 물질적 토대와 구조를 통해 결정된다는 토대반영론 혹은 구조결정론과 인간 행위의 선험적인 지향성으로 인식되던 주관의 영역 간의 이분법적 구분을, 부르디외는 객관적 사회 조건을 통해 주체의 인지 성향을 설명하는 것으로 극복하고자 한다.³¹⁾

또한 칸트 이래로 서양철학에서는 대상과 주체의 이분법에 기반하여 인간의 인식을 설명해왔다. 인간의 인식을 넘어서는 물자체가 존재하며, 인간은 실재로서의 그 물자체에는 닿을 수 없다. 따라서 인간이 인식하는 세계는 실체로서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를 통해서 재구성된 형상이다. 부르디외는 이러한 주체와 대상의 관계를 실체적인 대립이 아니라 사유적으로 생성하는 관계적 개념화의 과정 자체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해명하려 시도했다.³²⁾

이 연구 역시 객관적인 사회 요소들을 통해 주체의 주관적 지향성을 설명할 수 있다는 관점을 공유하지만, 이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문학 소통 현상 속에서 객관적 사회 요소에 대해 문학 영역의 논의를 적용하여 논의의 범위를 구체화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문학 소통에서 학습자들에게 인식되는 객관 세계는 객관적 실재로서의 세계가 아니라 학습자들에 의해 구성되고 인식된 세계로 간주한다. 이러한 문학적 세계상과 관련하여 폴 리코르는 삼중의 미메시스로 문학 소통을 설명한 바 있다.³³⁾ 그에 따르면 문학 소통에서는 객

31) 정선기(2024), 「Bourdieu의 구성적 구조주의와 사회적 장의 동학」, 『사회과학연구』제 35권 1호, pp.3-25

32) 정선기 앞의 글

33) P. Ricoeur, *Temps et récit*, 김한식·이경래 역(2000), 『시간과 이야기 1』, 문학과 지성사

관적 실재로서의 세계가 아닌 그 실재를 통해 구성된 미메시스가 관여한다. 작가가 세계 경험을 통해 구성한 미메시스1, 이를 바탕으로 작품 속에서 구축된 미메시스2, 그리고 독자가 자신의 세계 인식인 미메시스1을 바탕으로 작가가 작품 속에 구축해놓은 미메시스2와 만나는 독서 행위를 통해 생성되는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인 미메시스3이라는 세 층위의 미메시스를 통해 리코르는 문학 소통의 확장적 순환 구조를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지점은 문학적 소통과 가치판단에 관여하는 것이 세계 자체가 아니라 세계에 대한 이해의 결과인 미메시스이라는 점이다.

이는 캐스린 흄(Kathryn Hume)의 문학론에서 제시된 합의(consensus)된 리얼리티³⁴⁾와도 일맥상통하는 개념이다. 흄은 현실을 모사하고자 하는 충동과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충동으로 문학 현상을 설명하면서, 작가와 독자는 각각 세계에 대한 경험을 통해 합의된 리얼리티를 구성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실재로서의 객관 세계와는 다르며, 자신의 현실 극복 충동과도 구별되는, 주체가 ‘이것이 현실이다.’라고 인식하는 현실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흄은 이 합의된 리얼리티로부터의 의도적 이탈로 문학의 환상성을 설명한다.

이러한 논의들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문학 영역에서는 문학 소통의 구성원을 둘러싸고 있는 물자체로서의 세계보다는 그 안에서 구성원들이 소통 과정에서 만들어내는 세계상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세계상들이 서로 어떠한 영향관계에 있는지를 포착하고 살피는 것이 주요한 논의 지점이다. 이것을 부르디외의 사회학적 논의에 적용하여 이 연구의 초점을 구체화하였다.

부르디외의 아비투스 논의에서는 사회적 객관 요소들이 주체의 주관적 지향과 인식 구조를 발생시키며, 또한 이 구조는 새로운 상황 속에서 지

34) K. Hume, *Fantasy & Mimesis*, 한창엽 역(2000), 『환상과 미메시스』, 푸른나무, 국내 번역서에는 consensus를 주체가 현실이라고 인식하는 세계와 등치적으로 연결되는 현실 그대로의 현실이라는 차원에서 ‘등치된’으로 번역하였으나, 여기서는 주체가 경험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현실이라고 인정한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하여 ‘합의’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속적으로 새롭게 재생산되는 구도를 설명하고 있다. 다시 말해 사회를 통해 외재성이 내재화되면서 동시에 주체의 내적인 성향이 다시 외재화 되는 구조를 갖는다.³⁵⁾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아비투스³⁶⁾의 이중적 과정을 바탕으로 앞서 논의한 문학 소통의 ‘합의된 리얼리티’ 개념을 적용하여 사회적 객관 요소를 규정하였다. 이 객관 요소들은 주체로서의 학습자 안에서 재구성된 요소들이며, 주체 안에서 객관적인 것으로 지위를 인정받는 특수한 요소이다. 사회적 조건들은 주체의 해석을 통해 수용되어 주체의 객관 세계상을 구성하며, 그렇게 구성된 객관 세계상은 다시 주체의 주관적 취향과 태도를 구성하는 상호적 관계를 갖게 된다. 학습자에게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인식되기 전의 사회적 조건은 학습자에게 무의미하며, 학습자의 문학 소통에 관여하는 사회적 조건은 학습자에게 인식되고 재구성된 사회적 조건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객관적 요소로서 장과 자본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부르디외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학습자가 구성한 객관적 사회 조건들이 어떠한 양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피고, 그러한 사회 조건이 학습자의 문학적 취향, 독자로서의 자의식, 문학적 가치부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려한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한국 현대 사회는 서구 사회와는 다른 한국 현대 사회의 계급적 특수성을 가지며, 경제적 자원과 계급의 영향력을 넘어서 과소비사회적인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의 아비투스를 살펴볼 때에는 경제자원에 바탕한 학습자들의 계급이라는 부르디외의 개념을 그대로 차용하기보다는, 상호주관적으로 구성되는 배타적 계층 구별 요소와 정체성에 초점을 둔다. 문학 소통의 장에서 학습자들이 서로의 ‘문학 능력’에 대한 상호주관적인 인식과 구별짓기를 통해 일종의 위계를 지닌 배타적 집단 정체성이 형성되

35) 양은아(2023), 「부르디외 실천이론의 행위와 구조의 동학: 아비투스 개념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제33권1호, pp.69-110

며, 이것을 문학에 대한 학습자의 아비투스 분석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 이 연구의 전제이다.

개인의 문학 능력은 선천적으로 주어지기도 하고 가정환경을 포함한 주변 환경, 교육을 통해서 변화가 생기기도 한다. 이 능력은 명확히 규명하기도 어렵고, 정확히 위계화하여 등급을 나누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나, 해석공동체의 구성원들 간에는 어떠한 형태로든 상호주관적으로 능력의 위계가 구축된다. 해석공동체 안에서 소위 작품을 잘 읽어낼 수 있다고 신뢰받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 차등적 인식이 존재하며, 구성원들은 이것을 직관적으로 인지하고 이에 대한 태도를 설정함으로써 자신의 문학적 정체성을 타인과 구별 지으려 시도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문학 소통의 장 안에서 학습자의 실제 경제적 문화적 객관적 계급이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상호주관적으로 형성한 위계 의식을 바탕으로 구별되는 문학적 인식의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문학 능력을 객관적으로 규명하고 그 위계를 명료하게 밝히는 것 자체는 쉽지 않은 과업이며 이 연구의 본질적인 관심사도 아니다. 자신과 타인의 문학 능력에 대한 개인의 인식과 그에 따른 문학적 가치판단의 양상을 살펴보는 것, 학습자 스스로가 그러한 체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그 안에서 자신의 위상을 어떻게 설정하고, 이것이 문학적 취향과 감상의 지향성에 어떻게 반영되느냐를 살피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2) 소설 교육의 장과 자원

부르디외는 사회 속에서 주체의 행위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로 장과 행위자의 계급적 위치를 설정하였다. 장 안에서 행위자가 갖는 계급적 특수성을 기반으로 학습자의 아비투스가 발현된다. 이때 아비투스는 사회구조를 단순히 반영하는 객관성의 내재화도 아니고 완벽하게 주관적이

고 합리적인 내부적 판단 기준에 따른 것도 아니다.³⁶⁾ 객관성에 바탕하여 구성되는 주관성의 작용이 부르디외의 아비투스 개념을 통해 설명하고자 하는 현상이다.

장은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영역들이 서로 뒤섞여 관계를 맺는 공간이다. 이러한 장 속에서 각 영역들의 특성과 그 구성원들이 가진 자본의 양과 분포를 매개로 구성원들의 아비투스가 형성되고 이를 바탕으로 위계 구조가 구축된다. 따라서 아비투스와 위계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장이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

장은 행위가 발생하는 곳이며 이것은 물리적 공간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공간이다. 사회적 공간은 배타적인 사회적 위치들이 상호 관계적으로 위치를 점유하는 공간이다.³⁷⁾ 사회 안에서 장은 특정 문화적 가치에 의미를 부여하고 경쟁하는 행위자들을 통해 만들어지며, 행위자 간의 관계에 따라 장이 규정된다.³⁸⁾ 아비투스와 장, 자본의 결합을 통해 행위와 실천이 만들어진다.³⁹⁾

우선 소설 교육의 다양한 소통과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공간을 소설 교육의 장이라고 설정할 수 있다. 소설 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영역들이 겹치는 사회적 관계망이며, 학습자를 비롯한 소설 교육 주체들의 아비투스가 형성되는 공간이다.

이 연구에서는 논의를 구체화하기 위해 소설 교육의 장이라는 총체적 장 차원이 아닌 이 장을 구성하는 하위 영역들을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소설 교육의 장에서 학습자를 중심으로 무수한 영역들이 교차한다. 그중 학습자의 아비투스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한 네 개 영역을 초점화하였는데, 첫 번째 영역은 가정의 영역이다. 가정은 부모

36) 양은아, 앞의 글

37) Pierre Bourdieu, *Meditations pascaliennes*, 김웅권 역(2001), 『파스칼적 명상』, 동문선

38) 정선기, 앞의 글

39) Pierre Bourdieu, *Distinction*, 최종철 역(2006), 『구별짓기』, 새물결

와 형제자매 등의 가족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긴밀한 공동체로, 학습자의 가치관 형성이나 성장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다.⁴⁰⁾ 가정의 영역은 가장 사적인 영역이면서, 가정의 상황이나 학습자의 성향에 따라 가장 신뢰도가 높은 영역이 될 수도 낮은 영역이 될 수도 있다. 이 영역은 소셜 교육에 대한 아비투스 뿐 아니라 학습자의 삶 전반에 관계한다.

그 다음으로 설정할 수 있는 영역은 학교, 즉 교육의 영역이다. 교육의 영역에는 교사 및 선후배 동료 학생들이 속하게 되는데, 학습자가 이러한 구성원들과 함께 문학 이론이나 정전과 같은 작품에 대한 사회적인 가치를 공유하고 학습하는 공간이다. 여기서는 문학 능력 차원에서 공동체 구성원들 상호주관적으로 구성되는 계층구조 외에도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계층구조가 나타나게 되는데,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그것이다. 교사는 문학교육을 진행하는 역할로,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학습자보다 상위의 문학 능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된다. 한국 사회에서 교육의 영역은 대개 순수한 학습과 상호 소통의 공간이라기보다는 지배적 헤게모니의 재생산의 장이 되는 경우가 많다.

세 번째 영역은 온라인 영역이다. SNS를 통한 네트워크로 확장된 인간 관계에서부터 각종 웹사이트의 게시판이나 블로그, 유튜브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와 관계를 맺는 영역까지 포괄하는 온라인 관계망을 의미한다. 이 영역은 비교적 기존의 지배적 문화의 헤게모니에서 자유로우며, SNS 처럼 실명을 드러내는 소통도 가능하지만, 익명이나 닉네임을 통해 본인의 개인정보가 가려진 상태로 소통을 하는 공간이기도 하여 소통 주체들이 상대적으로 동등한 위상을 가지며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다. 또한 근래에 이 영역은 게시판 연재 소설이나 웹소설처럼 오프라인의 문학과는 구별되는 문학 창작과 소비의 공간이 되었다.

네 번째 영역은 또래 문화의 영역이다. 이것은 학교 교육의 현장과 가족 이외의 오프라인 인간관계를 포괄하는 영역으로 주로 또래 친구간의

40) 부르디외도 교육의 영역을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으로 분류하여 각각을 중요한 문화자본으로 간주했으며, 이 연구에서도 이를 바탕으로 교육의 영역과 가정의 영역을 구별하였다.

인간관계로 구성된다. 학교에서 형성되는 공적인 교육의 장과는 구별되는 사적인 영역이며, 또래문화는 강력한 동질성을 기반으로 또래가 아닌 집단에 대하여 강하게 배타적인 경계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지만, 동시에 그 안에서 서로에 대한 구별짓기가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관계다. 또한 사교육의 영역도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다. 사교육은 학교교육처럼 지배적 문화의 헤게모니를 재생산하는 측면이 있으나 동시에 이를 부정하는 측면도 갖고 있는 특수한 공간이다. 사교육은 공교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비자중심적인 경향을 많이 띄며, 사교육의 교사들은 대개 학교의 교사들보다 학습자들에게 격의 없이 친밀한 소통을 하게 되어, 학교의 교사들처럼 전문가의 위상을 갖기 보다는 전문가와 동료의 중간적 위상을 갖게 된다. 그나마 가지는 전문가적 위상도 시험 성적을 올리기 위한 도구적 의미로 학습자에게 인식되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문학소통을 통해 지배적 헤게모니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보다는 전문성을 띤 동료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교사 뿐 아니라 사교육을 통해 만난 친구들도 이 영역에서의 소통 대상이 된다.

이러한 영역들 안에서 수많은 주체들과 소통을 하면서 학습자는 자신과 타인의 문학적 능력을 가늠하고 그 장 안에서 자신과 타인의 위상을 설정한다. 장 안에서 주체의 위상은 자원의 양과 분포에 따라 설정된다. 이 연구에서는 소설 교육의 장에서 이러한 주체의 위상을 결정하는 요소를 ‘문학 능력’으로 설정했으며, 이것은 객관적인 수치로 나타나는 가시적 역량이 아니라 구성원들 사이에 상호주관적으로 인식되는 역량이다. 그리고 이 문학 능력의 위상에 관여하는 자원을 지식 자원, 심리적 자원, 사회적 자원의 세 가지로 구체화하였다.

부르디외는 사회적 계급 구성에 관여하는 자본으로 경제 자본, 문화 자본, 사회관계 자본의 세 가지를 들었다.⁴¹⁾ 부르디외의 자본 개념은 물질적 하부구조를 전제하는 사회학적 개념이기에, 이것을 이 논문의 논

41) Bourdieu, P(1986), *The Forms of Capital,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 edited by John G. Richardson New York : Greenwood Press

의에 그대로 차용하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여기서는 주체로서의 학습자에 의해 구성된 객관적 개념이고, 취향이 형성되는 인식적 토대 및 기반이 된다는 의미로, ‘자원’이라는 용어로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부르디외의 경제 자본 개념은 앞서 논의했던 한국 사회의 특수성과 과소비사회적 특성을 바탕으로, 경제적 지위의 표현으로서의 문학 취향이 아니라, 문학 역량에 대한 상호주관적 인식을 바탕으로 구별되는 문학적 지위의 표현으로서의 취향을 살펴보는 것이 이 연구의 초점이므로, 경제자본과의 직접적인 연관관계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대신 이 경제자본과 유사한 맥락의 개념으로 지식 자원을 설정하였는데, 문학에 대한 지식 자원은 학습자 간 역량 차이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학교육의 장 안에서 경제자본과 유사한 기능을 한다고 판단하였다. 여기에 학습자들의 상호주관적이고 개인적인 문학능력에 대한 판단을 반영하기 위해 심리적 자원이라는 개념을 설정하고, 사회적 소통을 통한 계층 구성을 반영하기 위해 사회적 자원을 설정하였다. 이렇게 하여 소설 교육의 장에서의 문학 능력은 다음 세 가지 자원의 작용으로 구조화하였다.

첫 번째는 지식 자원이다. 이것은 명제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소설 교육의 장 안에서 다른 요소들에 비해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가능한 지식 정보적 요소들이다. 이것은 주체의 문학능력을 가늠하는 근거로 사용된다. 교과로서 이수한 전문 교육, 작품과 문학이론에 대한 배경지식, 등단 등의 경로를 통해 기성 문학계로 진입하면서 생성되는 전문가로서의 권위, 학교 교육으로 얻은 문학에 대한 지식, 다양하고 많은 독서 경험 등을 지식 자원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해석공동체 안에서 공적인 지식으로 검증되고 인정받은 지식 및 정보들로, 상호주관적인 해석공동체의 구성요소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객관성을 인정받은 요소들이며, 문학적 소통과 판단 과정에서 보편성을 가진 근거로 받아들여진다. 지식 자원을 많이 확보할수록 작품에 대해 분석적이며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해석을 지향하게 되고 상위의 문학능력을 가진 것으

로 인식된다.

동시에 이러한 지식 자원에 대해서는 확일적인 해석을 강요하여 개인의 순수한 향유와 해석을 가려서 문학적 가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요소로 간주하는 저항이 존재하며, 이러한 대중의 이중적 태도는 사회계급 안에서 경제 자본에 대해 갖는 태도와 유사하다. 이러한 대중의 태도와 문학적 능력 위계의 객관적 척도가 된다는 점에서 소설 교육의 장에서 지식 자원은 사회적 계급 구성에서 경제 자본과 유사한 기능 및 지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두 번째는 심리적 자원이다. 이는 앞서 살펴보았던 과소비사회의 소비 성향을 자원으로 구체화한 항목으로, 작품에 대한 기존의 학문이나 교육적 가치에 기반한 선택이 아닌 개인 맥락의 선택을 의미한다. 이는 장속의 구성원 스스로가 자신의 취향과 기호에 대해 얼마나 뚜렷하고 주체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에 관련된 자원이다. 문학과 관련된 개인적 신념이나 낙관성, 자기에와 관련된 부분으로, 지능 및 사고력과 같은 선천적인 재능, 자기 정체성, 자존감 등 학습자가 가진 심리적 상황과 관련되며, 가정 및 성장환경과도 밀접하게 관련된다. 이러한 심리적 자원은 자신의 문학 능력에 대한 확신이나 지나친 집착, 타인과의 문학적 소통에서 사고의 유연성, 지식 자원에 대한 태도 등에 영향을 준다. 나의 상황과 역량에 대하여 얼마나 이해하고 자각하고 있는가, 나의 취향과 판단에 대하여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그 자각과 확신의 근거나 방향이 무엇인가에 따라 문학에 대한 태도와 문학적 향유의 방향이 달라진다.

세 번째는 사회적 자원이다. 이는 소설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소통에 얼마나 활발하게 참여하느냐에 관련된 자원이다. 독자로서의 학습자는 교육 현장에서도 작품과 관련한 소통을 하지만, 수업으로 주어지는 소통의 비자발적 특성이나 교사와 학생 간의 지적 불균형과 같은 장애요소들이 있다. 그에 비해 교육 이외의 가족이나 또래 문화 영역에서 학습자가 스스로 주변인들을 대상으로 시도하는 소통은 학습자의 아비투스 형성에

보다 실질적인 영향을 준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얼마나 깊은 소통을 할 수 있느냐를 사회적 자원이라는 개념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소설 교육의 장은 가정의 장, 교육의 장, 온라인의 장, 또래문화의 장이 교차하는 사회적 관계망이며, 이 안에서 학습자는 확보한 지식 자원과 심리적 자원, 사회적 자원의 양과 분포에 따라 문학 능력과 관련한 아비투스를 형성한다.

3) 장 안에서 구성되는 위계의 양상

앞서 소설 교육의 장에서 상호 관계하는 자원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상호 관계 속에서 문학 능력에 따른 위계가 구성된다. 상위집단과 중간집단, 하위집단이 그것이다. 이 집단 구별은 학습자의 문학 문화와 집단에 대한 총체적인 인식에 기반하기에, 객관적 위계가 아니라 상호주관적 위계이며, 학습자 스스로 인식하는 문학적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위치이다.

상위집단은 소설 교육의 장에서 가장 상위에 속하는 집단으로, 장 속의 구성원들에게 문학능력을 상호주관적으로 인정받는 집단이다. 여기에서 다시 각 자원의 상대적 분포 양상에 따라 세 가지 유형의 상위 집단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지식 자원이 우세한 상위집단에는 문학 연구자 집단이나 소설가 비평가 등의 전문 창작 집단, 교사와 같은 교육 집단 등이 속한다. 부모의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학습자에 비해 문학 관련 지식이나 소양이 높을 경우 상위집단으로 인식될 수 있다. 지식 자원이 높은 상위집단의 경우 작품에 대해 이론적 접근이나 해석을 시도하며 자신의 감상보다는 작품이 가지는 구조적 요소에 바탕한 객관적 가치평가에 초점을 맞춘다.

두 번째로 심리적 자원이 우세한 경우인데, 자신만의 문학관에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방식으로 문학을 향유하는 문학 애호가 집단을 들 수 있다. 학습자들 중에서도 스스로 독서에 흥미를 가지고 동료 학습자들보다 월등히 독서량이 많은 학습자들이 있다. 보통 장르문학에 심취하거나 학

교 교육에서 배우는 작품들과는 다른 작품들을 자기 스스로 찾아서 읽기 때문에 지식 자원에 관심을 두지 않거나 반감을 가지는 경우가 많으며 기성의 문학계나 문학교육의 권위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 심리적 자원이 높은 상위집단의 경우, 독서에 대한 부담감을 버리고 작품을 작품 자체로 즐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독서에는 정답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자신만의 감상을 형성하고 정리하는 데에 초점을 둔다.

세 번째로 사회적 자원이 우세한 경우는 작품을 읽고 상호작용에 적극적인 경우이다. 작품을 바탕으로 한 독서 모임이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거나 온라인 소통에 적극적인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사회적 인간관계가 활발한 외향적인 성격이거나, 동아리 모임이 활성화 되어있는 학교 환경, 온라인 접속이 용이한 인프라 등이 이에 관계된다. 사회적 자원이 우세한 경우, 자신의 감상보다 작품을 바탕으로 한 소통을 통해 의견을 나눈다는 행위 자체에 관심을 두며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감상을 살피는 데에 초점을 둔다.

각각의 자원은 항상 비대칭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위계적 위치 결정에 관여하며 세 가지가 균형 있게 확보되는 집단이 소설 교육의 장 안에서 상위집단으로 인식된다.

부르디외는 중간 계급의 문화는 존재하지 않으며, 지배계급의 문화에 대한 경멸이나 동경으로 만들어진 왜곡된 계급으로 규정하였다.⁴²⁾ 지배계급에 대한 상승의지를 가지고 지배계급의 가치와 행동을 모방하는 것으로 계급 정체성이 구성되며, 프티 부르주아(petit-bourgeois)라는 용어로 구체화 된다.

프티 부르주아의 유형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⁴³⁾, 첫 번째는 쇠퇴하는 프티 부르주아로, 비교적 고령에 학력자본이 적고 과거 지향적 경향을 가진다. 자신의 소박하고 진지하며 정직한 생활 덕분에 현재의 계급적

42) Pierre Bourdieu, *Distinction*, 최종철 역(2006), 『구별짓기』, 새물결

43) 홍성민(2012), 『취향의 정치학』, 현암사, 106쪽.

위상을 획득했다고 여기며, 방임적 자유나 진보적 윤리관을 경계하면서 보수적 가치관을 갖는다.

두 번째 유형은 실행 프티 부르주아인데, 이들은 교육을 통해 계급상승을 경험한 유형으로 학력에 따른 차등 대우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온건한 개량주의적 경향을 갖는다. 학력의 차이를 곧 계급의 위계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관리규칙을 준수한다. 신분상승을 위한 교육 및 자격제도의 공정성에 엄격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정확성, 선의, 헌신 등의 경향을 갖는다.

세 번째 유형은 신흥 프티부르주아이며, 부르주아와 민중계급의 혼합된 형태이다. 학력자본이 적으며, 전통문화보다는 대체문화나 도전적인 문화를 선호한다. 계급에 대한 상승지향의 욕구가 희귀한 작품을 선호하는 문화적 허풍으로 표현되기도 하며, 주류 문화에 대한 대항문화를 시도하기도 하고, 전위적인 경향을 띤다.

소설 교육의 장에서는 경제 자본을 전제하지 않았고, 쇠퇴하는 프티 부르주아 계급 자체가 오랜 경험을 통해 자신의 지위와 가치관을 긍정하는 계급 정체성이기에, 학습자의 문학 역량에 적용하기는 어려운 개념으로 판단하였다. 여기에서는 그 외에 실행 프티 부르주아에 해당하는 집단을 교육적 중간집단, 신흥 프티 부르주아에 해당하는 집단을 직관적 중간집단으로 구체화 하였다. 교육적 중간집단은 지식 자원 인식이 높으면서 동시에 심리적 자원 인식이 낮은 집단으로, 학습자 상황에서 학교 교육으로 대표되는 문학적 체계모니를 형성하는 지식 자원의 권위를 인정하며, 학교의 교육이나 지식 학습을 통해 문학 능력이 향상된다는 것을 경험했거나 향상될 것을 신뢰한다. 지식의 맥락에서 기존 문학계의 규칙이나 이론들을 존중한다. 심리적 자원이 낮기 때문에 자신의 문학적 능력에 대한 확신이 열고, 작품을 읽고 고유한 주관적 감상을 구성하기 보다는 이론에 기반한 객관적 설명을 지향한다.

반면 직관적 중간집단은 지식 자원이 낮으며 심리적 자원이 높아, 본인의 주관적인 문학관에 확신을 갖고 학교 교육이나 기존 문학계에 대한

대안적 장르나 경향에 관심을 보인다. 기성 문학계나 문학교육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표출하며, 자신만의 문학관을 추구해야한다는 강한 신념을 가진다. 이는 심리적 자원이 우세한 상위집단과 유사한 형태이나, 상위집단이 확고한 문학관을 바탕으로 주체적인 독서를 하는 반면에, 직관적 중간집단은 자신만의 문학관을 지향하나 지식 자원이나 심리적 자원, 사회적 자원이 상위집단에 비해 부족하여 가치관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못하는 집단이다. 따라서 독서에 명확한 지향점을 찾기 어렵고, 사회적 소통을 통해 얻은 다른 사람의 감상에 자신의 감상을 덧씌우는 등의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여기에 더하여 지식 자원과 심리적 자원이 부족하고 사회적 자원이 우세한 경우를 사회적 중간집단으로 설정한다. 이 집단의 경우 문학에 대한 지식 자원이 부족하고 자신의 문학 능력에 대한 심리적 확신도 부족하기 때문에 문학에 대한 본인의 주관이 서지 못한 상태이나, 사회적 관계 안에서 관계를 위한 수단으로 문학을 소비하는 양상을 보인다. 문학을 좋아하지도, 문학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지만 사회적 소통 속에 참여하기 위한 수단으로 문학에 대한 담론에 참여한다.

부르디외가 규정한 세 번째 계급은 민중계급인데, 소설 교육의 장에서는 경제 자본에 기반한 계급 논의를 직접적으로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하위 집단이라는 용어로 바꾸어 사용하였다.

부르디외가 이야기하는 민중 계급은 문화적인 피지배계급이며, 필요취향과 순응의 원리에 따라 그 아비투스¹가 결정된다. 필요취향은 노동자가 경제적 상황에 종속되어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경제적 조건이 호전된 후에도 여전히 과거의 경제적 판단기준을 버리지 못하는 점에서 이 경향성이 드러난다. 민중계급은 생활이 기준이 되어 취미판단을 한다. 그리고 계급적 정체성이 드러나는 취미코드로 형성하는 동질감이 상당히 크며, 이 취향에 대해 대단히 엄격하고 폐쇄적인 성향을 보인다. 또한 지배 원리에 순응하여 진보주의적 시도를 거부하고 보수적인 성향을 갖는다.

민중 계급은 사치재를 선망하면서도 구입할 수 없는 좌절감을 대체제를 통해 해소하는 소비형태를 보인다. 실질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한계를 문화상품을 통해 해소하는데, 대중적 엔터테인먼트나 스포츠에 열광하는 것이 그 사례이다. 스타의 열광적인 팬이 된다는 것은 문화적 박탈을 보상하는 허구적 참여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민중계급은 문화적으로 소외되었지만 스스로 그 소외를 깨닫지 못한다.

소설 교육의 장에서의 하위집단 역시 주체적인 향유에서 소외된 집단이다. 그들은 지식 자원이 부족하여 작품을 해석할 능력이 없으며, 동시에 심리적 자원도 부족하여 작품에 대한 흥미나 가치부여도 되지 않는다. 하위집단의 학습자는 그 소외를 극복하지 못하고 기계적으로 상위집단의 논리를 모방하거나, 아예 관심을 닫고 다른 매체의 향유를 우선한다.

3. 학습자 자기인식의 특수성

지금까지 논의한 소설 교육의 장과 그 안에서 확보한 자원의 양과 분포에 따라 학습자의 아비투스¹⁾는 구성된다. 이 구성 과정에서 아비투스 개념에 기반하여 학습자의 자기인식을 이야기할 때 고려해야할 또다른 요소가 있는데, 소설 교육의 장은 공교육과 입시라는 현실적인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원을 세 가지로 설정했으나, 그 자원들이 완전히 동등하게 작용하지는 못한다.

소설 교육의 장에 작용하는 세 가지 자원 중 지식 자원이 갖는 영향력이 가장 크며, 문학능력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학습자들에게 인식된다. 지식 자원은 학교 교육을 주도하는 교사와 교육과정을 비롯한 기성 문학계의 문화 권력을 바탕으로 작용하며, 이것이 소설 교육의 장 안에서 문학 향유에 대한 순수한 참여자로서의 문학 능력 뿐 아니라 사회적 성취에 대한 인정과도 엮여 있기 때문이다. 지식 자원을 확보하고

이와 관련한 문학 능력을 획득하면 공교육 제도 내에서 공적으로 인정을 받을 뿐 아니라 대학 입시와 직업 선택에 있어서도 우월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지식 자원은 소셜 교육의 장을 넘어선 사회적 권력과 이어져 있으며, 이 때문에 다른 자원에 비해 비대칭적인 영향력을 갖는다.

심리적 자원이나 사회적 자원의 경우에는 직접 사회 계층적 표지와 연결된다는가 하는 가시적인 효용이 거의 없다. 심리적 자원은 자신의 행복감이나 만족감, 지향성과 관계된 주관적 효용을 가지며, 사회적 자원은 소통이 이루어지는 특정 집단 안에서 문학 능력을 인정받을 수는 있어도 제도적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다. 물론 심리적 자원이나 사회적 자원이 충분히 많이 확보될 경우 현재의 미디어환경 속에서는 기성 문학계의 전문 작가나 비평가가 아니더라도 SNS나 유튜브와 같은 비교적 객관화의 요구가 적은 온라인 환경을 통해 문학에 대한 본인의 주관과 사회적 소통을 콘텐츠로 활용하여 대중적 인지도를 쌓거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이것이 소셜 교육의 장을 넘어선 사회적 계급의 상승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 문학능력 외에도 콘텐츠 구성 능력 등의 다양한 능력이 요구되며 제도권 내에서 확보된 절차에 따라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지위에 비해 불확정적인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심리적 자원이나 사회적 자원이 창출할 수 있는 계급이동의 효용은 지식 자원에 비해 불안정하다.

따라서 지식 자원과 다른 두 자원은 비대칭적 구도를 갖게 되며, 지식 자원을 확보하고 그에 따른 능력을 획득한 학습자나 전문가들은 소셜 교육의 장 안에서 문학능력의 우수함을 인정받아 상위 집단에 위치하게 된다. 또한 그러한 전문가들이 심리적 자원과 사회적 자원까지 갖출 경우에는 보다 더 영향력 있는 상위집단으로 인정받는다.

그러나 그러한 지식 자원의 집단 재생산적 특성에 대한 거부감이나 앞서 논의했던 과소비사회의 개인주의적 주관적 경향 등을 바탕으로 심리적 자원이나 사회적 자원 역시 학습자들 사이에서 문학능력의 한 축을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우월한 문학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문학능력과 주관적으로 학습자 자신이 좋아하고 능동적으로 선택하는 문학능력의 두 가지 맥락에서 아비투스(a)가 이중적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사회적으로 공인받은 지식 자원적인 문학 능력을 지향하느냐, 또래 집단 안에서 인정받는 자신만의 개성있는 문학 능력을 지향하느냐는 선택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교육의 장에서는 전자를 지향하고 또래 문화 영역의 장에서는 후자를 지향하는 방식으로 양자 사이를 단절 및 구별하여 양립시키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소셜 교육의 장 안에서 학습자 아비투스(a)가 가지는 특수성은 3장에서 구체적인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이어서 논의하겠다.

Ⅲ. 실험의 설계 및 요인 분석

이 장에서는 학습자 대상 설문지를 바탕으로 학습자가 인식하고 있는 소셜 교육의 장의 형태와 그 안에서 자원의 분포를 통해 구조화되는 위계, 그리고 그에 따라 나타나는 학습자의 취향 인식을 살펴보기 위한 실험 설계와 시행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조사 데이터를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학습자의 독자로서의 정체성이나 자기 인식과 같은 태도와 관련된 부분은 학습자가 인식하는 장과 자원의 양상에 기반하여 형성된다는 것이 이 연구의 가설이기 때문에, 설문은 소셜 교육의 장이 객관적으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보다는 소셜 교육의 장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을 학습자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에 초점을 두어 설계하였다. 설문 응답 분석을 통해 그러한 상호주관적 인식 안에서 학습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1. 분석의 과정

1) 설문 문항 설계 및 자료 수집

이 연구에서 학습자의 아비투스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선택한 연구 방법은 설문지 분석이다. 설문지는 학습자의 문학경험 양상과 문학적 가치관에 대해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들은 앞서 논의한 아비투스를 둘러싼 장, 자원, 취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질문들로 설계되어 있다. 구체적인 문항 내용과 유형은 아래와 같다.

문항 번호		설문 내용	설문 유형
I 부	1~3	기본 정보(학교명, 성별, 학년, 학번)	단답형
	4	독서 선호도	선택형
	4-1	독서 선호도 이유	서술형
	5	도서 장르 선호도	선택형
	6	도서를 접하는 경로	선택형
	7	독서량 자평	선택형
	8	주변인 독서 선호도 평가	선택형
	9	주변인 소통 정도	선택형
	9-1, 9-2	독서 소통 신뢰도	서술형
	9-3, 9-4	도서 추천 이유 및 반응	서술형
	10	독서 소통 경로	선택형
II 부	1	소설 독서 선호도	선택형
	2	독자 수준 자평	선택형
	3	소설 독서량	단답형
	4	소설 장르 선호도	선택형
	5	선호 작가	서술형
	6	선호 작품	서술형
	7	불호 작가 및 작품	서술형
	8, 8-1	대중적 취향에 대한 평가	서술형
	9	소설 구성요소 중요도	서술형
	10	소설 향유 이유	서술형
	11	좋은 소설의 요건	서술형

I 부는 독서 일반에 대한 문항, II 부는 소설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독서의 큰 맥락 안에서 독서 취향에 대해 응답하다가 개별 장르로서의 소설 독서에 대해 응답하도록 설문 순서를 설계하였으며, I 부 5번의 도서 장르 중에 소설 장르 문항을 포함시켜, 자연스럽게 독서 일반의 맥락 안에서 소설 독서에 대해 조망하도록 유도하였다. I 부 5번 문항은 그에 대한 응답과 II 부의 소설 독서 및 하위장르 선호도 문항의 답변 간 비교를 통해 학습자 반응의 신뢰도나 소설 장르 인식의 특수성을 알아보기 위한 의도도 담고 있다.

부르디외는 아비투스를 포착하기 위해 주소, 거주연수, 경제적 수입, 본인 및 가족의 최종학력 및 직업 등 경제적 사회적 기반에 대한 다양한 요소를 조사 항목에 포함시켰으나, 이 연구에서는 경제자원의 영향을 배제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으며, 환경과 공동체에 대한 상호주관적 인식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I 부 1~3번의 기본 정보 항목 외에는 모두 응답자 개인의 관점에서 인식하는 대상에 대해 응답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를 위해 객관적 수준이 아니라 학습자가 판단하는 양상을 묻는 문항에는 ‘본인이 생각하기에’라는 전제조건을 달았으며, 객관성이나 보편성에 대한 인식을 보기 위한 문항에는 해당 전제조건을 달지 않았다.

또한 간단한 사실정보 수집으로는 이 연구에서 전제하는 상호주관적으로 구성되는 장과 자원을 특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변인과 환경적 인프라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묻는 문항들을 포함하였다. 취향에 장르별 선호도를 묻는 선택형 문항과 서술형 문항들을 배치하여 통계적 상관성 분석과 동시에 취향 코드에 대한 질적 분석을 병행하였다.

해당 문항들은 아래와 같이 각각 장/자원/취향과 연계하였다.

요인	하위 요인	관련 문항	연계 내용
장 인식	가정의 장	I 부 6번	가족의 책 이용 빈도
		I 부 8번	부모, 형제자매의 독서 선호도
	교육의 장	I 부 6번	도서관 이용 빈도
		I 부 8번	교사의 독서 선호도
	온라인의 장	I 부 6번	인터넷 도서 구입, 웹 연재물 항목에 대한 이용 빈도
		I 부 10번	온라인 소통 참여도
	또래 문화의 장	I 부 6번	지인의 책 이용 빈도
		I 부 8번	또래친구의 독서 선호도
		I 부 10번	오프라인 모임 소통 참여도
자원 인식	지식 자원	II 부 3번	독서량

	심리적 자원	I 부 4번, 8번	타인의 심리적 자원에 대한 상대적 인식(자신의 심리적 자원과 상대적 차이)
	사회적 자원	I 부 9번	독서 소통 여부
		I 부 9-4번	타인과의 소통에 대한 인식
		I 부 10번	기타 소통 참여도
취향 인식	선호 장르	I 부 5번	도서 일반 선호장르
		II 부 4번	소설 선호 장르
	선호 작가	II 부 5번	선호 작가 및 이유
	선호 작품	II 부 6번	선호 작품 및 이유
	불호 작가 및 작품	II 부 7번	불호 작가, 작품 및 이유
	타인의 취향에 대한 태도	II 부 8번	대중적 인기 작품에 대한 인식 및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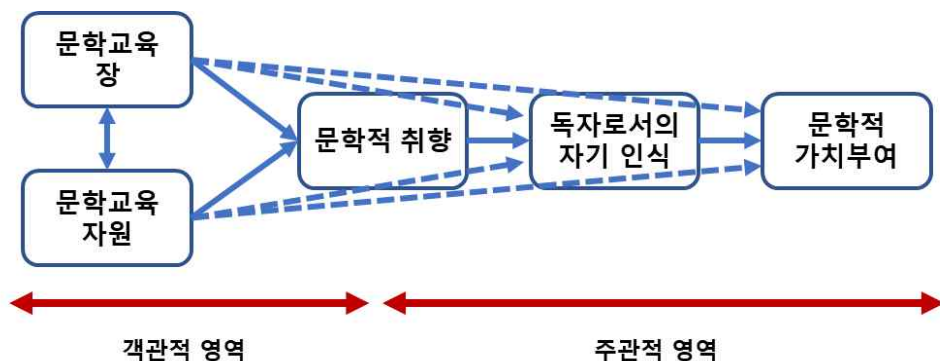
조사는 서울 소재 4개 고등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수행평가나 과제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강요하지 않고 학습자에게 조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한 후 자발적으로 조사에 참여 의사를 밝힌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하였기에 참여자를 양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교사의 안내를 통한 서면 진행을 기본으로 하였으며, 접근성을 높여 참여자 확보를 위하여 희망자에게 URL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설문 플랫폼(Google Form)을 통한 조사를 병행하였다.⁴⁴⁾ 최종적으로 수집된 자료는 모두 234건이며, 조사 대상에 대한 기본 정보는 아래 표와 같다.

44) 구글폼을 통한 조사의 경우 교사의 안내를 통해 URL을 학습자들에게 배포하였고, 접속 후 학번을 입력하여 본인확인하는 절차를 두어 응답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구글폼을 통해 수집된 사례는 총 21건이며, 그 외 모든 응답 결과는 교사가 직접 인쇄물로 설문지를 배포하고 응답 결과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연번	학교명	소재 지역	성별	인원수	백분율	성비	자료 수집 방법
1	A고교	서울시 중구	여	131명	56.0%	56.0%	오프라인 131명
2	B고교	서울시 강남구	남	51명	21.8%	44.0%	오프라인 51명
3	C고교	서울시 양천구	남	40명	17.1%		오프라인 31명 온라인 9명
4	D고교	서울시 서초구	남	12명	5.1%		온라인 12명
합계				234명			

2) 분석의 방법

수집된 설문 문항들을 바탕으로 통계분석을 시행하였으며, 분석의 목표는 문학적 가치부여에 대한 구조 방정식 모델을 구현하는 것이다. 2장의 이론 논의를 통해 구성한 문학교육에서 학습자의 인식 모델 가설은 아래와 같다.



문학교육의 장과 자원에 대한 객관성 인식 안에서 독자로서의 학습자는 문학적 취향을 구성하고, 이러한 취향을 통해 학습자의 주관적 태도 영역인 독자로서의 자기 인식과 문학적 가치부여가 구성된다. 객관적 영역에

대한 인식이 아비투스로서 문학적 취향을 구성하고, 이것이 주관적 영역인 문학적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이며, 각 요소 간 영향 관계를 화살표로 표시하였다.

이러한 가설을 통계분석을 통해 검증하기 위해서는 위해 먼저 수집된 자료들의 기술통계를 작성하고, 각 요소 안에 포함된 하위요소들 간, 그리고 상위요소와 하위요소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상관관계 분석에는 각 변수의 성격에 따라 카이제곱 검정, 일원배치 분산분석(One way ANOVA(Analysis of variaces)), 상관분석을 활용하였으며, 통계 분석 프로그램 SPSS를 활용하여 각 문항에 대한 답변들을 바탕으로 독자로서의 자의식에 영향을 주는 장 인식, 자원인식, 취향 인식의 변수들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판별하는 분석을 수행하였다.

2. 자료의 분석

여기에서는 먼저 조사 결과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통계 산출 결과와 설문 후반부 서술형 답변에 대한 코딩 과정을 기술하였다. 항목 간 유의도 검정 및 결과 해석은 다음 장에서 다룬다.

1) 조사 결과 기술통계 및 항목별 유의도 분석 결과

유의도 분석은 세 가지 맥락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첫 번째는 문학교육의 장과 자원에 해당하는 요소가 학습자의 문학적 취향과 어떠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 그리고 두 번째는 장/자원/취향의 요소들이 상위 요인인 ‘독자로서의 자기 인식’ 요인과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는지에 대한 분석, 세 번째는 각 요소들이 최종적으로 학습자의 ‘문학적 가치부여’ 요인과 어떠한 연관성을 갖는지에 대한 분석이다. 이 장에서는

각 항목별 유의도 분석 결과를 정리할 것이며, 해당 결과에 대한 해석은 다음 장에서 진행하겠다.

(1) 문학적 취향 관련 유의도 분석 결과

문학적 취향에 대한 지표로 설문지에서 설계된 문항은 아래와 같다.

문항 번호	문항 내용
1부 5번	도서 일반에 대한 선호
2부 4번	소설 장르에 대한 선호
2부 5번	선호 작가 및 이유 응답
2부 6번	선호 작품 및 이유 응답
2부 7번	불호 작가 및 작품 응답
2부 8번	대중적 인기 작품에 대한 인식 및 평가 응답

해당 문항의 응답 내용들에 대하여 문학교육의 장과 자원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을 나타내는 문항의 응답 결과들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장 인식에 따른 취향 인식1(도서 일반에 대한 선호)

- 가정의 장

먼저 가정의 장에 대한 인식에 대한 지표는 1부 6번, 8번(부모/형제자매)이며, 이에 대하여 1부 5번 ‘도서 일반에 대한 선호도’ 응답 결과의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문항	가족 도서 이용 빈도		부모의 독서 선호도		형제자매의 독서 선호도	
	F값	유의확률	F값	유의확률	F값	유의확률
시사	1.421	0.217(p.>.05)	2.652	0.034(p.<.05)	0.746	0.590(p.>.05)
취미	3.467	0.005(p.<.05)	0.938	0.443(p.>.05)	1.853	0.104(p.>.05)
과학	2.098	0.067(p.>.05)	0.175	0.951(p.>.05)	1.091	0.367(p.>.05)
기술	3.679	0.003(p.<.05)	0.987	0.415(p.>.05)	2.800	0.018(p.<.05)
여행	1.984	0.082(p.>.05)	1.111	0.352(p.>.05)	2.569	0.028(p.<.05)
수필	5.473	0.000(p.<.05)	0.520	0.721(p.>.05)	1.516	0.186(p.>.05)
소설	1.241	0.291(p.>.05)	0.829	0.508(p.>.05)	0.904	0.480(p.>.05)

시	3.597	0.004(p.<.05)	4.205	0.003(p.<.05)	1.073	0.376(p.>.05)
역사	3.798	0.003(p.<.05)	0.794	0.530(p.>.05)	1.137	0.342(p.>.05)
예술	2.137	0.062(p.>.05)	1.264	0.285(p.>.05)	0.089	0.994(p.>.05)
IT	4.078	0.001(p.<.05)	2.669	0.033(p.<.05)	3.541	0.004(p.<.05)
자기 개발	2.489	0.032(p.<.05)	0.664	0.618(p.>.05)	3.471	0.005(p.<.05)
수험	2.302	0.046(p.<.05)	2.491	0.044(p.<.05)	2.725	0.021(p.<.05)
경제	4.049	0.002(p.<.05)	5.168	0.001(p.<.05)	1.706	0.135(p.>.05)
인문	2.325	0.044(p.<.05)	2.483	0.045(p.<.05)	0.209	0.958(p.>.05)
사회 과학	1.409	0.222(p.>.05)	1.601	0.175(p.>.05)	0.271	0.928(p.>.05)

1부 6번 가족의 책에 대한 이용 비율에 대하여, 취미, 기술, 수필, 시, 역사, 예술, IT, 자기개발, 수험, 경제, 인문 분야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 교육의 장

교육의 장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은 I 부 6번 도서관 이용 빈도, I 부 8번 교사의 독서 선호도가 연관 문항이며, 해당 문항에 대한 일원배치 분산 분석(ANOVA)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문항	도서관 이용 빈도		교사 독서 선호도	
	F값	유의확률	F값	유의확률
시사	1.246	0.292(p.>.05)	1.781	0.133(p.>.05)
취미	2.841	0.025(p.<.05)	2.241	0.065(p.>.05)
과학	0.100	0.982(p.>.05)	0.386	0.818(p.>.05)
기술	0.288	0.886(p.>.05)	0.570	0.685(p.>.05)
여행	2.085	0.084(p.>.05)	0.249	0.910(p.>.05)
수필	1.632	0.167(p.>.05)	0.719	0.579(p.>.05)
소설	1.478	0.210(p.>.05)	1.427	0.226(p.>.05)
시	1.416	0.229(p.>.05)	5.567	0.000(p.<.05)

역사	3.789	0.005(p.<.05)	0.444	0.776(p.>.05)
예술	3.428	0.010(p.<.05)	2.594	0.037(p.<.05)
IT	2.231	0.067(p.>.05)	0.762	0.551(p.>.05)
자기 개발	2.074	0.085(p.>.05)	3.210	0.014(p.<.05)
수험	4.513	0.002(p.<.05)	2.161	0.074(p.>.05)
경제	4.664	0.001(p.<.05)	0.379	0.824(p.>.05)
인문	1.195	0.314(p.>.05)	3.448	0.009(p.<.05)
사회 과학	1.280	0.279(p.>.05)	1.601	0.175(p.>.05)

교육의 장에 해당하는 도서관 이용 빈도에 대해서는, 취미, 역사, 예술, 수험, 경제 분야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 온라인의 장

온라인의 장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은 I 부 6번에서 인터넷 도서 이용 빈도와 웹 연재물 이용 빈도, I 부 10번에서 게시판, 블로그, SNS, Youtube를 통한 소통 참여도가 연관 문항이며, 해당 문항에 대한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문항	인터넷 도서 이용 빈도		웹 연재물 이용 빈도		게시판 소통 참여도	
	F값	유의확률	F값	유의확률	F값	유의확률
시사	3.674	0.006(p.<.05)	0.863	0.507(p.>.05)	0.630	0.642(p.>.05)
취미	0.718	0.581(p.>.05)	5.194	0.000(p.<.05)	0.537	0.709(p.>.05)
과학	0.248	0.910(p.>.05)	1.818	0.110(p.>.05)	5.875	0.000(p.<.05)
기술	0.880	0.477(p.>.05)	0.959	0.444(p.>.05)	2.734	0.030(p.<.05)
여행	0.174	0.952(p.>.05)	2.077	0.069(p.>.05)	0.848	0.496(p.>.05)
수필	0.938	0.442(p.>.05)	0.961	0.443(p.>.05)	1.002	0.407(p.>.05)
소설	1.056	0.379(p.>.05)	1.433	0.213(p.>.05)	1.133	0.342(p.>.05)
시	1.372	0.244(p.>.05)	1.664	0.144(p.>.05)	2.240	0.066(p.>.05)
역사	0.268	0.898(p.>.05)	1.227	0.297(p.>.05)	0.582	0.676(p.>.05)
예술	0.518	0.723(p.>.05)	1.344	0.247(p.>.05)	1.448	0.219(p.>.05)
IT	1.394	0.237(p.>.05)	1.475	0.199(p.>.05)	2.894	0.023(p.<.05)
자기 개발	0.504	0.733(p.>.05)	0.544	0.743(p.>.05)	0.272	0.896(p.>.05)
수험	1.032	0.391(p.>.05)	0.689	0.632(p.>.05)	1.658	0.161(p.>.05)

경제	1.569	0.183(p.>.05)	0.461	0.805(p.>.05)	0.253	0.908(p.>.05)
인문	3.576	0.008(p.<.05)	0.766	0.575(p.>.05)	2.602	0.037(p.<.05)
사회 과학	4.116	0.003(p.<.05)	1.200	0.310(p.>.05)	1.313	0.266(p.>.05)

문항	블로그 소통 참여도		SNS 소통 참여도		Youtube 소통 참여도	
	F값	유의확률	F값	유의확률	F값	유의확률
시사	0.268	0.898(p.>.05)	0.401	0.808(p.>.05)	0.817	0.516(p.>.05)
취미	0.939	0.442(p.>.05)	1.442	0.221(p.>.05)	1.409	0.232(p.>.05)
과학	2.735	0.030(p.<.05)	0.949	0.436(p.>.05)	2.196	0.070(p.>.05)
기술	2.029	0.091(p.>.05)	1.263	0.286(p.>.05)	2.355	0.055(p.>.05)
여행	0.834	0.505(p.>.05)	0.658	0.622(p.>.05)	2.712	0.031(p.<.05)
수필	0.694	0.597(p.>.05)	1.775	0.135(p.>.05)	3.673	0.006(p.<.05)
소설	0.730	0.572(p.>.05)	2.040	0.090(p.>.05)	2.750	0.029(p.<.05)
시	0.429	0.787(p.>.05)	2.722	0.030(p.<.05)	1.925	0.107(p.>.05)
역사	0.790	0.533(p.>.05)	0.018	0.999(p.>.05)	0.451	0.771(p.>.05)
예술	0.985	0.417(p.>.05)	3.834	0.005(p.<.05)	1.224	0.301(p.>.05)
IT	1.874	0.116(p.>.05)	2.447	0.047(p.<.05)	1.266	0.284(p.>.05)
자기 개발	2.774	0.028(p.<.05)	1.858	0.119(p.>.05)	0.571	0.684(p.>.05)
수험	2.339	0.056(p.>.05)	2.429	0.049(p.<.05)	0.619	0.649(p.>.05)
경제	1.293	0.274(p.>.05)	4.891	0.001(p.<.05)	0.436	0.783(p.>.05)
인문	1.515	0.199(p.>.05)	0.388	0.817(p.>.05)	0.369	0.831(p.>.05)
사회 과학	2.845	0.025(p.<.05)	1.687	0.154(p.>.05)	0.546	0.702(p.>.05)

- 또래문화의 장

또래문화의 장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은 I 부 6번에서 지인의 도서 이용 빈도, I 부 8번에서 친구의 독서 선호도, I 부 10번에서 오프라인 모임 참여도가 연관 문항이며, 해당 문항에 대한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문항	지인의 책 이용 빈도		친구 독서 선호도		오프라인 독서모임 참여도	
	F값	유의확률	F값	유의확률	F값	유의확률
시사	0.598	0.664(p.>.05)	0.951	0.435(p.>.05)	2.257	0.064(p.>.05)
취미	1.198	0.312(p.>.05)	0.894	0.468(p.>.05)	0.583	0.675(p.>.05)
과학	2.752	0.029(p.<.05)	1.300	0.271(p.>.05)	0.646	0.630(p.>.05)
기술	1.126	0.345(p.>.05)	0.837	0.503(p.>.05)	2.365	0.054(p.>.05)
여행	4.922	0.001(p.<.05)	1.394	0.237(p.>.05)	1.569	0.184(p.>.05)
수필	2.774	0.028(p.<.05)	1.847	0.121(p.>.05)	0.740	0.566(p.>.05)
소설	2.343	0.056(p.>.05)	0.562	0.690(p.>.05)	0.633	0.639(p.>.05)
시	0.948	0.437(p.>.05)	2.621	0.036(p.<.05)	0.365	0.834(p.>.05)
역사	0.892	0.470(p.>.05)	2.034	0.090(p.>.05)	0.707	0.588(p.>.05)
예술	0.500	0.736(p.>.05)	1.721	0.146(p.>.05)	0.803	0.524(p.>.05)
IT	0.895	0.468(p.>.05)	1.112	0.352(p.>.05)	0.917	0.455(p.>.05)
자기 개발	0.763	0.550(p.>.05)	0.616	0.652(p.>.05)	1.246	0.292(p.>.05)
수험	0.288	0.885(p.>.05)	0.457	0.767(p.>.05)	1.249	0.291(p.>.05)
경제	0.429	0.788(p.>.05)	1.097	0.359(p.>.05)	2.556	0.040(p.<.05)
인문	0.394	0.813(p.>.05)	0.701	0.592(p.>.05)	5.646	0.000(p.<.05)
사회 과학	0.321	0.864(p.>.05)	1.052	0.381(p.>.05)	3.346	0.011(p.<.05)

② 장 인식에 따른 취향 인식2(소설장르에 대한 선호)

- 가정의 장

여기에서는 취향의 두 번째 문항인 소설 장르에 대한 선호도를 묻는 II 부 4번에 대하여, 마찬가지로 가정의 장에 대한 학습자 인식과의 유의도를 검정하였다. 가정의 장에 해당하는 요소는 앞선 검정과 마찬가지로 가족 도서 이용 빈도, 부모와 형제자매의 독서 선호도이며, 해당 문항에 대한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문항	가족 도서 이용 빈도		부모의 독서 선호도		형제자매의 독서 선호도	
	F값	유의확률	F값	유의확률	F값	유의확률
SF 소설	2.811	0.017(p.<.05)	1.386	0.240(p.>.05)	0.426	0.830(p.>.05)
역사 소설	1.952	0.087(p.>.05)	0.403	0.806(p.>.05)	1.519	0.185(p.>.05)
연애 소설	1.595	0.162(p.>.05)	2.479	0.045(p.<.05)	0.915	0.472(p.>.05)
청소년 소설	4.058	0.002(p.<.05)	0.601	0.662(p.>.05)	2.105	0.066(p.>.05)
판타지	1.900	0.095(p.>.05)	1.734	0.143(p.>.05)	2.620	0.025(p.<.05)
추리 소설	3.126	0.009(p.<.05)	0.873	0.481(p.>.05)	1.702	0.136(p.>.05)
본격 소설	2.441	0.035(p.<.05)	1.678	0.156(p.>.05)	0.880	0.495(p.>.05)

- 교육의 장

같은 방법으로 교육의 장에 대해서도 소설 장르 선호도와 유의도를 검정하였으며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문항	도서관 이용 빈도		교사 독서 선호도	
	F값	유의확률	F값	유의확률
SF 소설	0.285	0.888(p.>.05)	1.755	0.139(p.>.05)
역사 소설	4.756	0.001(p.<.05)	1.616	0.171(p.>.05)
연애 소설	1.819	0.126(p.>.05)	0.544	0.703(p.>.05)
청소년 소설	1.446	0.220(p.>.05)	0.350	0.844(p.>.05)
판타지	0.929	0.448(p.>.05)	0.922	0.452(p.>.05)
추리 소설	1.235	0.297(p.>.05)	0.761	0.551(p.>.05)
본격 소설	2.817	0.026(p.<.05)	2.736	0.030(p.<.05)

- 온라인의 장

온라인의 장에 대한 소설 장르 선호도와 유의도 검정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문항	인터넷 도서 이용 빈도		웹 연재물 이용 빈도		게시판 소통 참여도	
	F값	유의확률	F값	유의확률	F값	유의확률
SF 소설	0.167	0.955(p.>.05)	2.319	0.044(p.<.05)	0.613	0.654(p.>.05)
역사 소설	0.370	0.830(p.>.05)	1.050	0.389(p.>.05)	0.504	0.733(p.>.05)
연애 소설	0.715	0.583(p.>.05)	4.464	0.001(p.<.05)	0.658	0.622(p.>.05)
청소년 소설	1.502	0.203(p.>.05)	1.927	0.091(p.>.05)	1.120	0.348(p.>.05)
판타지	1.452	0.218(p.>.05)	7.493	0.000(p.<.05)	0.435	0.783(p.>.05)
추리 소설	0.553	0.697(p.>.05)	1.642	0.150(p.>.05)	0.227	0.923(p.>.05)
본격 소설	1.126	0.345(p.>.05)	2.147	0.061(p.>.05)	1.091	0.362(p.>.05)

문항	블로그 소통 참여도		SNS 소통 참여도		Youtube 소통 참여도	
	F값	유의확률	F값	유의확률	F값	유의확률
SF 소설	1.421	0.228(p.>.05)	0.272	0.896(p.>.05)	1.117	0.349(p.>.05)
역사 소설	0.911	0.458(p.>.05)	0.432	0.785(p.>.05)	0.762	0.551(p.>.05)
연애 소설	0.489	0.744(p.>.05)	1.539	0.192(p.>.05)	1.273	0.281(p.>.05)
청소년 소설	0.617	0.651(p.>.05)	1.197	0.313(p.>.05)	1.217	0.304(p.>.05)
판타지	0.391	0.815(p.>.05)	0.940	0.442(p.>.05)	0.441	0.779(p.>.05)
추리 소설	0.480	0.750(p.>.05)	1.613	0.172(p.>.05)	1.381	0.241(p.>.05)
본격 소설	2.323	0.058(p.>.05)	1.990	0.097(p.>.05)	0.934	0.445(p.>.05)

-포래문학의 장

포래문학의 장에 대하여 소설 장르 선호도와 유의도 검정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문항	지인의 책 이용 빈도		친구 독서 선호도		오프라인 독서모임 참여도	
	F값	유의확률	F값	유의확률	F값	유의확률
SF 소설	3.283	0.012(p.<.05)	1.637	0.166(p.>.05)	1.420	0.228(p.>.05)
역사 소설	0.348	0.845(p.>.05)	5.299	0.000(p.<.05)	0.712	0.584(p.>.05)
연애 소설	1.146	0.336(p.>.05)	0.989	0.414(p.>.05)	0.990	0.414(p.>.05)
청소년 소설	1.905	0.110(p.>.05)	1.831	0.124(p.>.05)	0.781	0.539(p.>.05)
판타지	1.376	0.243(p.>.05)	1.861	0.118(p.>.05)	2.058	0.087(p.>.05)
추리 소설	2.256	0.064(p.>.05)	2.593	0.037(p.<.05)	1.858	0.119(p.>.05)
본격 소설	0.532	0.712(p.>.05)	1.062	0.376(p.>.05)	4.001	0.004(p.<.05)

③ 장 인식에 따른 취향 인식3(취향 인식)

- 가정의 장

앞의 두 장르적 취향에 대한 문항에 이어서 세 번째 취향 표지 문항으로, 선호 작가 및 이유, 선호 작품 및 이유, 불호 작가(작품) 및 이유, 인기 작품 및 평가에 대한 서술형 문항을 구성하였다. 해당 서술 응답에 대해 축코딩 및 초점코딩의 방법을 통해 응답 유형을 코딩하여 가정의 장에 해당하는 문항들과 유의도 검정을 수행하였으며,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문항	가족 도서 이용 빈도		부모의 독서 선호도		형제자매의 독서 선호도	
	F값	유의확률	F값	유의확률	F값	유의확률
선호 작가	1.726	0.145(p.>.05)	1.745	0.141(p.>.05)	0.922	0.452(p.>.05)
선호 작가 이유	0.970	0.446(p.>.05)	0.829	0.548(p.>.05)	0.616	0.717(p.>.05)
선호 작품	1.692	0.101(p.>.05)	1.352	0.219(p.>.05)	1.354	0.219(p.>.05)
선호 작품 이유	1.468	0.190(p.>.05)	2.249	0.040(p.<.05)	0.220	0.970(p.>.05)
불호 작가	1.114	0.351(p.>.05)	0.966	0.427(p.>.05)	1.081	0.372(p.>.05)
불호 이유	1.967	0.061(p.>.05)	2.908	0.006(p.<.05)	0.485	0.844(p.>.05)

인기 작품	1.617	0.121(p.>.05)	0.721	0.673(p.>.05)	1.174	0.316(p.>.05)
인기작 품평가	1.420	0.218(p.>.05)	0.152	0.979(p.>.05)	1.568	0.171(p.>.05)

- 교육의 장

교육의 장에 대한 유의도 검정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문항	도서관 이용 빈도		교사 독서 선호도	
	F값	유의확률	F값	유의확률
선호 작가	1.114	0.351(p.>.05)	2.441	0.048(p.<.05)
선호 작가 이유	1.751	0.110(p.>.05)	0.828	0.549(p.>.05)
선호 작품	0.960	0.468(p.>.05)	0.971	0.459(p.>.05)
선호 작품 이유	1.744	0.112(p.>.05)	1.131	0.345(p.>.05)
불호 작가	2.070	0.086(p.>.05)	0.242	0.914(p.>.05)
불호 이유	0.212	0.982(p.>.05)	1.829	0.083(p.>.05)
인기 작품	2.520	0.012(p.<.05)	1.210	0.294(p.>.05)
인기작 품평가	1.468	0.201(p.>.05)	0.884	0.492(p.>.05)

- 온라인의 장

온라인의 장에 대한 유의도 검정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문항	인터넷 도서 이용 빈도		웹 연재물 이용 빈도		게시판 소통 참여도	
	F값	유의확률	F값	유의확률	F값	유의확률
선호 작가	1.267	0.284(p.>.05)	2.220	0.068(p.>.05)	1.695	0.152(p.>.05)
선호 작가 이유	0.954	0.457(p.>.05)	1.289	0.263(p.>.05)	1.125	0.348(p.>.05)
선호 작품	0.566	0.805(p.>.05)	2.219	0.027(p.<.05)	1.256	0.268(p.>.05)
선호 작품	1.864	0.088(p.>.05)	1.148	0.335(p.>.05)	0.637	0.701(p.>.05)

이유						
불호 작가	1.180	0.320(p.>.05)	1.324	0.262(p.>.05)	1.170	0.325(p.>.05)
불호 이유	1.528	0.159(p.>.05)	1.166	0.323(p.>.05)	1.279	0.262(p.>.05)
인기 작품	1.142	0.336(p.>.05)	1.055	0.396(p.>.05)	0.813	0.592(p.>.05)
인기작 품평가	0.748	0.588(p.>.05)	0.858	0.510(p.>.05)	0.333	0.892(p.>.05)

문항	블로그 소통 참여도		SNS 소통 참여도		Youtube 소통 참여도	
	F값	유의확률	F값	유의확률	F값	유의확률
선호 작가	3.392	0.010(p.<.05)	2.779	0.028(p.<.05)	0.552	0.698(p.>.05)
선호 작가 이유	1.042	0.399(p.>.05)	0.866	0.521(p.>.05)	1.121	0.351(p.>.05)
선호 작품	1.532	0.147(p.>.05)	1.951	0.054(p.>.05)	1.350	0.220(p.>.05)
선호 작품 이유	0.900	0.496(p.>.05)	0.650	0.690(p.>.05)	0.343	0.914(p.>.05)
불호 작가	1.867	0.117(p.>.05)	0.674	0.611(p.>.05)	0.837	0.503(p.>.05)
불호 이유	1.484	0.174(p.>.05)	1.293	0.254(p.>.05)	1.175	0.318(p.>.05)
인기 작품	2.024	0.045(p.<.05)	1.237	0.279(p.>.05)	0.416	0.910(p.>.05)
인기작 품평가	1.909	0.094(p.>.05)	0.427	0.830(p.>.05)	0.645	0.666(p.>.05)

-또래문화의 장

또래문화의 장에 대한 유의도 검정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문항	지인의 책 이용 빈도		친구 독서 선호도		오프라인 독서모임 참여도	
	F값	유의확률	F값	유의확률	F값	유의확률
선호 작가	2.186	0.71(p.>.05)	1.416	0.229(p.>.05)	1.673	0.157(p.>.05)
선호 작가 이유	0.628	0.708(p.>.05)	0.745	0.614(p.>.05)	1.412	0.211(p.>.05)
선호 작품	1.462	0.172(p.>.05)	0.764	0.635(p.>.05)	2.762	0.006(p.<.05)
선호	1.233	0.290(p.>.05)	0.962	0.452(p.>.05)	1.163	0.327(p.>.05)

작품 이유						
불호 작가	0.376	0.826(p.>.05)	1.078	0.368(p.>.05)	2.771	0.028(p.<.05)
불호 이유	0.642	0.721(p.>.05)	0.961	0.461(p.>.05)	4.502	0.000(p.<.05)
인기 작품	1.061	0.391(p.>.05)	0.663	0.724(p.>.05)	2.055	0.041(p.<.05)
인기작 품평가	1.089	0.367(p.>.05)	0.649	0.663(p.>.05)	0.694	0.628(p.>.05)

④ 자원 인식에 따른 취향 인식

여기에서는 학습자의 자원 인식과 취향 인식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려 한다. 학습자 자원 인식과 관련되는 문항은 지식 자원(Ⅱ부 3번, 독서량), 심리적 자원(Ⅰ부 4번과 8번 간 차이), 사회적 자원(Ⅰ부 9번, 소통 여부)이다. 해당 문항 간 유의도 분석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아래 표의 취향 문항들은 모두 연속형 변수이고 지식 자원(독서량)과 심리적 자원, 사회적 자원(기타소통, 주변인 반응)의 경우 연속형 변수이기에 Pearson상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사회적 자원(소통 여부)는 범주형 변수로 일원배치 분산 분석(ANOVA)을 수행하였다.

문항	지식 자원		심리적 자원		사회적 자원(소통여부)	
	P값	유의확률	P값	유의확률	F값	유의확률
시사	0.057	0.386(p.>.05)	0.131	0.045(p.<.05)	2.776	0.097(p.>.05)
취미	-0.060	0.364(p.>.05)	-0.047	0.478(p.>.05)	0.111	0.740(p.>.05)
과학	-0.020	0.756(p.>.05)	0.073	0.267(p.>.05)	3.832	0.051(p.>.05)
기술	-0.025	0.705(p.>.05)	0.043	0.510(p.>.05)	0.574	0.450(p.>.05)
여행	-0.051	0.440(p.>.05)	0.051	0.438(p.>.05)	4.021	0.046(p.<.05)
수필	0.166	0.011(p.<.05)	0.157	0.016(p.<.05)	4.199	0.042(p.<.05)
소설	0.143	0.029(p.<.05)	0.303	0.000(p.<.05)	20.835	0.000(p.<.05)
시	0.189	0.004(p.<.05)	0.177	0.007(p.<.05)	6.243	0.013(p.<.05)
역사	0.091	0.167(p.>.05)	0.168	0.010(p.<.05)	1.298	0.256(p.>.05)
예술	0.035	0.594(p.>.05)	0.199	0.002(p.<.05)	4.294	0.039(p.<.05)
IT	-0.010	0.883(p.>.05)	0.019	0.773(p.>.05)	0.004	0.947(p.>.05)
자기 계발	0.016	0.804(p.>.05)	-0.042	0.524(p.>.05)	0.490	0.484(p.>.05)

수험	-0.017	0.790(p.>.05)	-0.043	0.513(p.>.05)	1.285	0.258(p.>.05)
경제	-0.022	0.736(p.>.05)	0.069	0.292(p.>.05)	2.400	0.123(p.>.05)
인문	0.148	0.023(p.<.05)	0.280	0.000(p.<.05)	7.958	0.005(p.<.05)
사회 과학	0.079	0.231(p.>.05)	0.281	0.000(p.<.05)	4.786	0.030(p.<.05)
SF 소설	0.064	0.327(p.>.05)	0.103	0.116(p.>.05)	6.449	0.012(p.<.05)
역사 소설	0.122	0.062(p.>.05)	0.140	0.032(p.<.05)	3.795	0.053(p.>.05)
연애 소설	0.121	0.065(p.>.05)	-0.028	0.665(p.>.05)	0.442	0.507(p.>.05)
청소년 소설	0.138	0.035(p.<.05)	0.013	0.846(p.>.05)	0.475	0.492(p.>.05)
판타지	0.040	0.539(p.>.05)	0.052	0.432(p.>.05)	0.948	0.331(p.>.05)
추리 소설	0.125	0.057(p.>.05)	0.100	0.128(p.>.05)	2.967	0.086(p.>.05)
본격 소설	0.165	0.011(p.<.05)	0.200	0.002(p.<.05)	5.396	0.021(p.<.05)

문항	사회적 자원(기타 소통)		사회적 자원(주변인 반응)	
	P값	유의확률	P값	유의확률
시사	0.129	0.049(p.<.05)	0.059	0.368(p.>.05)
취미	0.053	0.424(p.>.05)	-0.065	0.319(p.>.05)
과학	0.136	0.037(p.<.05)	0.083	0.205(p.>.05)
기술	0.074	0.260(p.>.05)	0.048	0.464(p.>.05)
여행	0.080	0.225(p.>.05)	-0.032	0.623(p.>.05)
수필	0.153	0.019(p.<.05)	0.047	0.472(p.>.05)
소설	0.134	0.041(p.<.05)	0.109	0.095(p.>.05)
시	0.158	0.016(p.<.05)	0.057	0.387(p.>.05)
역사	0.066	0.312(p.>.05)	0.046	0.483(p.>.05)
예술	0.172	0.008(p.<.05)	0.063	0.341(p.>.05)
IT	0.038	0.567(p.>.05)	0.095	0.152(p.>.05)
자기 계발	0.015	0.824(p.>.05)	0.083	0.206(p.>.05)
수험	0.094	0.151(p.>.05)	0.008	0.905(p.>.05)
경제	0.095	0.147(p.>.05)	0.100	0.128(p.>.05)
인문	0.180	0.006(p.<.05)	0.063	0.341(p.>.05)

사회 과학	0.162	0.013(p.<.05)	0.031	0.633(p.>.05)
SF 소설	0.054	0.413(p.>.05)	0.114	0.083(p.>.05)
역사 소설	0.093	0.156(p.>.05)	0.089	0.174(p.>.05)
연애 소설	0.064	0.332(p.>.05)	0.030	0.652(p.>.05)
청소년 소설	0.090	0.169(p.>.05)	-0.016	0.811(p.>.05)
판타지	0.005	0.937(p.>.05)	0.017	0.801(p.>.05)
추리 소설	0.067	0.305(p.>.05)	0.014	0.827(p.>.05)
本格 소설	0.144	0.028(p.<.05)	0.018	0.780(p.>.05)

아래 선호 작가 및 작품에 관련한 항목들의 경우 범주형 변수이기 때문에 연속형 변수인 지식 자원과 심리적 자원, 사회적 자원(기타 소통, 주변인 반응)의 경우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을, 범주형 변수인 사회적 자원(소통 여부)의 경우 Pearson카이제곱 검정을 수행하였다.

문항	지식 자원		심리적 자원		사회적 자원(소통 여부)	
	F값	유의확률	F값	유의확률	P값	유의확률
선호 작가	1.658	0.161(p.>.05)	5.381	0.000(p.<.05)	12.540	0.014(p.<.05)
선호 작가 이유	0.963	0.451(p.>.05)	2.362	0.031(p.<.05)	15.429	0.017(p.<.05)
선호 작품	1.272	0.259(p.>.05)	3.131	0.002(p.<.05)	11.616	0.169(p.>.05)
선호 작품 이유	2.445	0.026(p.<.05)	1.457	0.194(p.>.05)	18.205	0.006(p.<.05)
불호 작가	0.244	0.913(p.>.05)	1.539	0.145(p.>.05)	4.434	0.350(p.>.05)
불호 이유	0.794	0.593(p.>.05)	1.995	0.057(p.>.05)	13.879	0.053(p.>.05)
인기 작품	0.752	0.645(p.>.05)	1.896	0.062(p.>.05)	18.930	0.015(p.<.05)
인기작 품평가	1.190	0.315(p.>.05)	0.868	0.503(p.>.05)	5.019	0.414(p.>.05)

문항	사회적 자원(기타 소통)		사회적 자원(주변인 반응)	
	F값	유의확률	F값	유의확률
선호 작가	2.883	0.023(p.<.05)	6.076	0.000(p.<.05)
선호 작가 이유	1.163	0.327(p.>.05)	4.285	0.000(p.<.05)
선호 작품	1.776	0.083(p.>.05)	3.004	0.003(p.<.05)
선호 작품 이유	0.450	0.845(p.>.05)	2.943	0.009(p.<.05)
불호 작가	1.562	0.185(p.>.05)	0.856	0.491(p.>.05)
불호 이유	1.857	0.078(p.>.05)	2.089	0.046(p.<.05)
인기 작품	0.803	0.600(p.>.05)	2.487	0.013(p.<.05)
인기작 품평가	0.399	0.850(p.>.05)	3.016	0.012(p.<.05)

이상과 같이 장과 취향 간 유의도 검정 결과를 정리하였다. 우선 가정의 장의 경우 ‘가족의 도서 이용 빈도’가 모든 변수들 중 가장 많은 도서 취향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대부분이 p값이 0.005이하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유의 정도도 매우 높았다. 가정의 장에서 얼마나 도서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장르적 취향이 상당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작품 취향에 대한 서술형 응답에서는 가족의 도서 이용 빈도가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가정의 장에서 확보된 도서 인프라가 다양한 도서에 대한 선호 혹은 불호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그에 따라 형성되는 주관적 취향의 영역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으로 도서 인프라 외에 부모와 형제자매의 독서 선호도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서는 장르 선호도 부분에서는 가족의 도서 이용 빈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유의도를 보였다. 다만 부모의 독서 선호도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항목과 형제자매의 독서 선호도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항목이 달랐는데, 부모의 경우 시사, 시, 경제, 인문 분야 등 지식

이나 인문학 서적들에 대한 유의도가 높게 나타났고, 형제자매의 경우 기술, 여행, 자기개발 등에서 높은 유의도를 보였다. IT와 수험 서적에서는 두 경우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형제자매 쪽의 유의도(p 값 0.004, 0.021)가 부모의 유의도(p 값 0.033, 0.044)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러한 차이는 가정의 장에서 학습자들이 부모와 형제자매를 구별하여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다음 장에서 구체적인 응답 양상을 바탕으로 살펴보겠다.

또한 부모 및 형제자매의 경우 앞의 가족 도서 이용 빈도와는 달리 작품 취향에 대한 서술형 응답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주관적 도서 취향의 형성 과정에서 가정의 도서 인프라와 가족 구성원의 영향이 구별되어 인식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교육의 장의 경우에도 도서 일반 선호도에서 도서관 이용 빈도에 대해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항목들과 교사의 도서 선호도에 대해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항목들 간에 불일치가 나타났으며, 도서관과 교사에 대한 인식이 구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소설 장르에 대해서는 두 경우 모두 본격소설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교육의 장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소설 장르의 특수성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다.

교사의 도서 선호도에 대해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항목 중 시와 인문학 도서가 부모의 도서 선호도에 대한 응답들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는 가정의 장에서 부모에 대한 인식과 교육의 장에서 교사에 대한 인식 간에 중첩되는 부분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온라인의 장과 관련해서는 유형별 도서 이용 빈도와 미디어 특성에 따른 소통 참여도를 기준으로 취향 인식에 대한 유의도를 검정하였다. 가정의 장이나 교육의 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개의 변수에 대한 유의도 항목이 적게 나타났으나, 미디어의 특성이나 이용 목적을 반영하는 양상을 보였다. 유튜브의 경우 여행, 수필, 소설에서 유의한 차를 보였으며 장 인식과 관련하여 소설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유일한 항목이다. 웹 연재물 또한 취미 도서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여 여가나 취미 목적으로 두 미디어

를 활용하는 응답자의 경향성을 보여준다. 소설 장르 선호도와 관련한 유의도 분석에서도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유일하게 웹 연재물에서만 SF, 연애, 판타지 장르의 소설에 대해 유의한 차이를 보여 장르 문학이 주를 이루는 웹 연재물의 이용 목적을 반영하는 양상을 보인다.

반면 게시판이나 블로그의 경우 과학, 기술, 자기개발, 사회과학, 인문, IT 등 전문적인 지식정보와 관련된 장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SNS의 경우에는 시, 예술, IT, 수험, 경제 부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가정의 장에서 부모의 독서 선호도 항목에서 보인 유의도 항목들(시사, 시, IT, 수험, 경제, 인문)과 대부분의 항목이 중첩된다. 작품 취향에 대한 서술형 응답 에서도 선호작품과 관련된 항목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 부모, 교사와 SNS를 통한 소통의 영향을 유사하게 인식하는 경향성을 보인다.

또래문화의 장의 경우, 친구의 독서 선호도에 대해서는 시 장르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 시 장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모, 교사, SNS에서 공통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장르로, 또래 친구의 독서 선호도와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는 점에서 시 장르에 대한 응답자들의 특수한 인식을 살펴볼 수 있다. 이 인식의 영향이 장르적 선호도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는 유의도 검정 결과만으로는 알 수 없기에 다음 장에서 살펴본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장과 취향 간 상관관계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 양상을 통해, 응답자는 자신의 취향과 각 장의 특성을 인식하고 자신의 취향을 반영하기도 하고 취향과 장의 특성을 단절적으로 인식하기도 하는 등의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학적 능력의 위계관계에 대한 인식이 전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으나, 취향과 장 인식이 어긋나는 부분에서 그 양상을 부분적으로나마 살펴볼 수 있었다.

다음으로 자원 인식에 따른 취향 인식의 경우 앞선 장 인식에서 유튜브 항목에서만 유일하게 소설 장르와의 유의성이 나타났던 것과는 반대로 모

든 자원 인식에서 시, 소설, 수필의 문학장르에 대하여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응답자들이 각각의 자원을 소설 교육의 장 안에서 문학적 역량의 척도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특히 정보자원과 관련해서는 시, 소설, 수필, 인문 장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소설 장르 안에서는 청소년 소설과 본격 소설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학교 교육에서 다루는 장르를 명확하게 반영하고 있다.

(2) 독자로서의 자기 인식 관련 유의도 분석 결과

여기에서는 문학교육의 장/자원/취향의 요소들과 상위 요인인 ‘독자로서의 자기인식’ 간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독자로서의 자기인식에 해당하는 설문 문항은 ‘I 부 4번 문항 독서 선호도/I 부 7번 독서량 자평/II 부 2번 독자 수준 자평’이며, 이것을 요인으로 설정하여 각 문항의 요소들과 해당 요인 간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각 문항별 기술통계 및 유의도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다. 유의도 분석에는 변수의 유형에 따라 카이제곱검정과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을 사용하였다.

① <I 부 5번 문항> 아래 책들에 대해 본인이 흥미를 가지는 정도에 따라 1~5까지 숫자를 적어주세요



변수 ‘독서 선호도’, ‘독서 수준 자평’, ‘독서량 자평’과 관련하여 각 문항

별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문항	독서 선호도		독서 수준 자평		독서량 자평	
	F값	유의확률	F값	유의확률	F값	유의확률
시사	4.364	0.002(p.<.05)	1.793	0.131(p.>.05)	5.635	0.000(p.<.05)
취미	0.357	0.839(p.>.05)	1.959	0.102(p.>.05)	0.223	0.926(p.>.05)
과학	0.769	0.546(p.>.05)	0.239	0.916(p.>.05)	5.252	0.000(p.<.05)
기술	0.736	0.568(p.>.05)	0.819	0.514(p.>.05)	4.255	0.002(p.<.05)
여행	1.431	0.225(p.>.05)	2.209	0.069(p.>.05)	0.861	0.488(p.>.05)
수필	3.033	0.018(p.<.05)	1.843	0.121(p.>.05)	2.121	0.079(p.>.05)
소설	7.480	0.000(p.<.05)	6.498	0.000(p.<.05)	4.287	0.002(p.<.05)
시	9.266	0.000(p.<.05)	4.459	0.002(p.<.05)	3.708	0.006(p.<.05)
역사	3.705	0.006(p.<.05)	2.091	0.083(p.>.05)	4.155	0.003(p.<.05)
예술	6.868	0.000(p.<.05)	3.990	0.004(p.<.05)	4.652	0.001(p.<.05)
IT	2.531	0.041(p.<.05)	1.700	0.151(p.>.05)	1.661	0.160(p.>.05)
자기 계발	1.662	0.160(p.>.05)	0.462	0.764(p.>.05)	0.237	0.917(p.>.05)
수험	1.093	0.361(p.>.05)	0.895	0.468(p.>.05)	0.918	0.454(p.>.05)
경제	3.485	0.009(p.<.05)	3.576	0.008(p.<.05)	5.671	0.000(p.<.05)
인문	14.468	0.000(p.<.05)	5.361	0.000(p.<.05)	6.420	0.000(p.<.05)
사회 과학	9.883	0.000(p.<.05)	3.352	0.011(p.<.05)	5.450	0.000(p.<.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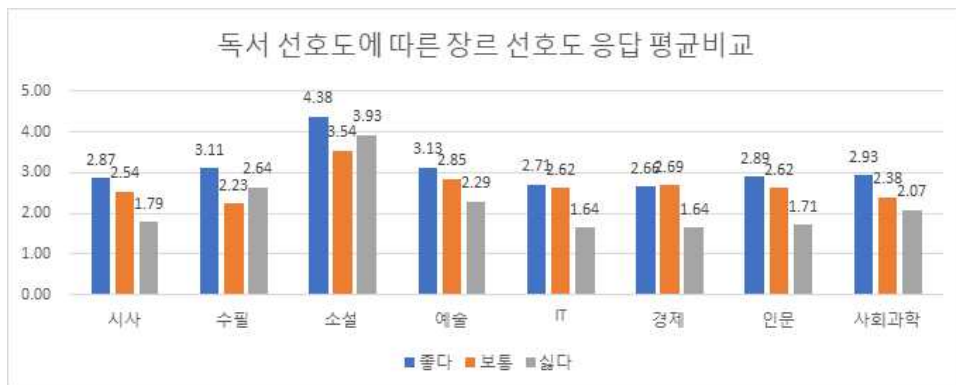
독서 선호도, 독서 수준 자평, 독서량 자평 변수와 관련한 응답의 유의도는 위와 같으며, 독서 선호도와 관련하여 시사, 수필, 소설, 예술, IT, 경제, 인문, 사회과학 영역에서 유의미한 응답 차이를 보였다.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좋다’로 응답한 학습자의 평균값이 모든 장르에서 가장 높으며, ‘싫다’로 응답한 학습자의 평균값이 가장 낮다. 모든 집단에서 소설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좋다고 응답한 집단은 소설 장르에 대한 선호도가 다른 장르에 비해 상당히 높은 반면, 다른 장르에 대한 선호도에는 큰 편차 없이 균일한 양상을 보인다.(아래 표

표준편차값 참조) 반면 싫다로 응답한 집단은 선호도 평균값 간 편차가 가장 크며, 보통으로 응답한 집단은 표준편차가 가장 작다.

‘보통’ 집단의 경우 다른 장르는 ‘좋다’ 집단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거나 경제 장르에 있어서는 더 높은 선호도를 보이는데, 수필과 소설 부분에서는 ‘좋다’ 집단과 큰폭의 차이를 보인다. 반면 ‘싫다’ 집단의 경우 다른 영역에서는 선호도가 낮으나 수필과 소설 부분에서는 ‘보통’ 집단보다 높은 선호도를 보인다.

<독서 선호도와 관련하여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문항별 평균>

구분	시사	수필	소설	예술	IT	경제	인문	사회과학	전체 평균	표준 편차	표준편차 (소설 제외)
좋다	2.87	3.11	4.38	3.13	2.71	2.66	2.89	2.93	3.09	.51	.17
보통	2.54	2.23	3.54	2.85	2.62	2.69	2.62	2.38	2.68	.37	.19
싫다	1.79	2.64	3.93	2.29	1.64	1.64	1.71	2.07	2.21	.73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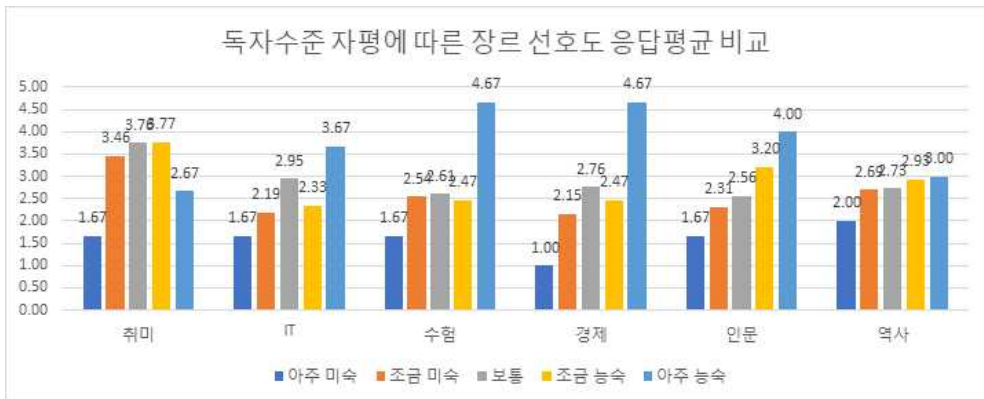
또한 각 장르별 응답의 표준편차를 보면, 좋다 집단의 경우 선호도 평균값이 높은 장르일수록 표준편차가 작은 데에 비하여 보통 집단은 선호도가 낮을수록 표준편차가 작아지는 경향을 다소 보이며, 싫다 집단의 경우 이 경향은 더욱 심화된다. 이를 바탕으로 독서에 대해 부정적 가치관을 가진 집단일수록 좋아하는 장르보다는 싫어하는 장르에 대한 표현이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독서 선호도와 관련하여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문항별 표준편차>

구분	시사	수필	소설	예술	IT	경제	인문	사회 과학
좋다	1.237	1.228	.832	1.112	1.285	1.281	1.362	1.330
보통	1.050	.927	1.127	1.345	1.193	1.251	1.193	1.121
싫다	.975	1.151	1.141	1.326	.745	.842	1.069	1.141

‘독자수준자평’과 관련하여 취미, IT, 수험, 경제, 인문 분야에 대한 선호도 응답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역사 분야에 대한 선호도가 p.값이 0.8을 넘어 1에 가까운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해당 분야에 대해서는 독자수준자평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매우 적어 균질한 특성을 보인다는 의미이다. 아래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역사 분야에 대해서는 독자수준자평에 따른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균일한 선호도를 보인다.

구 분	취미		IT		수험		경제		인문		역사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아주 마속	1.67	.577	1.67	.577	1.67	1.155	1.00	.000	1.67	.577	2.00	1.732
조금 마속	3.46	1.104	2.19	1.132	2.54	1.334	2.15	1.317	2.31	1.350	2.69	1.408
보 통	3.76	1.067	2.95	1.314	2.61	1.262	2.76	1.113	2.56	1.266	2.73	1.304
조금 느속	3.77	1.223	2.33	1.155	2.47	1.224	2.47	1.224	3.20	1.375	2.93	1.388
아주 느속	2.67	.577	3.67	1.528	4.67	.577	4.67	.577	4.00	1.000	3.00	1.000



위 표와 그래프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독서 수준에 대한 자기평가가 가장 높은 ‘아주 능숙’을 응답한 집단은 수험, 경제, 인문학 등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있는 장르의 도서를 선호하고, 취미와 같은 흥미, 여가 관련 도서에 대한 선호도가 낮았다. 반면 한단계 아래인 ‘조금 능숙’을 응답한 집단은 확연히 다른 성향을 보였는데, 스스로의 수준에 대해 최고 급간으로 응답한 집단과 최고 급간 바로 아래 급간을 선택한 집단 간의 성격 차이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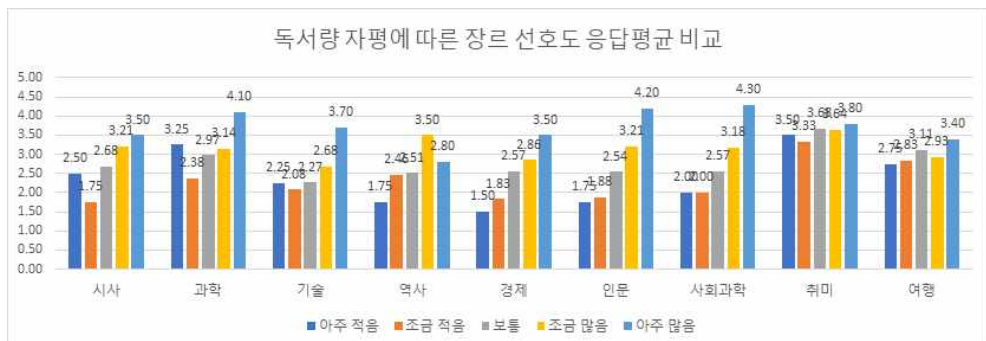
‘독서량 자평’과 관련하여, 시사, 과학, 기술, 역사, 경제, 인문, 사회과학 분야에 대한 선호도 응답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취미와 여행 분야에 대한 선호에서 p값이 각각 0.781, 0.776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으며, 이는 앞의 독서 선호도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해당 분야에 대한 반응이 독서량 자평 집단 간에 매우 차이가 적어 균질한 특성을 보였다는 의미이다. 독서량 자평에 따른 응답별 평균 및 표준편차는 아래와 같다.

<독서량 자평과 관련하여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문항별 평균>

구분	시사	과학	기술	역사	경제	인문	사회 과학	유의미 문항 평균	취미	여행
아주 적음	2.50	3.50	3.25	2.25	2.75	1.75	1.50	2.14	1.75	2.00
조금 적음	1.75	3.33	2.38	2.08	2.83	2.46	1.83	2.05	1.88	2.00
보통	2.68	3.68	2.97	2.27	3.11	2.51	2.57	2.59	2.54	2.57
조금 많음	3.21	3.64	3.14	2.68	2.93	3.50	2.86	3.11	3.21	3.18
아주 많음	3.50	3.80	4.10	3.70	3.40	2.80	3.50	3.73	4.20	4.30

<독서량 자평과 관련하여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문항별 표준편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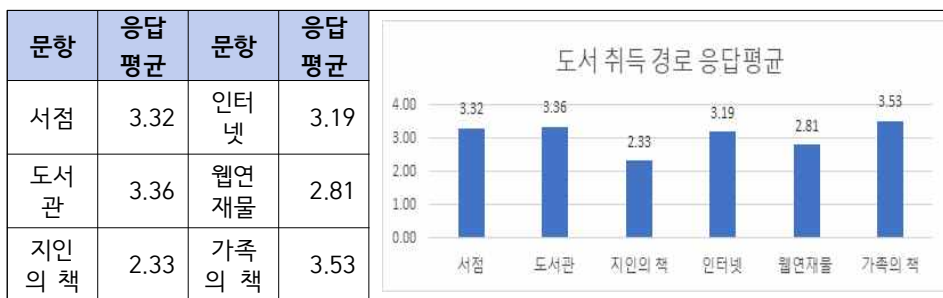
구분	시사	과학	기술	역사	경제	인문	사회 과학	취미	여행
아주 적음	.577	.957	1.258	.957	1.000	.957	1.155	1.291	1.258
조금 적음	.944	1.377	1.060	1.444	.917	1.035	1.022	1.341	1.341
보통	1.132	1.258	1.217	1.261	1.214	1.216	1.214	1.082	1.308
조금 많음	1.258	1.239	1.362	1.232	1.177	1.343	1.249	1.129	1.274
아주 많음	.972	1.287	1.567	1.135	1.581	.919	.823	1.135	1.430



독서량 자평에서 아주 많다고 답변한 집단의 경우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모든 분야에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는데, 역사 분야에서는 가장 낮

은 선호도를 보였으며, 조금 많다고 답변한 집단에서 역사 분야에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또한 독서량 자평 수준이 낮음에서 높음으로 갈수록 전체 선호도 평균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거나, ‘조금 적음’으로 응답한 집단만이 전체 집단 중 선호도 평균이 가장 낮았다.

② <I 부 6번 문항> 책은 보통 어떤 경로로 접하나요? 자주 이용하는 정도에 따라 1~5까지 숫자를 적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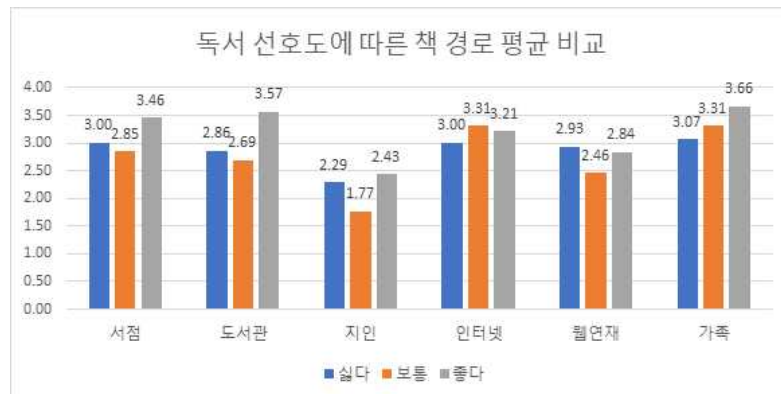
변수 ‘독서 선호도’, ‘독서 수준 자평’, ‘독서량 자평’과 관련하여 각 문항별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문항	독서 선호도		독서 수준 자평		독서량 자평	
	F값	유의확률	F값	유의확률	F값	유의확률
서점	1.869	0.160(p.>.05)	0.972	0.427(p.>.05)	3.266	0.015(p.<.05)
도서관	3.390	0.038(p.<.05)	1.326	0.226(p.>.05)	3.615	0.009(p.<.05)
지인의 책	1.767	0.176(p.>.05)	2.163	0.079(p.>.05)	0.758	0.555(p.>.05)
인터넷	0.189	0.828(p.>.05)	1.428	0.231(p.>.05)	1.821	0.131(p.>.05)
웹연재물	0.462	0.631(p.>.05)	2.528	0.045(p.<.05)	0.615	0.653(p.>.05)
가족의 책	1.501	0.228(p.>.05)	0.696	0.597(p.>.05)	3.450	0.011(p.>.05)

<독서 선호도와 관련하여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문항별 평균>



‘독서 선호도’와 관련하여 도서관 문항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좋다고 응답한 집단이 도서관 이용 빈도도 가장 높았고 표준편차도 가장 작아서 상대적으로 균질하게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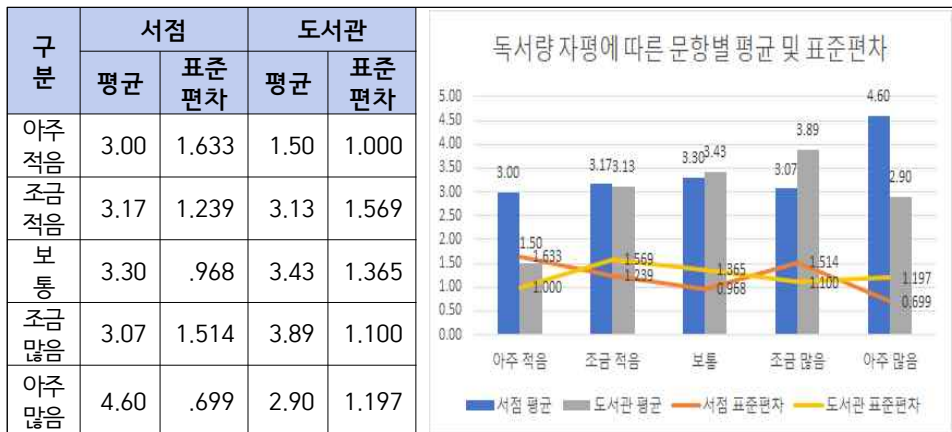


위 그래프를 보면 독서에 대한 선호도와 관계 없이 인터넷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빈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균질성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지만, ‘좋다’집단의 경우 서점, 도서관, 가족과 같이 오프라인 공간에서 책을 접하는 반면 ‘싫다’와 ‘보통’집단의 경우 상대적으로 인터넷과 웹연재와 같은 온라인 공간에서 책을 접하는 경우가 많았다.

<독자 수준 자평과 관련하여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문항별 평균>



‘독자 수준 자평’과 관련하여 웹 문항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 항목에서는 아주 능숙하다고 응답한 집단이 응답 평균 및 표준편차가 모두 가장 낮아서 독자 수준을 가장 높게 평가한 집단이 균질하게 가장 적게 이용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조금 능숙하다고 응답한 집단은 집단 중 가장 높은 빈도로 웹 연재물을 이용하여, 앞선 도서 일반 장르 선호와 마찬가지로 아주 능숙 집단과 조금 능숙 집단 간의 이질성이 도드라지게 나타났다.



‘독서량 자평’과 관련하여 서점 및 도서관 문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여기서도 아주 많음 집단과 조금 많음 집단 간에 이질성이 도드라지게 나타났는데, 각각 서점과 도서관에 대한 응답 평균에서 정 반대의 성향을 보였다. 반면 아주 적음 집단은 아주 많음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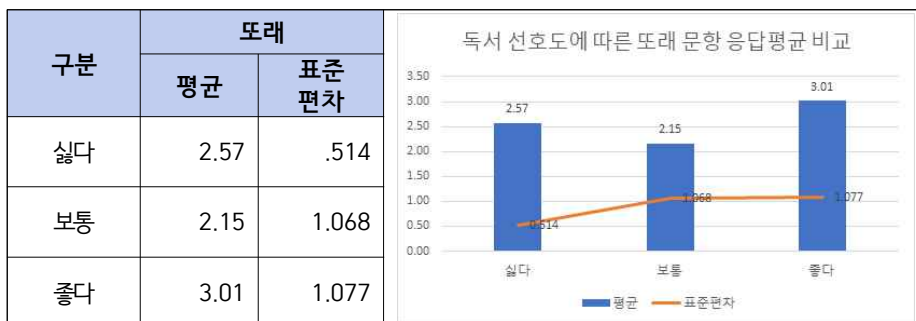
평균값이 작지만 서점을 더 많이 사용하고 도서관을 매우 적게 사용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③ <I 부 8번 문항> 본인이 생각하기에 주변의 사람들은 독서를 얼마나 좋아하나요? 책을 좋아하거나 자주 읽는 정도에 따라 1~5의 숫자를 적어주세요.

변수 ‘독서 선호도’, ‘독서 수준 자평’, ‘독서량 자평’과 관련하여 각 문항별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문항	독서 선호도		독서 수준 자평		독서량 자평	
	F값	유의확률	F값	유의확률	F값	유의확률
또래	4.518	0.013(p.<.05)	1.292	0.278(p.>.05)	6.272	0.000(p.<.05)
부모	1.024	0.363(p.>.05)	1.498	0.209(p.>.05)	2.106	0.086(p.>.05)
형제	0.072	0.931(p.>.05)	0.663	0.619(p.>.05)	0.255	0.906(p.>.05)
주변인 평균	1.617	0.204(p.>.05)	0.645	0.631(p.>.05)	1.345	0.259(p.>.05)
흥미 차이	0.926	0.399(p.>.05)	2.165	0.079(p.>.05)	5.206	0.001(p.<.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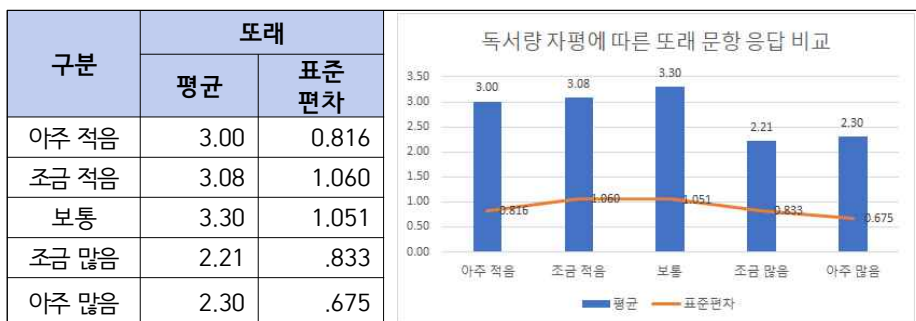
이 문항에 대해서는 각각의 항목에 대한 평균차이와 함께 주변인 전체에 대한 태도와 자신의 문학에 대한 선호도 간의 관계를 보기 위하여, 주변인에 대한 응답의 전체평균, 그리고 그 전체평균과 6번 문항에서 응답한 장르 선호도 전체 평균값의 차이를 함께 비교하였다. ‘흥미차이’ 항목은 자신의 장르 선호도 전체 평균값에서 주변인 독서 선호도 전체평균을 뺀 값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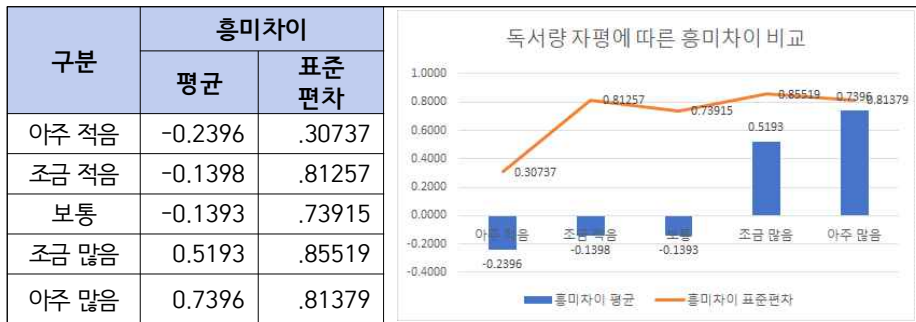


‘독서 선호도’와 관련하여 또래 문항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좋다고 응답한 집단이 또래 집단의 독서 선호도에 대해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다. 또한 형제에 대해서는 p.값이 1에 가깝게 나타나 독서 선호도에 관계없이 매우 균질한 응답을 보였다. 대체로 형제에 대해 낮게 평가하고 부모를 높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이거나, 보통으로 응답한 집단의 경우 또래집단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낮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독자 수준 자평’과 관련해서는 주변인 세 집단을 포함하여 전체 평균 비교까지 모든 부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아래 ‘독서량 자평’과 관련해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학습자들은 독서량과 독서 선호도를 연관성이 있는 지표로 인식하고 독자로서의 수준은 별개의 지표로 인식한다고 짐작할 수 있다.





‘독서량 자평’과 관련하여 또래 및 흥미 차이 부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래 부분을 살펴보면, 독서량이 많다고 자평한 집단의 경우 상대적으로 또래집단의 독서 선호도를 낮게 평가하였고, 보통 및 적다고 응답한 집단이 또래집단의 독서 선호도를 높게 평가하였으며, 전체 흥미 차이 부분에서도 많다고 응답한 두 집단과 나머지 세 집단 간에는 명확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독서량과 관련하여 주변인과 자신에 대하여 상대적 시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형제 부분에서 p.값이 .906으로 거의 1에 가깝게 나타났는데, 이는 형제에 관해서는 독서량과 관계없이 균질한 응답을 했다는 의미이다. 형제의 문학 선호도에 대한 전체 평균은 2.25로 부모(3.24)나 또래(2.84)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④ <1부 9번 문항> 주변 사람들과 종종 책을 추천하고 추천받는 편인가요? (추천 신뢰/불신, 추천책 이유, 추천 반응 포함)

위 문항은 서술형 문항으로, 해당 문항의 응답을 축코딩과 초점코딩을 통해 몇가지 유형으로 코딩하였다. 따라서 숫자가 의미가 없는 범주형 변수가 되기 때문에, ANOVA 분석이 아닌 카이제곱 교차 검정을 통해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아래는 응답에 대응한 코드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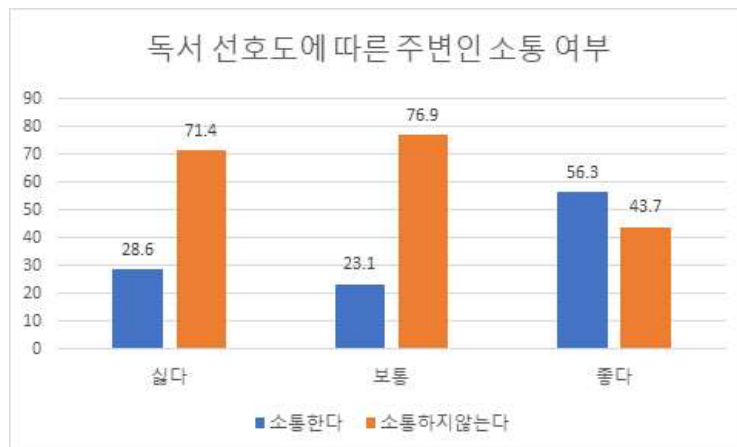
문항	코드번호	코드 내용
9. 주변인 소통 여부	1	소통 한다
	2	소통 안한다

9-1. 추천에 대해 신뢰하는 주변인	0	무응답
	1	친구, 또래집단
	2	부모님
	3	선생님
	4	형제자매
	5	취향이 같은 사람
	6	네티즌
	7	문학능력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사람
	8	공식적 자료(도서관 추천목록 등)
9-1. 추천을 신뢰하는 이유	0	무응답
	1	자기지향적 응답(나와 취향이 맞는다 등)
	2	독서량에 대한 신뢰
	3	문학적 역량에 대한 신뢰(학식 등)
	4	흥미 지향 응답
	5	타인지향적 응답(추천했으면 이유가 있을 것이다 등)
	6	그 사람에게 추천 받았던 경험에 대한 신뢰
9-2. 추천에 대해 불신하는 주변인	0	무응답
	1	친구
	2	부모
	3	형제자매
	4	네티즌
	5	관심사가 다른 사람
	6	가치관이 다른 사람
9-2. 추천을 불신하는 이유	0	무응답
	1	관심사나 취향 불일치
	2	낮은 독서 역량에 대한 불신
	3	편향성에 대한 불신
9-3. 책 추천이유	0	무응답
	1	흥미 지향 응답(재미있어서)
	2	타인지향적 응답(타인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등)
	3	구조적 완성도(인물구성, 스토리구조 등)
	4	내용에 대한 공감(자아성찰, 주제의식, 가치관 등)
9-4. 추천에 대한 주변인의	0	무응답
	1	부정반응
	2	무관심 의례적 반응

반응	3	보통이다
	4	긍정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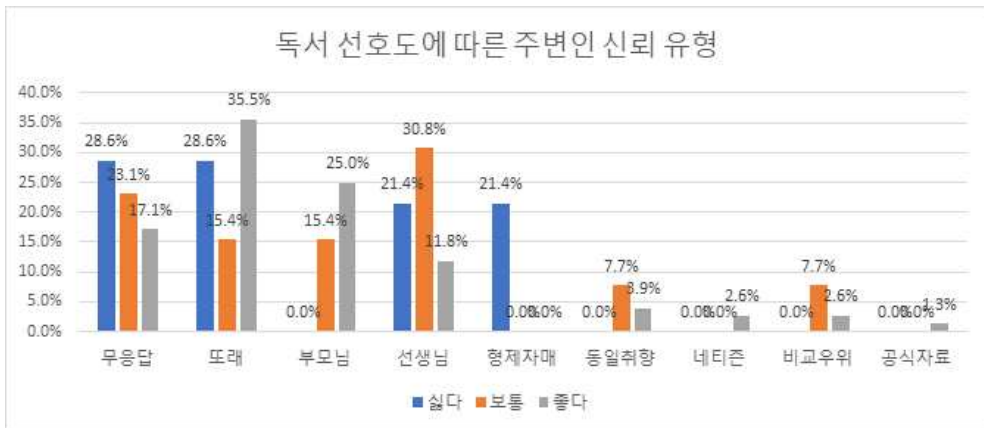
변수 ‘독서 선호도’, ‘독서 수준 자평’, ‘독서량 자평’과 관련하여 각 문항별 카이제곱 교차 검정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문항	독서 선호도		독서 수준 자평		독서량 자평	
	카이 제곱값	유의확률	카이 제곱값	유의확률	카이 제곱값	유의확률
추천 여부	13.815	0.001(p.<.05)	9.312	0.054(p.>.05)	11.194	0.024(p.<.05)
신뢰	31.714	0.011(p.<.05)	33.049	0.416(p.>.05)	18.753	0.970(p.>.05)
신뢰 이유	10.024	0.614(p.>.05)	17.231	0.839(p.>.05)	19.219	0.740(p.>.05)
불신	20.248	0.063(p.>.05)	22.702	0.537(p.>.05)	25.691	0.369(p.>.05)
불신 이유	10.510	0.105(p.>.05)	9.929	0.622(p.>.05)	20.264	0.062(p.>.05)
추천 이유	9.112	0.332(p.>.05)	21.813	0.149(p.>.05)	33.573	0.006(p.<.05)
추천 반응	11.854	0.158(p.>.05)	17.164	0.375(p.>.05)	12.631	0.700(p.>.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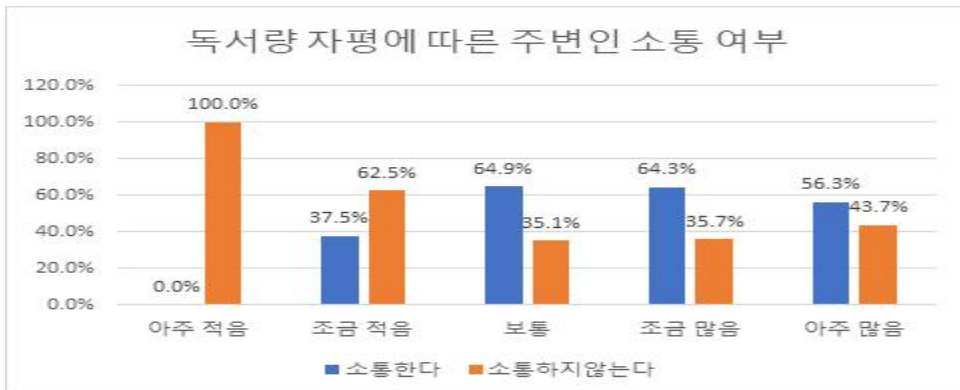
‘독서 선호도’와 관련하여 추천 여부와 주변인 신뢰 유형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위 그래프와 같이 좋다고 대답한 응답자의 56%가 주변인과 작품을 추천하고 추천받겠다고 답한 것에 비해 보통과 싫다의 경우

압도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많아 극명한 대비를 보였다.



위 그래프는 독서 선호도에 따른 주변인 신뢰 유형이다. 앞서 소통여부에서 싫다와 보통 집단은 소통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많았기 때문에, 연계되는 이 문항에서도 두 집단은 무응답이 많았다. 또한 좋다 집단에서 또래가 가장 많고 선생님이 비교적 적은 반면, 보통 집단에서는 선생님이 가장 많고 또래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좋다 집단에서는 또래나 부모 등 일상의 영역에 속한 대상들을 신뢰할만한 대상으로 삼는 반면 보통 집단들은 선생님과 같은 권위를 가진 대상을 신뢰할 대상으로 삼는 경향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반면 싫다 집단의 경우 신뢰할 대상으로 부모를 선택한 응답자가 전무했으며, 무응답을 제외하고 또래에 대한 신뢰가 가장 높았다. 좋다와 보통에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 형제자매에 대한 언급이 21.4%나 되는 점도 주목할만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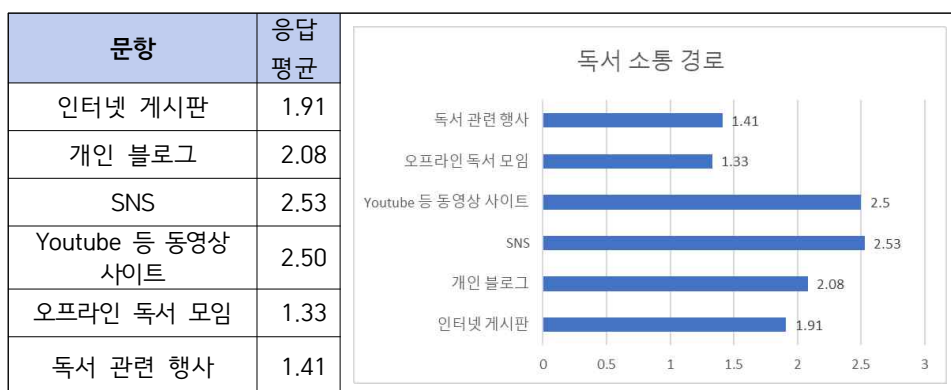
‘독서 수준 자평’과 관련하여 모든 부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독서량 자평’과 관련하여서는 추천여부와 주변인에 추천한 책의 추천 이유 부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독서량이 아주 적다고 응답한 집단은 전원이 주변인과 소통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독서량이 보통이라고 응답한 집단이 64.9%로 주변인과의 소통에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⑤ <I 부 10번 문항> 주변인 외에 독서 관련 소통 대상 및 방법

위 문항은 9번 문항에서 제시한 주변인 외에 온라인 혹은 기타 다른 방법으로 독서 관련 소통을 하는 경로가 있는지, 한다면 어느정도 비중으로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며, 응답 결과는 아래와 같다.



문항	독서 선호도		독서 수준 자평		독서량 자평	
	F값	유의확률	F값	유의확률	F값	유의확률
인터넷 게시판	0.960	0.430(p.>.05)	0.111	0.978(p.>.05)	1.291	0.274(p.>.05)
개인 블로그	2.023	0.092(p.>.05)	0.361	0.836(p.>.05)	2.078	0.084(p.>.05)
SNS	0.581	0.677(p.>.05)	2.339	0.056(p.>.05)	1.054	0.380(p.>.05)
Youtu be 등 동영상 사이트	1.206	0.309(p.>.05)	3.156	0.015(p.<.05)	2.615	0.036(p.<.05)
오프라 인 독서 모임	2.980	0.020(p.<.05)	1.436	0.223(p.>.05)	5.646	0.000(p.<.05)
독서 관련 행사	1.739	0.142(p.>.05)	2.974	0.020(p.<.05)	5.635	0.000(p.<.05)

해당 문항의 답변에 대하여 변수 ‘독서 선호도’, ‘독서 수준 자평’, ‘독서량 자평’과 관련하여 각 문항별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 결과는 위 표와 같다. 독서 선호도와 관련하여 ‘오프라인 독서모임’에서만 유의미한 답변 차이가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아래 그래프와 같다. 다른 문항들과는 달리 독서 모임에 대하여 독서 선호도에 따라 참여 정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⑥ <II부 4번 문항> 어떤 장르의 소설을 좋아하나요?

위 문항은 소설 장르별 선호도를 묻는 질문이며, 응답 결과는 아래와 같다.



문항	독서 선호도		독서 수준 자평		독서량 자평	
	F값	유의확률	F값	유의확률	F값	유의확률
SF 소설	1.115	0.350(p.>.05)	3.178	0.014(p.>.05)	2.613	0.036(p.<.05)
역사 소설	3.030	0.018(p.<.05)	2.716	0.031(p.<.05)	2.751	0.029(p.<.05)
연애 소설	0.479	0.751(p.>.05)	0.235	0.919(p.>.05)	0.959	0.431(p.>.05)
청소년 소설	0.679	0.607(p.>.05)	1.670	0.158(p.>.05)	1.033	0.391(p.>.05)
판타지	0.621	0.648(p.>.05)	3.083	0.017(p.<.05)	0.062	0.993(p.>.05)
추리 소설	2.374	0.053(p.>.05)	0.715	0.583(p.>.05)	1.391	0.238(p.>.05)
本格 소설	7.250	0.000(p.<.05)	5.838	0.000(p.<.05)	3.528	0.008(p.<.05)

독서 선호도와 관련하여 역사,本格 소설에서 유의미한 응답 차이를 보였다. 독서 수준 자평과 관련하여 역사, 판타지,本格 소설에서 유의미한 응답 차이를 보였으며, 독서량 자기평가와 관련해서는 SF, 역사,本格소설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⑦ <II부 6, 7, 8, 9번> 좋아하는 작가, 작품, 싫어하는 작가, 작품 관련 문항

위 문항은 학습자의 문학적 취향에 대한 문항으로, 선호 및 불호하는 대상과 그 이유에 대한 서술형 응답으로 구성되어있다. 서술형 응답의 경우 축코딩 및 초점코딩을 통해 유형화하였으며, 일원배치 분산분석(AVONA)을 통해 각 항목간 유의도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문항	선호작가		선호작가이유		선호작품		선호작품이유	
	F값	유의확률	F값	유의확률	F값	유의확률	F값	유의확률
독서 선호도	5.670	0.000(p.<.05)	4.648	0.000(p.<.05)	2.575	0.010(p.<.05)	2.814	0.012(p.<.05)
독서량 자평	5.930	0.000(p.<.05)	2.304	0.035(p.<.05)	2.849	0.005(p.<.05)	1.919	0.079(p.>.05)
소설 선호도	4.432	0.002(p.<.05)	2.520	0.022(p.<.05)	3.421	0.001(p.<.05)	3.321	0.004(p.<.05)
독자 수준 자평	1.066	0.374(p.>.05)	1.080	0.375(p.>.05)	1.346	0.222(p.>.05)	0.745	0.614(p.>.05)

문항	불호작가 및 작품		불호 이유		인기 작품		인기 작품 평가	
	F값	유의확률	F값	유의확률	F값	유의확률	F값	유의확률
독서 선호도	3.388	0.011(p.<.05)	2.271	0.030(p.<.05)	2.863	0.005(p.<.05)	0.886	0.491(p.>.05)
독서량 자평	3.956	0.004(p.<.05)	1.662	0.119(p.>.05)	1.453	0.176(p.>.05)	1.079	0.373(p.>.05)
소설 선호도	1.647	0.163(p.>.05)	1.722	0.105(p.>.05)	1.328	0.230(p.>.05)	4.413	0.001(p.<.05)
독자 수준 자평	1.632	0.167(p.>.05)	0.863	0.537(p.>.05)	1.104	0.361(p.>.05)	1.185	0.317(p.>.05)

독서 선호도와 관련하여 선호작가 및 이유, 선호작품 및 이유, 불호 작가 및 이유, 인기작품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독서량 자평의 경우 선호작가, 선호 작품 및 이유, 불호작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소설 선호도와 관련하여 선호작가 및 이유, 선호작품 및 이유, 인기 작품 평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반면 독자 수준 자기평가와 관련해서는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3) 문학적 가치부여 관련 유의도 분석

여기에서는 앞선 장/자원/취향 인식을 통해 구성된 ‘독자로서의 자기인식’ 요인들과 문학적 가치부여 간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독자로서의 자

기인식에 해당하는 설문 문항은 ‘I 부 4번 문항 독서 선호도/I 부 7번 독서량 자평/II 부 1번 소설 선호도와 2번 독자 수준 자평’이며, ‘문학적 가치부여’에 해당하는 문항은 II 부 10번, 11번, 12번 문항이다. 이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들 간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각 문항별 기술통계 및 유의도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다. 유의도 분석에는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을 사용하였다.

문항	소설 필수요소		소설 향유 이유		좋은 소설이란	
	F값	유의확률	F값	유의확률	F값	유의확률
독서 선호도	3.250	0.004(p.<.05)	0.631	0.705(p.>.05)	1.050	0.400(p.>.05)
독서량 자평	2.746	0.014(p.<.05)	1.213	0.300(p.>.05)	2.203	0.028(p.<.05)
소설 선호도	2.014	0.065(p.>.05)	5.023	0.000(p.<.05)	1.538	0.145(p.>.05)
독자 수준 자평	0.591	0.737(p.>.05)	0.868	0.519(p.>.05)	0.513	0.846(p.>.05)

다음으로 문학적 취향에 관계되는 II 부 6, 7, 8, 9번 문항과 문학적 가치부여에 관계되는 II 부 10, 11, 12번 문항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해당 문항의 답변들은 모두 범주형 변수이므로, Pearson 카이제곱 검정을 통해 상관관계를 분석하였고, 분석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문항	소설 필수요소		소설 향유 이유		좋은 소설이란	
	P값	유의확률	P값	유의확률	P값	유의확률
선호 작가	78.988	0.000(p.<.05)	58.857	0.000(p.<.05)	49.525	0.025(p.<.05)
선호 작가 이유	88.223	0.000(p.<.05)	78.009	0.000(p.<.05)	96.273	0.000(p.<.05)
선호 작품	111.265	0.000(p.<.05)	121.073	0.000(p.<.05)	117.053	0.000(p.<.05)
선호 작품 이유	78.201	0.000(p.<.05)	70.701	0.000(p.<.05)	54.891	0.230(p.>.05)
불호 작가	37.716	0.037(p.<.05)	32.354	0.118(p.>.05)	44.704	0.067(p.>.05)
불호 이유	81.434	0.000(p.<.05)	60.774	0.030(p.<.05)	52.895	0.593(p.>.05)
인기	78.121	0.004(p.<.05)	64.449	0.057(p.>.05)	86.969	0.030(p.<.05)

작품 인기 작품 평가	47.89%	0.020(p.<.05)	44.036	0.047(p.<.05)	39.658	0.485(p.>.05)
----------------------	--------	---------------	--------	---------------	--------	---------------

소설의 필수요소에 대한 응답과 관련하여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소설을 향유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선호작가 및 이유, 선호작품 및 이유, 불호 이유, 인기 작품 평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좋은 소설이란’에 대한 답변과 관련하여 선호작가 및 이유, 선호 작품, 인기 작품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상과 같이, 이 장에서는 앞서 세운 가설에 따라 각 변수들 간의 유의도를 검정하였다. 가설의 모델에 따라 각 요소들 간의 영향 관계를 검정하기 위하여, 우선 장과 취향, 자원과 취향 간 유의도를 검정하였다. 이후 취향과 독자로서의 자기 인식에 해당하는 항목들과 취향 간의 유의도를 검정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문학적 가치부여에 해당하는 요소들과 독자로서의 자기인식 요소들 간에 유의도를 검정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해당 검정을 통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요소들을 선별하여 그 구체적인 양상을 바탕으로 학습자의 인식을 분석하려 한다.

IV. 학습자 자기인식의 양상

2. 소설 교육의 장에 대한 인식

1) 장에 대한 영역별 인식

아비투스에는 장에 따라 특수하게 발현된다. 여기에서는 학습자의 태도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설계된 설문이 학습자들이 인지하는 장의 특수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통계적 방법론을 통해 분석하고, 학습자의 태도 형성에 배경이 되는 소설 교육의 장을 학습자가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 한다. 앞의 장에서 분석한 유의도 검정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응답 내용들에 어떠한 경향성이 나타났는지를 분석하였으며, 유의도 분석 과정과 마찬가지로, 장과 자원이 어떻게 취향과 연계되는지, 그리고 장/자원/취향이 독자로서의 자의식과 문학적 가치 부여와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1) 가정의 장에 따른 학습자의 취향 인식 양상

우선 학습자가 소설 교육의 장에서 영향을 받는 영역은 2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다음의 네 가지, 가정의 영역, 교육의 영역, 온라인의 영역, 또래 문화 영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가정의 영역은 가족 구성원인 부모나 형제와의 관계로, 이에 대한 학습자들의 인식은 설문 문항 1부의 6, 8번 문항에 대한 답변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해당 문항들에 대하여 취향 인식에 대한 문항들(도서 일반 취향, 소설 장르 취향, 선호 작가 및 작품, 불호 작가 및 작품, 인기 작품 및 평가)과의 유의도 검정을 수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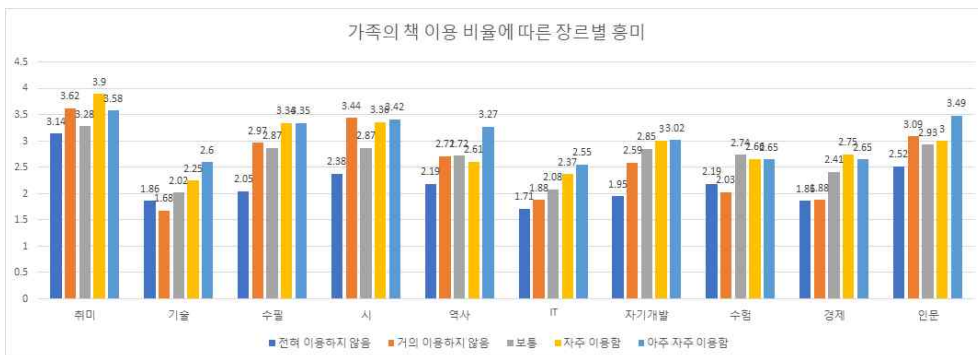
첫 번째로 1부 6번 문항은 책을 접하는 주변 환경에 대한 설문으로, 이

중 ‘집에 있는 가족의 책’ 항목에 대한 응답은 가정의 장이 해당 학습자에게 제공하는 독서 관련 인프라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을 포착하기 위한 문항이다. 해당 문항의 기술통계는 아래와 같다.

	응답수(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서점	234	1	5	3.56	1.127
도서관	234	1	5	3.42	1.259
지인	234	1	5	1.99	1.030
인터넷	234	1	5	3.38	1.262
웹연재물	234	1	5	2.83	1.452
가족	234	1	5	3.38	1.272

해당 문항에 대한 응답에서 가족의 도서 이용 빈도는 전체 경로 중 중간 정도로 나타났으며 표준편차 역시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가족의 책 이용 빈도는 도서 장르별 흥미도와의 유의도 분석에서 취미, 기술, 수필, 시, 역사, 예술, IT, 자기개발, 수험, 경제, 인문 분야에 대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해당 분야에 대한 응답 양상은 아래 그래프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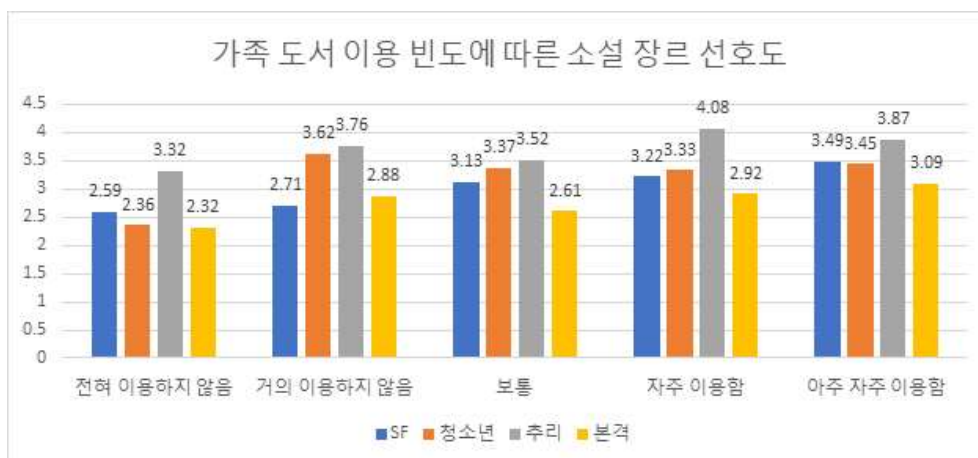


전반적으로 가족의 책을 접하는 빈도가 높아질수록 분야별 책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다. 가족의 책은 접근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좋아하는 분야일수록 이용률이 높은 것은 자연스러운 경향으로 보인다. 다만 취미나 시 분야에 대해서는 자주 접하는 학습자와 그렇지 않은 학습자 간 차이가 크지 않으며 오히려 자주 이용하는 학습자보다 그렇지 않은 학생이 더 높은 선호도를 보이기도 한다. 이것은 취미와 시 등의 주관적 감성의 영역에

대해서는 가족들과 취향이 비슷하지 않은 경우 가정 이외의 경로로 책을 접하게 되기 때문에 응답에 편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반면 기술, 역사, IT, 경제 등 전문 분야의 책에 대해서는 이용 목적이나 취향에서 가족들과 큰 차이를 느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볼 때, 학습자들은 가정의 장에 대한 영향력을 낮게 인식할수록 전문 분야의 책들보다는 취미나 시와 같은 자신의 취향에 대한 선호를 상대적으로 강하게 드러내며, 가족의 취향과 자신의 취향을 분리해서 인식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거의 이용하지 않음’으로 답변한 학습자의 응답 편차(0.69)가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는 ‘자주 이용함’의 응답 편차(0.50)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혀 이용하지 않음’(0.42)과 ‘아주 자주 이용함’(0.41)의 경우 응답 편차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으며, ‘보통’(0.39)이 가장 응답 편차가 작게 나타났다. ‘보통’이 가장 일관된 선호를 보였다는 점은 보통이라는 선택이 고민을 통한 인식 평가가 아니라 무관심이나 소극성의 표현일 수 있음을 짐작케 한다.

다음으로 소설 장르 선호도에서 가족 도서 이용 빈도와 유의도 분석 결과를 보면, SF, 청소년 소설, 추리소설,本格소설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그 양상은 아래 그래프와 같다.



위 그래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가족의 도서 이용 빈도가

높아질수록 선호도 총량이 증가하나, 추리와 청소년 소설 영역에서 ‘자주 이용함’과 ‘거의 이용하지 않음’ 응답자가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앞선 도서 일반 선호도와 마찬가지로 양 끝단과 가운데 보통을 제외한 나머지 ‘자주 이용함’과 ‘거의 이용하지 않음’을 선택한 응답자의 응답 경향에 편차가 크고 ‘자주 이용함’의 경우 ‘아주 자주 이용함’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며 선호표현의 편차가 더 큰 반면, ‘거의 이용하지 않음’의 경우 선호 패턴 자체가 상대적으로 더 차별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전체적인 응답 평균은 ‘보통’(3.15)이 ‘전혀 이용하지 않음’(2.64)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선호도를 보였으며 응답의 편차도 작다. 이는 앞선 문항에서 보인 경향성과 마찬가지로 ‘보통’의 선택이 별다른 의도 없는 소극성의 표현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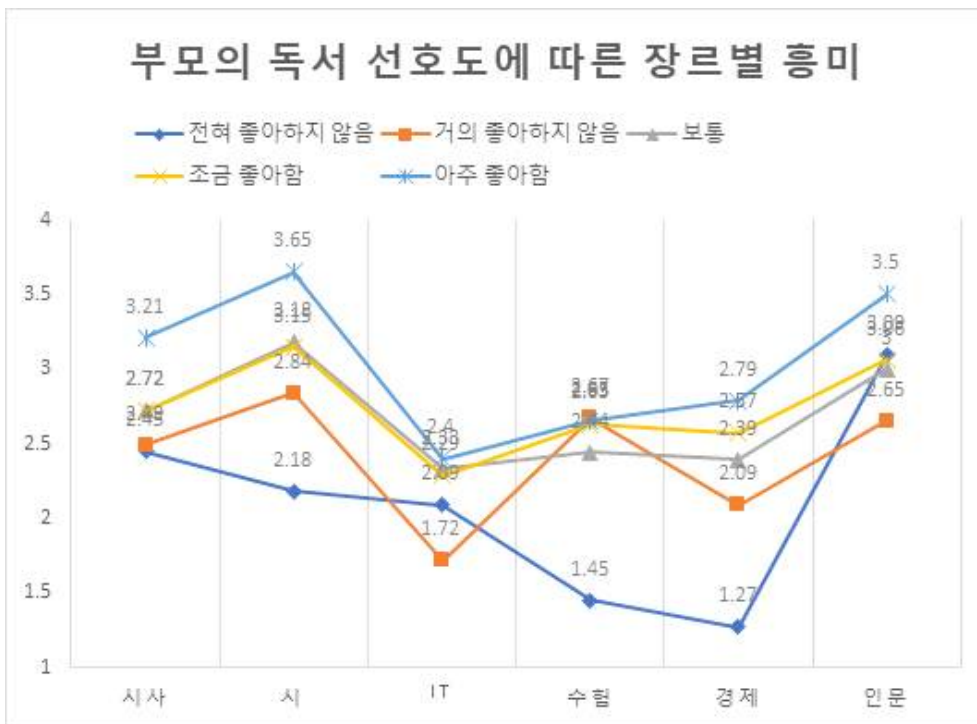
다음으로 취향 인식의 서술형 문항에 대한 가족 도서 이용 빈도와 유의도 분석을 수행하였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없이 응답이 균일하였다.

두 번째로 가정의 장에서 유의도 검정을 수행한 문항은 1부 8번으로, 이 문항은 주변 사람들의 독서에 대한 선호도를 묻는 문항이며 학습자 본인의 판단을 기준으로 1에서 5까지의 척도로 선호도를 평가하도록 되어있다. 답변 문항은 교사, 부모, 또래 친구, 형제자매의 네 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이중 가정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은 부모, 형제 항목에 대한 답변이다. 주변인들의 독서에 대한 적극성이나 관심, 다시 말해 주변인들이 가진 심리적 자원을 학습자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이며, 이는 객관적인 기준 없이 학습자가 느끼는 상대적인 주관에 따른 답변이므로, 학습자 본인의 문학에 대한 관심이나 문학 능력에 대한 답변들과 연계하여 스스로가 소설 교육의 장 안에서 주변인과 자신의 위상을 어떻게 상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항목이다. 이 항목에 낮은 수치로 답변을 할수록 해당 주변인은 독서에 관심이 없거나 독서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심리적 자원이 낮은 대상으로 인식한다고 볼 수 있다. 해당 문항의 기술통계는 아래 표와 같다.

	응답수(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교사	234	1	5	3.88	0.885
또래 친구	234	1	5	2.83	0.983
부모	234	1	5	3.45	1.150
형제자매	210	0	5	2.32	1.233

전반적으로 교사의 독서 선호도가 가장 높으며, 표준편차도 가장 적어 대부분의 응답자가 공통적으로 교사의 독서 선호도를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모의 경우 교사 다음으로 높는데, 표준편차가 상대적으로 높아 가정에 따라 부모의 독서 선호도에 편차가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이는 형제자매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보이는 경향으로 가정의 장이 갖는 다양성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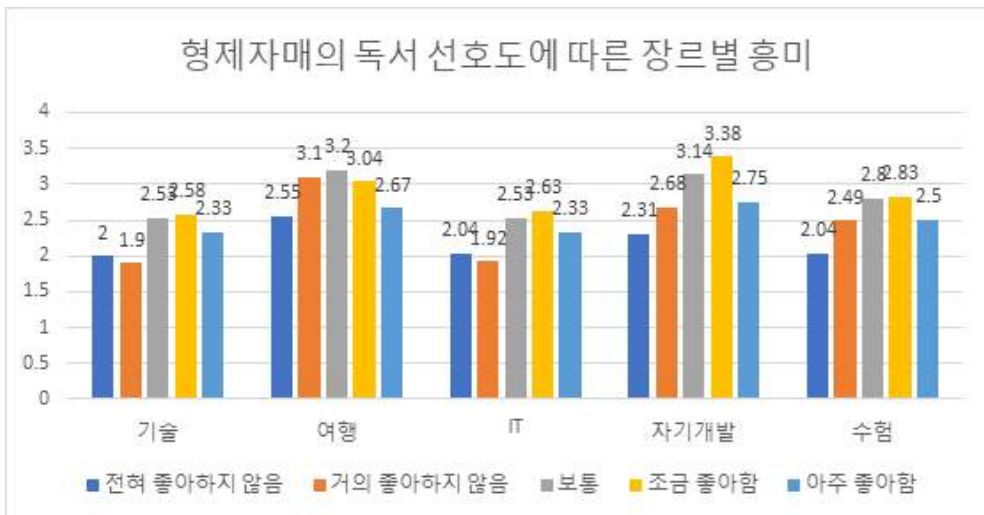
유의도 검정 결과 부모의 독서 선호도에 대하여, 시사, 시, IT, 수험, 경제, 인문 분야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그 평균 차이는 아래 그래프와 같다.



이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부모의 독서 선호도 인식이 높아질수록 해당

분야의 책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니, IT, 수험, 인문 분야에 대해서 부모의 독서 선호도를 낮게 인식하는 학습자가 해당 분야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위 그래프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보통, 조금 좋아함, 아주 좋아함’에서는 유사한 경향성이 보이는 반면, 부모의 독서 선호도를 낮게 인식하는 학습자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경향성을 보였다. ‘거의 좋아하지 않음’의 경우에는 ‘수험’ 서적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으며, ‘전혀 좋아하지 않음’의 경우에는 수험과 경제 등의 전문 실용서적의 선호도가 극단적으로 낮았고 인문 서적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나머지 세 유형이 ‘시’를 가장 선호장르로 꼽은 것과 대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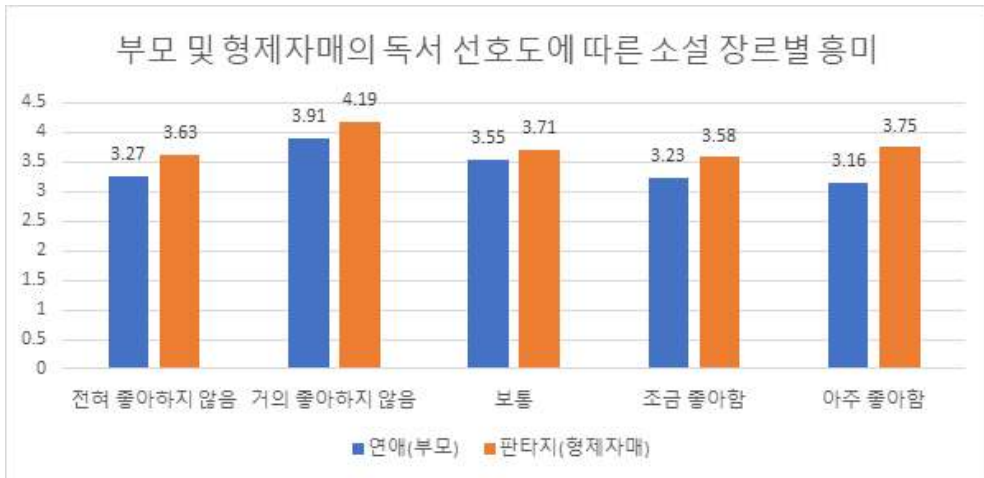
형제자매의 독서 선호도에 대한 유의도 검정 결과, 기술, 여행, IT, 자기개발, 수험 분야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그 평균 차이는 아래 그래프와 같다.



앞선 경우들과는 다르게, 여기에서는 형제자매의 독서 선호도를 높게 인식하는 학습자보다 ‘조금 좋아함, 보통’으로 응답한 학습자의 장르별 선호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형제자매의 독서 선호도에 대한 인식과 부모의 독서 선호도에 대한 인식을 학습자들이 차별화하여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며, 부모의 독서 선호도를 높게 인식하는 학습자들이 장르별 선호도가 높게 나온 것으로 보아 부모의 높은 독서 선호도는 학습자의 독자 선

호를 감화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비하여 형제자매의 선호도가 높은 경우 오히려 도서 장르 선호도가 낮아지는 응답 결과를 보면, 학습자는 형제자매의 높은 도서 선호도를 본보기로 삼기보다는 경쟁 대상으로 보아 상대적으로 자신의 성취를 저평가하는 근거가 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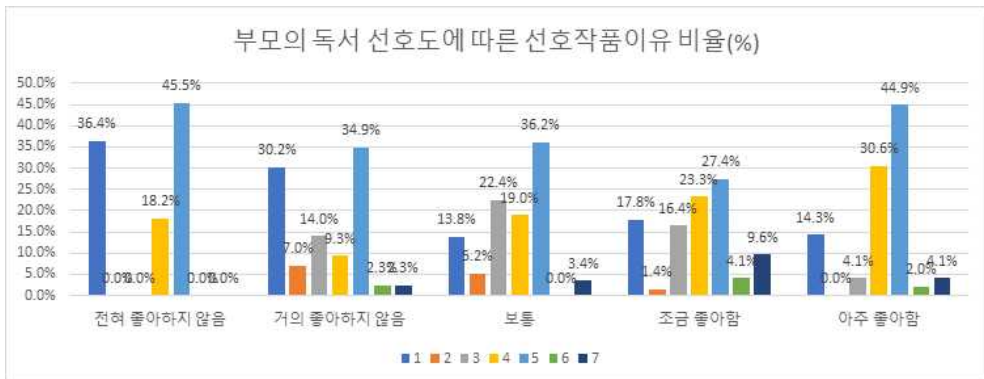
다음으로 소설 장르 선호도와 유의도 분석 결과를 보면, 부모의 도서 선호도와는 연애소설에서, 형제자매의 도서 선호도에서는 판타지 소설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응답의 양상은 아래 그래프와 같다.



두 경우 모두 부모 및 형제자매의 도서 선호도를 높게 인식하는 경우보다 낮게 인식하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더 높은 소설 장르 선호도를 보였다. 특히 '거의 좋아하지 않음'으로 답한 응답자들이 두 경우 모두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인 것으로 보아, 소설 장르의 선호도에 관하여 부모 및 형제자매의 선호와 자신의 취향을 별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호불호 취향과 관련한 서술형 응답과의 유의도 검정 결과, 부모의 도서 선호도의 경우 '선호작품이유'와 '불호작가(작품)이유'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형제자매의 도서 선호도의 경우 모든 부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아래는 '선호작품이유'의 서술형 응답을 유형화한 코드표와 유형별 응답비율 관련 그래프이다.

코드	응답유형	응답 비율(%)
1	무응답	19.2
2	자기지향적 응답(내 취향에 맞는다. 내 경험과 같다, 나와 동일하다. 등)	3.0
3	효용지향적 응답1(즐겁다. 재밌다. 시간가는줄 모르겠다. 쉽다(난이도) 등)	14.1
4	효용 지향적 응답2(교훈이 있다. 깨달음을 준다. 감동이 있다. 치유가 된다. 상식이 풍부해진다. 인상 깊다 등)	20.9
5	작품지향적 응답1(완성도, 구조, 현실 반영)	35.5
6	소통지향적 응답(공감이 된다. 독자와 소통한다. 솔직하다.	2.1
7	작품지향적 응답2(작가적 개성, 작품의 분위기 등)	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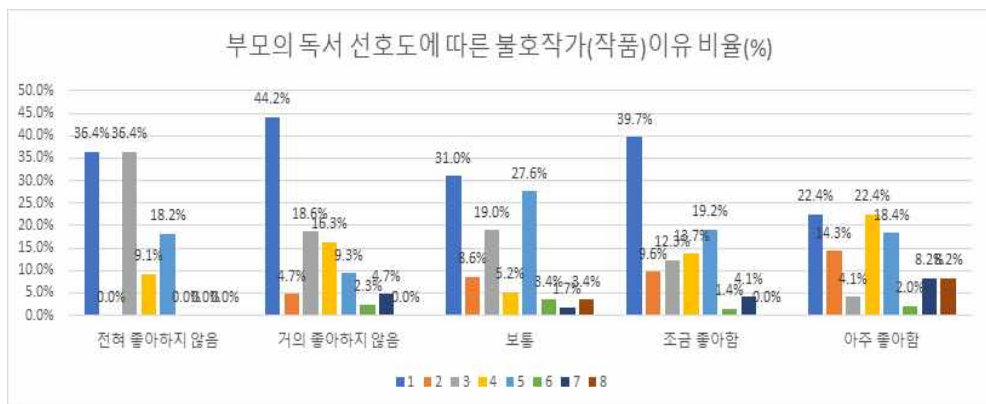
부모의 독서 선호도와 관련하여, ‘전혀 좋아하지 않음’과 ‘아주 좋아함’의 양 극단을 선택한 응답자의 경우 4번과 5번에 대한 응답 편중이 심하게 나타나는 데에 비하여 그 외 응답자는 응답의 편중이 상대적으로 적고 다양한 유형을 선택하였으며, 그중 3번(흥미 지향)과 2번(자기 지향)의 비율이 높다. 부모의 독서 선호도를 매우 높거나 낮게 인식할수록 작품의 우수성에 대한 평가 기준을 객관적 구조나 주제에 두며, 중간 그룹일수록 자기지향적 응답을 포함하여 좀더 다양한 판단기준을 보인다.

또한 부모의 독서 선호도를 낮게 인식할수록 무응답 비율이 크게 올라가며 이는 해당 응답자들의 독서 취향이 정립되지 않았거나 취향 표현에 소극적임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불호작가(작품)이유’의 서술형 응답 코드표와 응답비율 관련

그래프는 아래와 같다.

코드	응답유형	응답 비율(%)
1	무응답	34.6
2	자기지향적 응답(내 취향에 맞지 않는다. 등)	9.0
3	효용지향적 응답1(재미없다. 어렵다. 지루하다 등)	14.5
4	효용 지향적 응답2(감동이 없다. 의미가 없다. 쓸모가 없다. 사상편향적이다, 신파다. 판타지 등 현실논리에서 벗어나는 내용이다. 주제에 동의하지 못하겠다. 공공의 윤리에 어긋난다.(불필요한 성적 묘사) 등)	13.7
5	작품지향적 응답1(완성도가 낮다, 뻔하다, 구조적으로 단순하다. 개연성이 없다. 설득력이 없다. 불필요한 사족이 많다.	19.2
6	소통지향적 응답(독자를 배려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이 안좋다고 한다. 반대로 독자를 너무 의식하는 작품이다 등)	2.1
7	상대주의적 응답(모든 작품은 나름의 가치가 있다. 나쁜 작품은 없다. 등)	4.3
8	작품지향적 응답2(작가적 개성, 문제, 작품의 분위기 작품의 이미지 등)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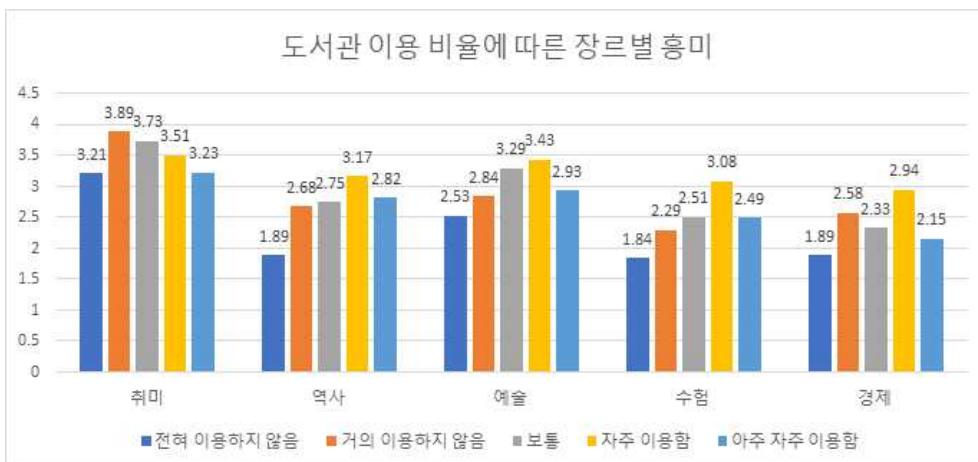


여기서는 앞의 결과와는 반대로 부모의 독서 선호도를 가장 높게 인식하는 응답자가 불호에 대한 다양한 이유를 선택하였으며, 그 외에는 모두 ‘무응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부모의 독서 선호도를 낮게 인식할수록 작품의 불호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흥미요소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아지며,

반대로 자기지향적 응답은 낮아진다. 앞의 선호이유와 대조해볼 때, 작품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할 때에는 객관적 근거에 초점을 맞추지만 부정적인 평가를 할 때에는 주관적 감상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교육의 장에 따른 학습자의 취향 인식 양상

교육의 영역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은 앞선 가정의 영역과 마찬가지로, I부의 6번의 도서관 이용 빈도 문항과 8번의 교사의 독서 선호도 문항에 대한 응답을 통해 그 양상을 짐작해볼 수 있다. 도서 장르 선호도에 대한 유의도 검정 결과 도서관 이용 빈도에 대한 응답은 취미, 역사, 예술, 수험, 경제 분야에 대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그 양상은 아래 그래프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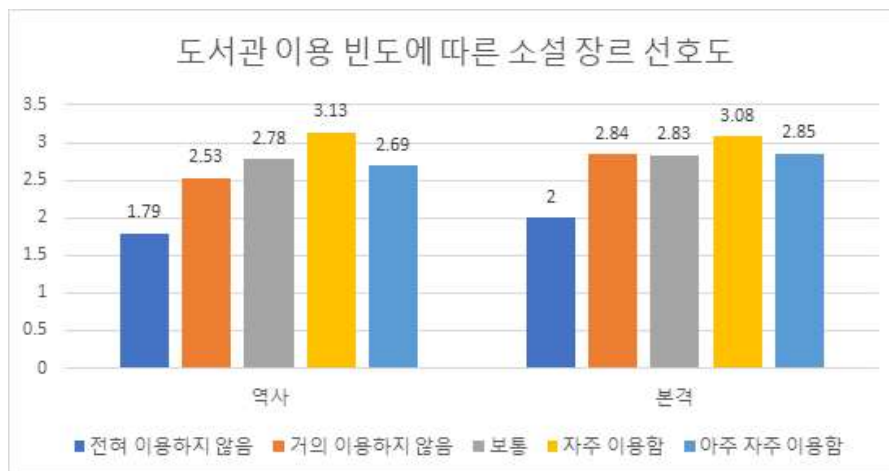


도서관 이용빈도와 장르적 선호와의 관계는 다른 변수들과는 차별적인 특수한 양상을 보이는데, 우선 이용률에 따라 흥미도가 비례하여 증가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대부분의 분야에서 가장 자주 이용하는 학습자보다 그렇지 않은 학습자의 장르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특히 취미 영역의 경우 자주 이용하지 않는 학습자의 선호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교육의 장에 마련된 도서 인프라를 자주 이용하는 학습자의 장르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보통이나 자주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습자의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은 학습자의 취향과 교육의 장의 도서 인프라 간에 어긋남이 있음을 보여준다. 자신의 취향 선호를 덜 드러내는 학습자가 도서 인프라를 더 자주 이용하고 자신의 선호를 드러내는 학습자들이 도서 인프라를 거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에서, 학습자들이 교육의 장에서 도서 인프라를 이용하는 것에 자신의 취향 이외의 의미 부여를 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자신의 취향과 긴밀한 관계없는 다른 목적, 말하자면, 교육의 장 안에서 문학적 위계가 높은 상태를 지향하는 코드로 도서관 이용을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한 현상이 역사, 예술, 수험, 경제 등의 전문 분야에 비하여 취미와 같은 개인의 주관적 취향에 관한 장르에서 더 뚜렷하게 드러난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교육의 장에서의 도서 이용을 자신의 취향과 별개로 인식하거나, 심지어 배타적인 관계로 인식하는 학습자의 경향성을 살펴볼 수 있다.

다음으로 소설 장르 선호도에 대하여 도서관 이용 빈도의 유의도를 검정한 결과 역사소설과本格소설에 대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그 양상은 아래 그래프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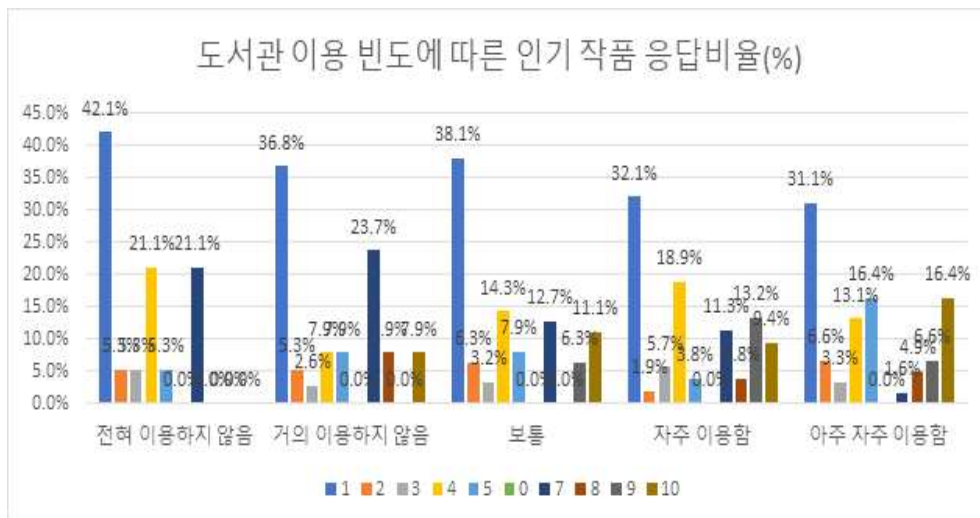


두 장르 모두에서 ‘자주 이용함’의 장르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용 빈도가 낮아질수록 장르 선호도가 낮아졌다. 이 부분에서도 아주 자주 이용한다고 답한 학습자의 선호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앞서 도서 일반에 대한 선호도에서 보였던 경향과 같은 맥락에서, 교육의

장에서 도서 인프라를 이용하는 것에 자신의 취향 외에 다른 가치부여를 하는 현상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호불호 취향과 관련한 서술형 응답과의 유의도 검정 결과, 도서관 이용 빈도의 경우 ‘인기 작품’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그 양상은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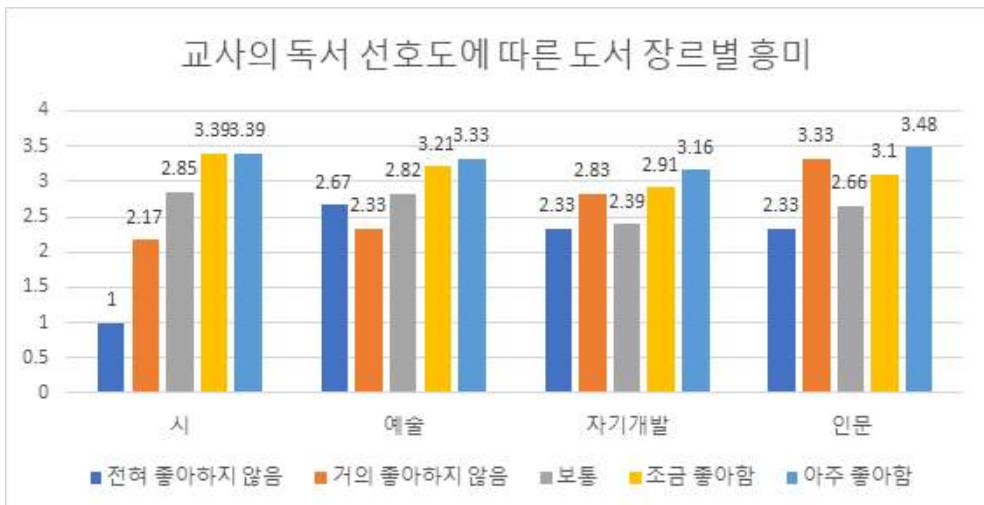
코드	응답유형	응답 비율(%)
1	무응답	35.0
2	SF	5.1
3	本格소설	3.8
4	판타지(장르소설, 라이트노벨)	14.5
5	추리(미스터리, 스릴러)	9.0
6	역사(고전소설)	0
7	연애	12.0
8	청소년(성장소설)	3.4
9	힐링, 감성,	6.4
10	서술형 응답	10.7



앞선 분석 결과들과 유사하게, 무응답의 비율은 이용 빈도가 낮아질수록 높아졌다. 무응답을 제외한 장르들 중에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장르는 판타지(14.5%)이며, 그 다음으로는 연애소설(12.0%)이다. 한가지 특이한 점은 장르나 구체적 작가, 작품으로 응답하지 않고 어떠한 작품이라는 서술

로 응답한 비율이 도서관 이용 빈도에 따라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는 점이다. 무응답의 양상과는 정 반대의 양상을 보이는 지점이며, 무응답의 무관심이나 소극적 대응과 구체적인 사례를 들지 못하더라도 서술을 통해 본인의 취향 인식을 표현하고자 하는 적극성이 대조적으로 드러난 응답 양상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교사의 독서 선호도와 도서 장르 선호도 간 유의도 검정 결과, 시, 예술, 자기개발, 인문 분야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그 양상은 아래 그래프와 같다.



시 장르에서는 교사의 독서 선호도 인식이 증가할수록 전체적인 장르별 흥미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며, 전체 평균으로 보아도 교사의 독서 선호도 인식이 증가할수록 장르 선호도도 증가한다. 전반적으로 교사의 독서 선호도를 가장 높게 보는 응답자들이 모든 장르에서 최고 흥미도를 보이며, ‘조금 좋아함’과 ‘보통’의 경우 ‘아주 좋아함’과 매우 유사한 패턴 보이면서 값만 작아지는 경향을 보이지만, ‘전혀 좋아하지 않음’과 ‘거의 좋아하지 않음’의 경우 인문이나 예술 쪽으로 도드라지는 흥미를 보이는 등 다른 경향성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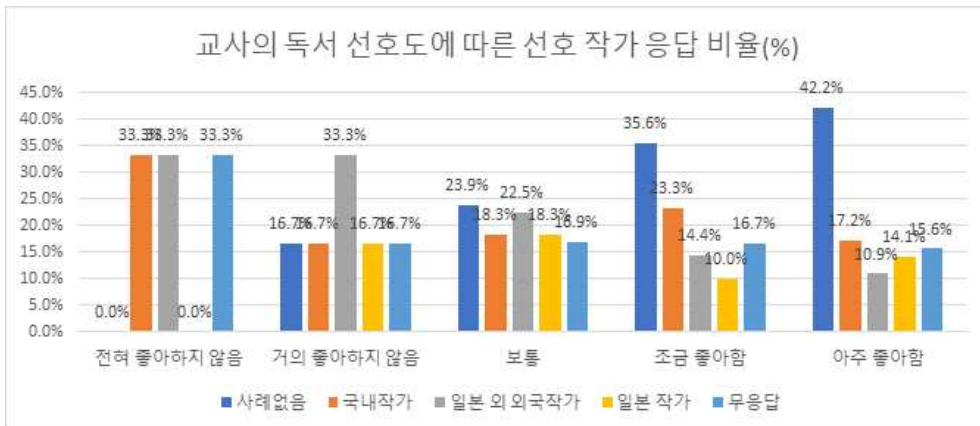
다음으로 소설 장르에 대한 흥미도에 대하여 교사의 독서 선호도의 유의도 검정을 수행한 결과, ‘본격 소설’에서만 아래 표와 같은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났다.

	전혀 좋아하지 않음	거의 좋아하지 않음	보통	조금 좋아함	아주 좋아함
본격 소설	1	2.5	2.77	2.76	3.09

다음으로 호불호 취향과 관련한 서술형 응답과의 유의도 검정 결과, 교사의 독서 선호도의 경우 ‘선호 작가’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그 양상은 아래와 같다.

코드	응답유형	응답 비율(%)
1	사례없음	32.9
2	국내작가	20.1
3	일본 외 외국작가	16.7
4	일본 작가	13.7
5	무응답	1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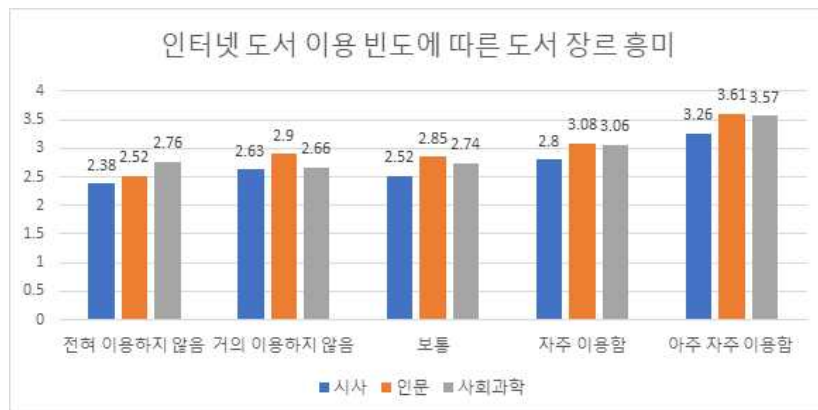
아무 응답을 하지 않은 ‘무응답’과는 달리 ‘사례없음’의 경우 직접적인 작가명을 거론하지 않고 어떤 작가를 좋아하는지 자신의 경향을 서술한 응답이며, ‘아주 좋아함’의 경우 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아 앞서 살펴보았던 바와 같이 자신의 문학적 취향을 표현하는 데에 더 적극적인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단, ‘사례없음’은 문학적 취향 표현의 적극성으로도 읽을 수 있지만 동시에 구체적인 사례로 대표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취향에 구체성이 떨어지는 상태를 보여준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이 ‘사례없음’에 대한 응답 비율은 교사의 독서 선호도 인식이 낮아질수록 낮아지는 명확한 경향성을 보인다. 또한 교사의 독서 선호도 인식이 낮아질수록 국내 작가보다 외국 작가 선호도가 높아지는 경향도 보인다.

(3) 온라인의 장에 따른 학습자의 취향 인식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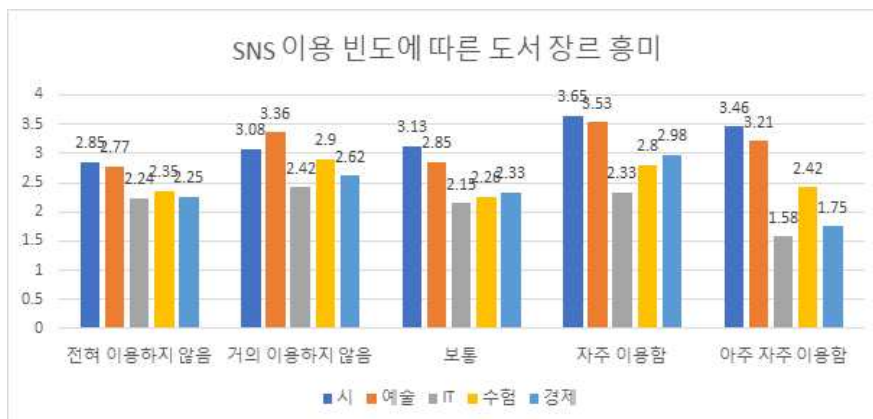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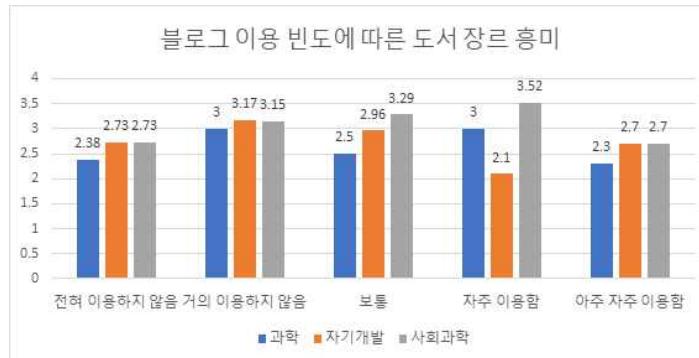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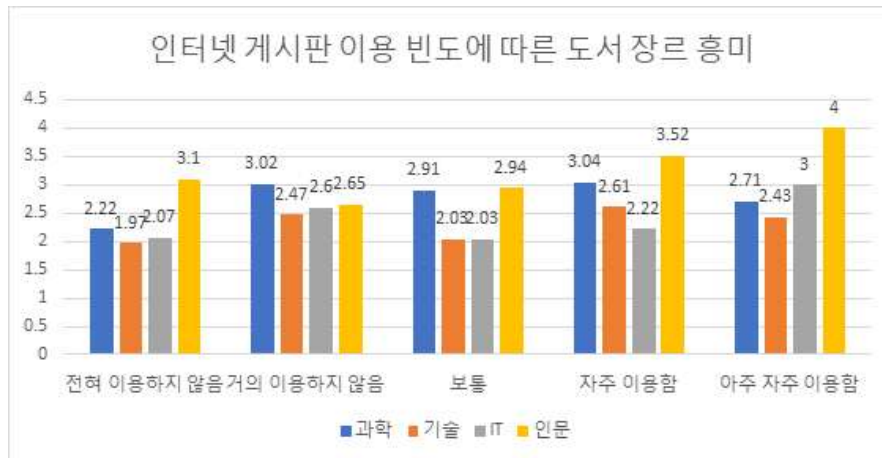
온라인의 장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은 I 부의 6번의 인터넷 및 웹 연재물 이용 빈도, I 부 10번에서 게시판, 블록, SNS, Youtube를 통한 소통 참여도 문항에 대한 응답을 통해 그 양상을 짐작해볼 수 있다.

우선 도서 장르 선호도에 대하여 유의도 검정 결과 인터넷 도서 이용 빈도는 시사, 인문, 사회과학 분야에서, 그리고 웹 연재물 이용 빈도는 취미 분야에서, 게시판 소통 참여도는 과학, 기술, IT, 인문 분야에서, 블로그 소통 참여도는 과학, 자기개발, 사회과학 분야에서, SNS 참여도는 시, 예술, IT, 수험, 경제 분야에서, Youtube 참여도는 여행, 수필, 소설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그 양상은 아래 그래프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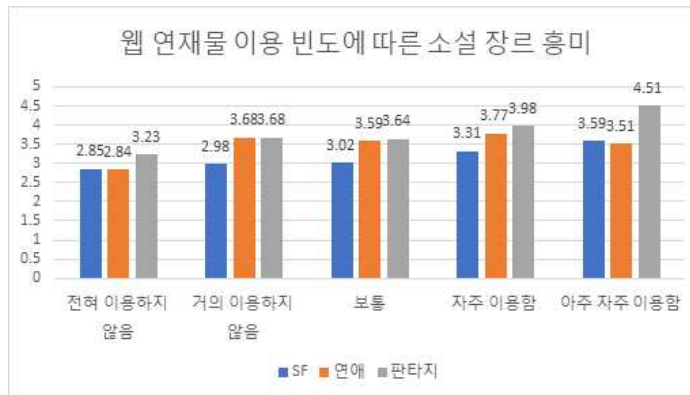
대체적으로 이용 빈도에 따라 흥미도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나, 이용 빈도가 낮아질수록 다른 패턴을 보인다.

웹 연재물 이용 빈도	전혀 이용하지 않음	거의 이용하지 않음	보통	자주 이용함	아주 자주 이용함
취미	3.08	3.32	3.8	3.85	3.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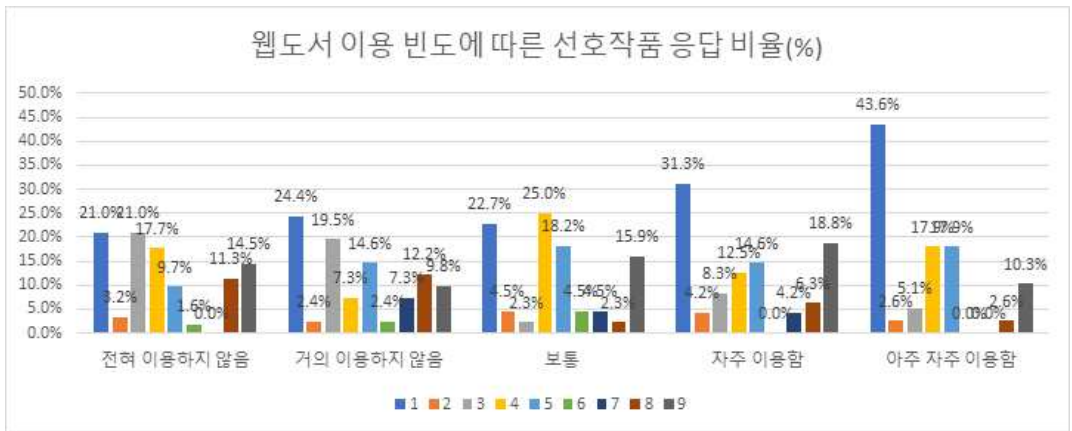
다음으로 소셜 장르 선호도에 대하여 유의도 검정 결과 웹 연재물 이용 빈도에 대해서만 SF, 연애, 판타지 장르에 대한 선호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다른 부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 양상

은 아래 그래프와 같다.



마지막으로 소설 호불호 취향에 대하여 유의도 검정 결과, 웹 연재물 이용 빈도에 대하여 선호 작품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블로그 소통 참여도에 대하여 선호작가, 인기작품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SNS 소통 참여도에 대하여 선호 작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 양상은 아래 그래프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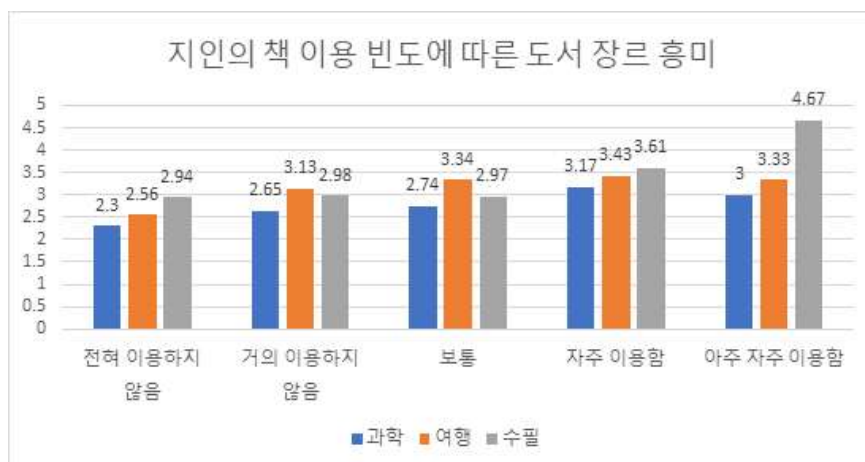
코드	응답유형	응답 비율(%)
1	사례없음	27.8
2	SF	3.4
3	本格소설	12.0
4	판타지(장르소설, 라이트노벨)	16.2
5	추리(미스터리, 스릴러)	14.5
6	역사(고전소설)	1.7
7	연애	3.0
8	청소년(성장소설)	7.3
9	무응답	14.1



(4) 포래문화의 장에 따른 학습자의 취향 인식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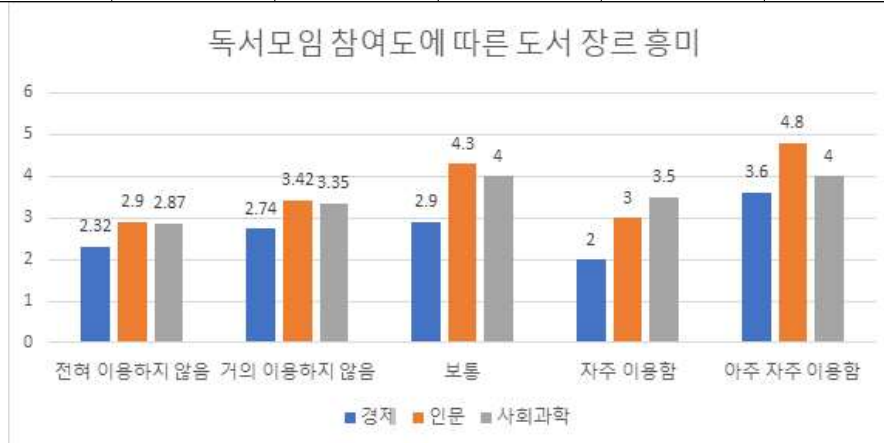
포래문화의 장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은 I 부의 6번의 지인의 책 이용 빈도, 8번의 포래친구 독서 선호도 인식, 10번의 오프라인 모임 소통 참여도에 대한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그 양상을 짐작해볼 수 있다.

우선 도서 장르 선호도에 대하여 유의도 검정 결과 지인의 책 이용 빈도는 과학, 여행, 수필 분야에서, 그리고 친구의 독서 선호도는 시 분야에서, 오프라인 독서모임 참여도는 경제, 인문, 사회과학 분야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그 양상은 아래 그래프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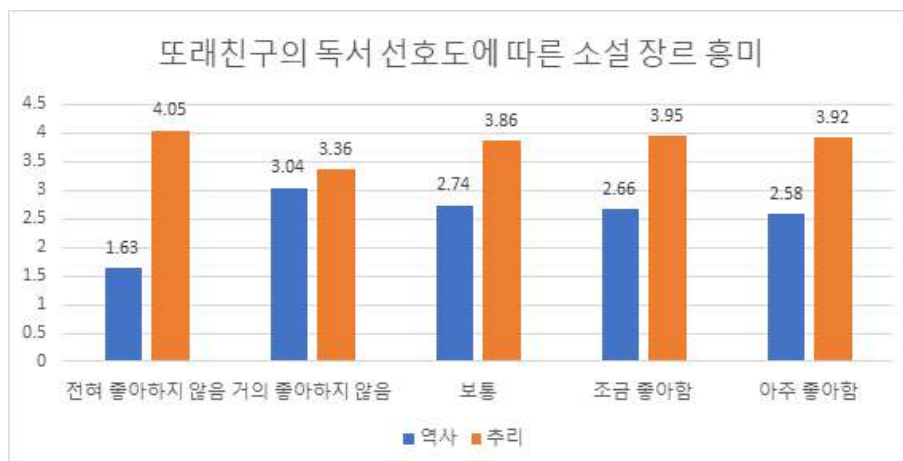
친구의 독서	전혀	거의	보통	조금 좋아함	아주 좋아함
--------	----	----	----	--------	--------

선호도	좋아하지 않음	좋아하지 않음			
시	2.47	3.24	3.38	2.98	2.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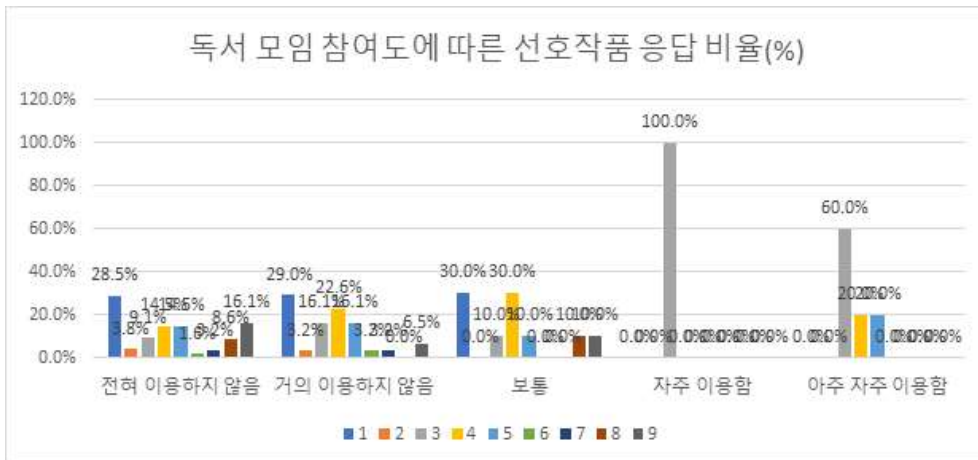
다음으로 소설 장르 선호도에 대하여 유의도 검정 결과 지인의 책 이용 빈도는 SF 분야에서, 그리고 친구의 독서 선호도는 역사, 추리 분야에서, 오프라인 독서모임 참여도는本格 소설 분야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그 양상은 아래 표 및 그래프와 같다.

	전혀 이용하지 않음	거의 이용하지 않음	보통	자주 이용함	아주 자주 이용함
SF	2.32	2.74	2.9	2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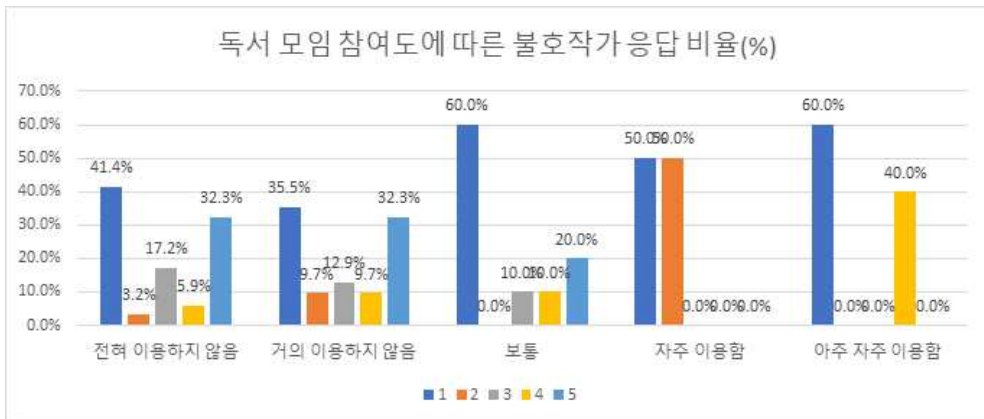


독서 모임 참여도	전혀 이용하지 않음	거의 이용하지 않음	보통	자주 이용함	아주 자주 이용함
본격	2.69	3.13	3.60	3.50	4.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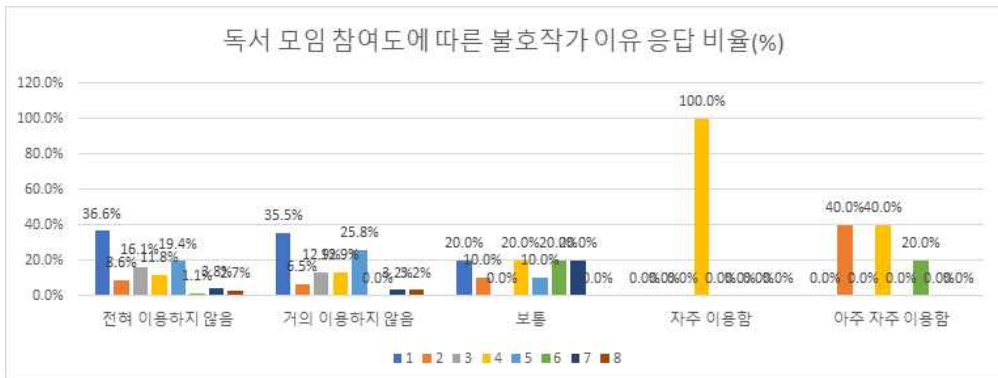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소설 호불호 취향에 대하여 유의도 검정 결과, 지인의 책 이용 빈도와 또래친구 독서 선호도에 대해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독서 모임 참여도에 대해서만 선호작품, 불호작가, 불호이유, 인기작품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 양상은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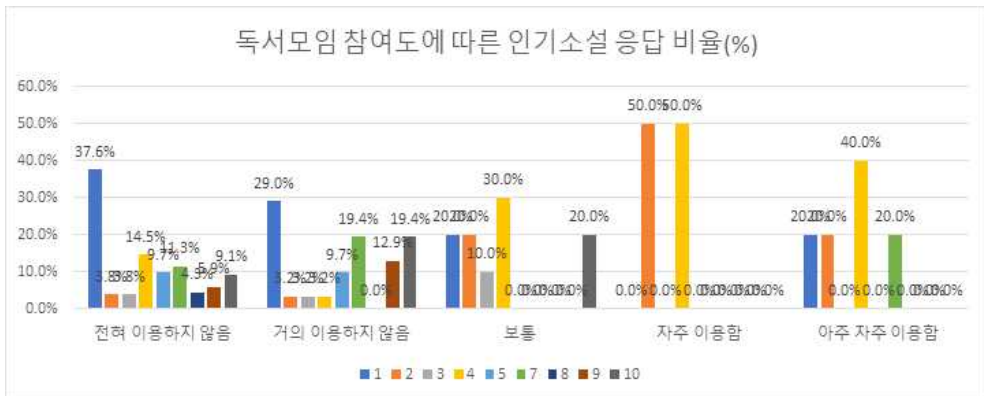
이 경우에서, 독서모임을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습자가 80%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자주이용함, 아주 자주 이용함을 선택한 응답자가 2명, 5명으로 그 수가 너무 작아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해석을 하기 어렵다. 다만, 어느정도 응답 숫자가 확보된 ‘전혀 이용하지 않음’부터 ‘보통’까지의 응답 유형에서는 참여도가 높아질수록 ‘판타지’ 장르의 선호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학습자들의 독서 모임은 그 수가 매우 적으며 장르문학 등의 특정한 취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불호작가의 경우에도 아래 ‘전혀 이용하지 않음’부터 ‘보통’까지의 응답에서는 참여도가 높아질수록 무응답 비율이 줄어들면서 서술식 응답 비율이 늘어나는 경향성을 보인다.



불호작가 이유에 대한 응답에서는 ‘전혀 이용하지 않음’부터 ‘보통’까지의 응답에서 참여도가 높아질수록 주제 중심의 이유를 들고, 낮아질수록 재미, 흥미 요소를 이유로 드는 경향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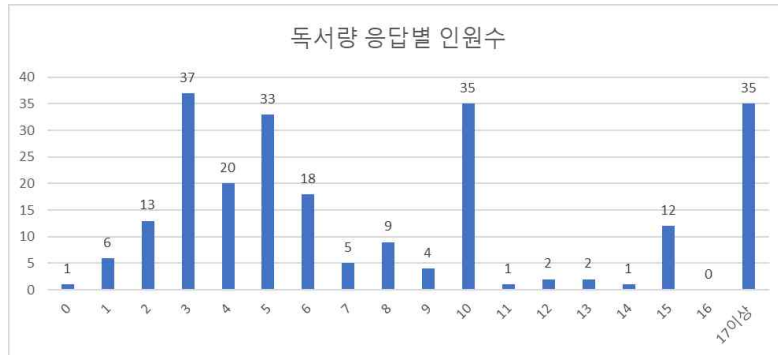


2) 자원의 양상

앞서 설문 문항 분석을 통해 소설 교육의 장을 구성하는 4가지 영역이 학습자에게 어떻게 인식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소설 교육의 장 안에서 작용하는 자원의 양상을 학습자가 어떻게 인식하고 구조화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소설 교육의 장 안에서 작용하는 자원은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가 지식 자원으로, 이는 객관적인 지식이나 작품에 대한 논리적, 구조적 접근과 해석을 할 수 있는 문학적 능력의 바탕이 되는 지식적 기반을 말한다. 두 번째가 심리적 자원으로, 이는 학습자 스스로가 자신의 문학적 신념이나 정체성에 얼마나 자존감을 가지고 있느냐와 관계된 자원이다. 세 번째는 사회적 자원으로, 문학의 향유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관계에 관련된 자원이다.

앞의 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지식 자원에 대해서는 독서량 문항을 지표로, 심리적 자원은 학습자와 주변인 간의 독서 선호도 인식 차이로, 사회적 자원은 문학적 소통에의 참여도로 지표화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변수에 따른 경향성을 보다 일관되게 살펴보기 위하여 각 자원들의 수치를 2~4개의 급간으로 구별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지식 자원에 해당하는 소설 독서량의 경우 월등히 많은 숫자로 응답한 몇몇 학생이 있어 위 그래프와 같이 응답에 편차가 크며, 그렇기에 전체 평균값은 13.25지만, 중위수는 6이다. 중위수를 기준으로 하여 전체 인원수를 사분하였을 때, 0~3권(하), 4~5권(중하), 6~10권(중상), 11권 이상(상)의 네 급간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상’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상위집단으로 분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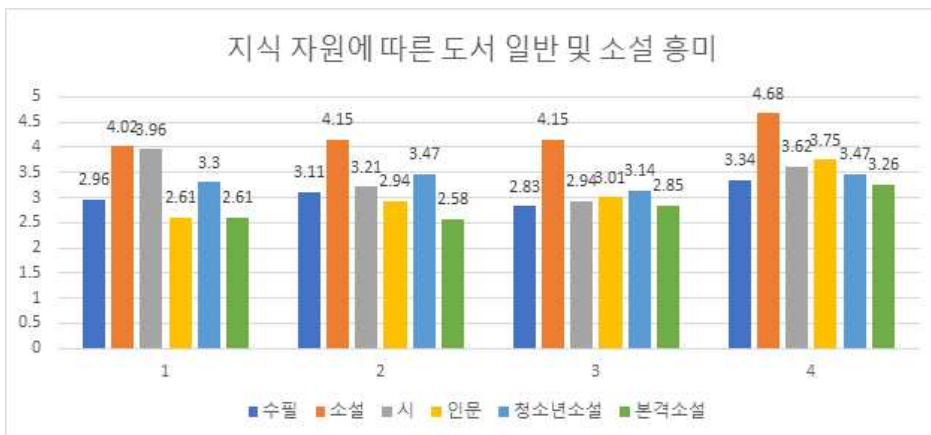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구별한 각 자원별 급간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지표	최소값	최대값	평균	중위수	급간
지식 자원	독서량	0	400	13.25	6	0~3권(하), 4~5권(중하), 6~10권(중상), 11권 이상(상)
심리적 자원	주변인과 독서 선호도 차이	-2.5	3.25	0.48	0.5	-2.5~-0.25(하), -0.24~0.5(중하), 0.51~1.00(중상), 1.01~2.25(상)
사회적 자원	독서 소통 여부	1	2	-	-	예/아니오 응답으로, 아니오는 (하), 예는 (상)으로 구분
	기타 소통 평균	1.00	4.17	1.95	1.83	1~1.17(하), 1.18~1.83(중하), 1.84~2.33(중상), 2.34~4.17(상)
	추천에 대한	0	4	2.12	2.00	0~1(하), 2(중하), 3(중상), 4(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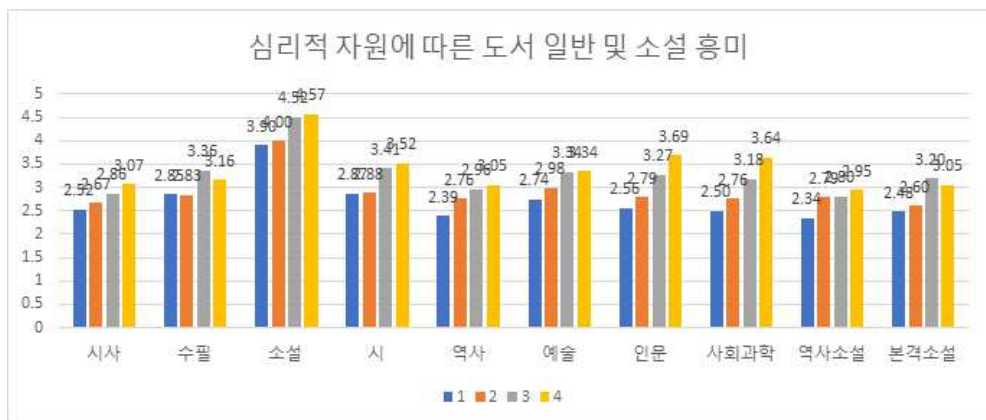
	주변인 반응					
--	-----------	--	--	--	--	--

여기에서 사회적 자원에 해당하는 지표를 세 가지로 설정하였는데, 그중 독서소통 여부와 기타 소통 평균의 경우에는 사회적 소통에 대한 적극성을 나타내는 지표이나, 추천에 대한 주변인 반응의 경우에는 사회적 소통에 대한 평가적 인식을 나타내는 지표로 두 부류의 지표들 간에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었다. 다시말해 세 지표 모두 사회적 소통에 관계되는 지표이나, 사회적 소통에 적극적이면서 주변인들과 공감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는 인식을 보이는 학습자가 있는 반면, 소통에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그 사회구성원이 자신의 취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보이는 학습자가 있었다. 이러한 취향 인식의 차이는 이후 논의에서 학습자 집단 구분에 반영하였다.

취향의 각 문항들과 유의도 검정을 수행한 결과, 우선 도서 일반 및 소설 장르 선호도와 관련하여, 지식 자원의 측면에서는 수필, 소설, 시, 인문 관련 도서와 청소년소설, 본격소설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심리적 자원의 측면에서는 소설, 시, 역사, 예술, 인문, 사회과학 관련 도서와 역사소설, 본격소설에서 유의한 차이가 타나났으며, 사회적 자본과 관련해서는 여행, 수필, 소설, 시, 예술, 인문, 사회과학 관련 도서와 SF, 본격소설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 양상은 아래와 같다.



전반적으로 지식 자원이 많을수록 장르 선호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나, 수필에서는 그 차이가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나며, 시와 청소년소설 장르에서는 지식 자원이 낮은 응답자가 더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반면 인문 서적이거나 본격소설과 같이 난이도가 있는 장르의 경우에는 지식자원의 수준과 선호도가 비례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지식자원의 모든 급간 중에 가장 높은 4급간의 선호도 평균이 가장 높고, 3급간의 선호도 평균이 가장 낮았으며, 오히려 1, 2급간의 평균이 3급간보다 높았다. 이는 지식 자원의 경우 자신을 3급간으로 인식하고 있는 학습자들이 앞서 논의했던 실행 프티 부르주아적인 특성을, 1, 2급간으로 인식하는 학습자들이 신흥 프티 부르주아적인 특성을 보이는 양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3급간의 학습자들은 지식자원의 급간 안에서 지배적 급간에 소속되지 못했다는 자기 인식을 바탕으로 보다 4급간 학습자와 유사한 패턴을 지향하면서 동시에 보다 소극적인 독서 선호도를 보이는 반면, 1, 2급간 학습자의 경우 지식 자원의 급간 안에서의 상승욕구보다는 자신의 주관적 선호에 보다 집중하여 4급간과 다른 취향 유형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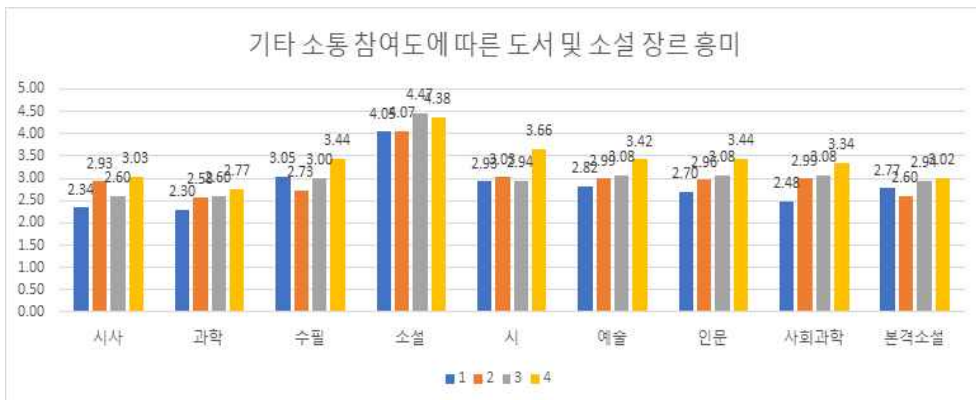


전반적으로 심리적 자원이 높을수록 장르 선호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나, 지식 자원과 다른 경향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데, 가장 높은 급간의 학습자와 바로 아래 학습자 간 차이가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지식자원의 경우 가장 높은 급간의 학습자와 바로 아래 급간 학습자 간 선호도 평균 차이가 0.54이며, 3급간의 학습자가 선호도 평균이 모든 급간 중 가장

났다. 반면 심리적 자원의 경우 가장 높은 4급간과 바로 아래 3급간 간 평균 차이는 0.11에 불과하며 3급간이 4급간에 이어 두 번째로 선호도 평균이 높다. 또한 소설, 시, 역사, 예술 장르에서 4급간과 거의 비슷한 선호도를 보이며, 수필과本格소설의 경우 4급간보다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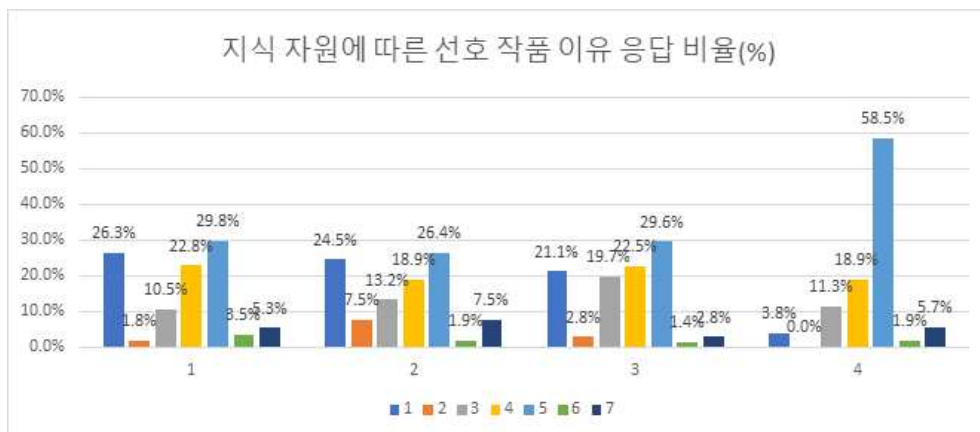
사회적 자원과 관련하여, 소통 여부에 따라서는 위 그래프와 같이 소통을 한다고 응답한 학습자들의 도서 및 소설 장르 선호도가 일관되게 높게 나타났다.



기타 소통 참여도에 따라서는 위 그래프와 같은 경향을 보였는데, 전반적으로 소통을 많이 할수록 선호도가 높아졌지만, 소설 장르 일반과本格 소설에서 3급간의 학습자가 4급간 학습자보다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또한 가장 참여도가 낮은 1급간의 학습자들은 대부분 다른 급간보다 낮은

선호도를 보였으나, 수필과 본격소설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그 외 사회적 자원으로 ‘자신의 추천에 대한 주변인의 반응 인식’ 부분에서는 모든 장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음으로 작가와 작품에 대한 호불호 취향 부분에서는, 지식 자원에 대하여 ‘선호 작품 이유’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심리적 자원에 대해서는 ‘선호 작가, 선호작가 이유, 선호 작품, 불호 작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회적 자원(소통여부)에 대해서는 ‘선호작가, 선호작가 이유, 선호 작품 이유, 인기 작품’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기타소통에 대해서는 ‘선호 작가’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자신의 추천에 대한 주변인 반응 인식에 대해서는 ‘불호 작가’를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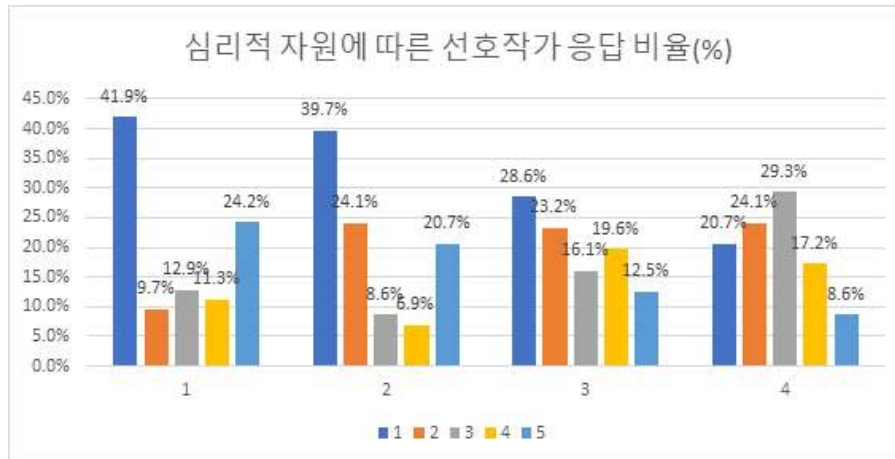
먼저 지식 자원과 관련하여 위 그래프와 같은 경향성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지식자원이 낮아질수록 1번 ‘무응답’의 비율이 높아졌다. 가장 높은 4급간의 경우 다른 급간에 비해 5번 ‘작품지향적 응답(구조적 완성도)’ 응답 비율이 월등히 높았으며, 자신의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면서 작품의 구성, 구조적 완성도, 현실에 대한 찡찡한 반영, 작가만의 독특한 개성 등 작품이 가진 객관적 요소와 특징을 자신의 선호의 이유로 들었다. 2번 ‘자기지향적 응답’을 선택한 경우가 전무하다는 점에서 객관성을 지향하는 성향이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다른 급간에서도 5번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다른 응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차이를 보였다. 3급간의 경우 상대적으로 4번 ‘효용지향적 응답2(주제의식, 교훈, 깨달음, 감동 등)’ 응답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3번 ‘효용지향적 응답1(재미, 흥미, 몰입, 낮은 난이도 등)’에 대한 응답 비율이 모든 급간 중에 가장 높았다. 4급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품의 주제의식, 감동, 깨달음 등의 요소와 재미, 흥미 등 본인이 주관적으로 즐길 수 있는 효용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이는 3급간이 지식 자원을 지향하지만, 그로인해 발생하는 독서의 난이도에 대해 회피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향이 어떤식으로든 자신을 즐겁게 몰입시켜 독서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품을 선호하는 취향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2급간의 경우 다른 유형들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거나, 상대적으로 2번 ‘자기지향적 응답’이 모든 급간 중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는데, 이 선택지는 자신이 좋아하는 소재, 자신의 관심사, 자신이 했던 경험 등과 동질성을 갖는 작품에 대한 선호를 의미한다. 다른 급간에 비하여 자기중심적인 경향을 보이며, 작품의 구조에 대한 객관적 판단에 해당하는 5번 유형의 응답이 모든 급간들 중에 가장 적었다. 7번 ‘작품지향적 응답2(작가적 개성, 작품의 이미지 등)’에 대한 응답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이는 자신의 취향이나 이미지를 구조적인 근거보다는 직관적 이미지로 설명하는 경향으로, 자신의 주관적 취향을 중요시하는 경향과 유사한 맥락에 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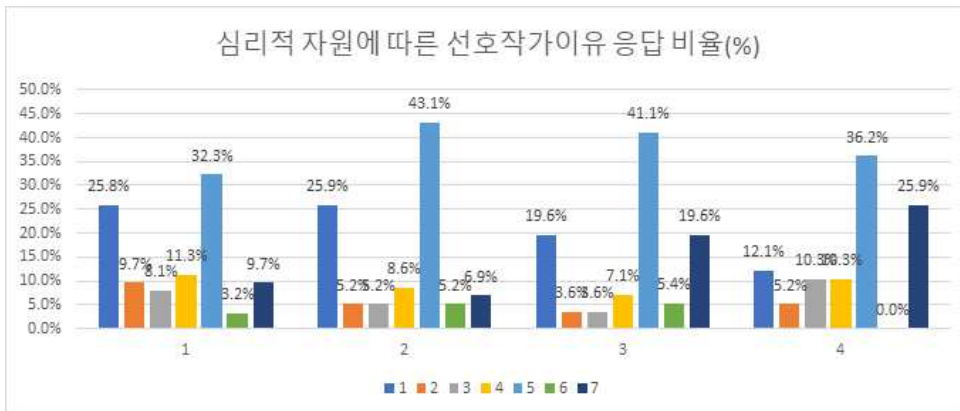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1급간의 경우 무응답 비율이 가장 높고, 3번 ‘효용지향적 응답1(재미, 흥미)’에 대한 응답이 모든 급간 중 가장 낮아 소설 독서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흥미를 잃은 모습을 보인다. 상대적으로 6번 ‘소통지향적 응답’이 모든 급간들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는데, 이는 작품이나 작가가 독자를 얼마나 배려하는가, 어떻게 공감을 만들어내는가, 작가가 솔직하고 진실된 이야기를 담는가 등의 응답을 포괄하는 항목이다. 1급간은 쉽고 친절하게 자신에게 설명하고 말을 걸어주는 작품에 대한 선호를

보이며, 이는 지식 자원이 가장 낮다고 스스로 인식하는 것에서 기인하는 소극적인 소통 지향의 태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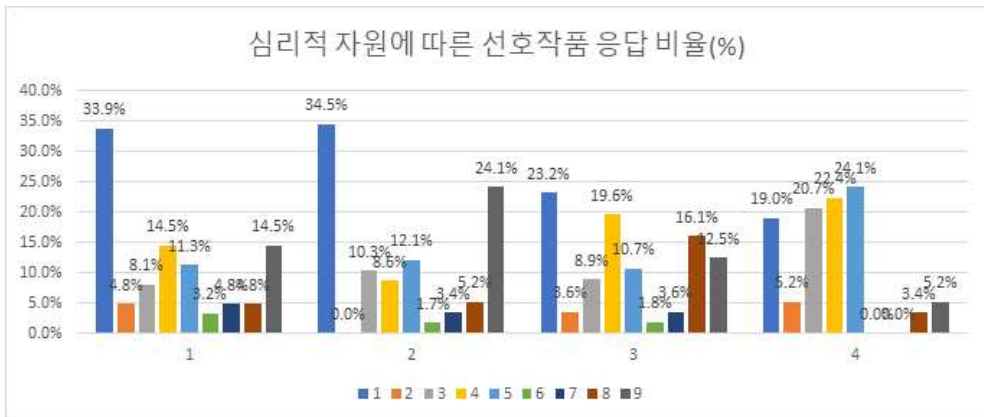


다음으로 심리적 자원의 경우, 우선 선호작가에 대한 응답에서 위 그래프와 같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심리적 자원이 낮아질수록 아예 응답을 하지 않는 5번 ‘무응답’의 비율과 구체적 작가를 응답하지 않고 성향을 서술하는 1번 ‘사례없음’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무응답의 경우와는 다르게 사례없음의 경우는 앞서 교육의 장 논의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취향 표현의 적극성과 취향의 막연함을 동시에 나타내는 응답이며, 여기에서는 문학에 대한 심리적 자원이 낮은 학습자이기에 후자의 경향이 좀더 도드라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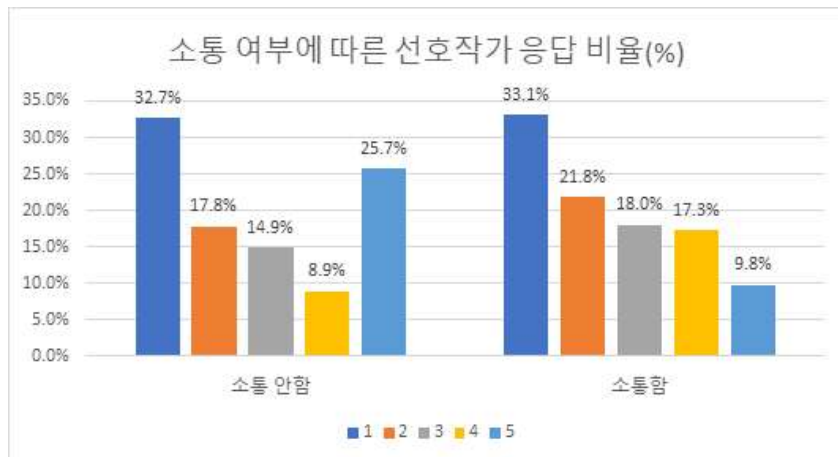
심리적 자원이 가장 높은 4급간의 경우 3번 일본 외 외국 작가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며, 4번 일본 작가에 대한 선호도까지 합치면 국외 작가에 대한 선호도(46.6%)가 국내 작가 선호도(24.1%)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3급간의 경우에는 3번에 대한 응답이 크게 줄어들기는 했으나, 여전히 국외 작가에 대한 선호(35.7%)가 국내작가(23.2%)보다 훨씬 높다. 반면 2급간의 경우에는 국외작가에 대한 선호(15.5%)가 대폭 감소하고 국내작가에 대한 선호(24.1%)가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이는 학습자의 심리적 자원과 국외 소설 선호 취향 간에 유의미한 연관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심리적 자원에 따른 선호작가이유 응답 비율을 보면, 모든 급간에서 5번 ‘작품지향적응답1’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며, 여기에서도 심리적 자원이 낮을수록 1번 ‘무응답’ 비율이 높아진다. 반면, 7번 ‘작품지향적응답2’의 비율은 심리적 자본이 높아질수록 대체로 높아지는 경향성을 보인다. 7번은 작품지향적 응답이되, 작품의 구조와 같은 객관성을 지향하는 5번과는 달리 작가적 개성, 작품의 이미지, 분위기 등 다소 주관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유형의 응답이다. 심리적 자원이 가장 높은 4급간의 경우 5번에 대한 응답 비율이 2, 3급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으며, 재미, 흥미, 몰입도 등을 포괄하는 3번 ‘효용지향적 응답1’에 대한 응답 비율이 모든 급간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중간 급간인 2, 3급간에서는 5번 ‘작품지향적 응답1’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른 급간들에 비해 6번 ‘소통 지향적 응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1급간의 경우에는 2번 ‘자기 지향적 응답’의 비율이 모든 급간 중에 가장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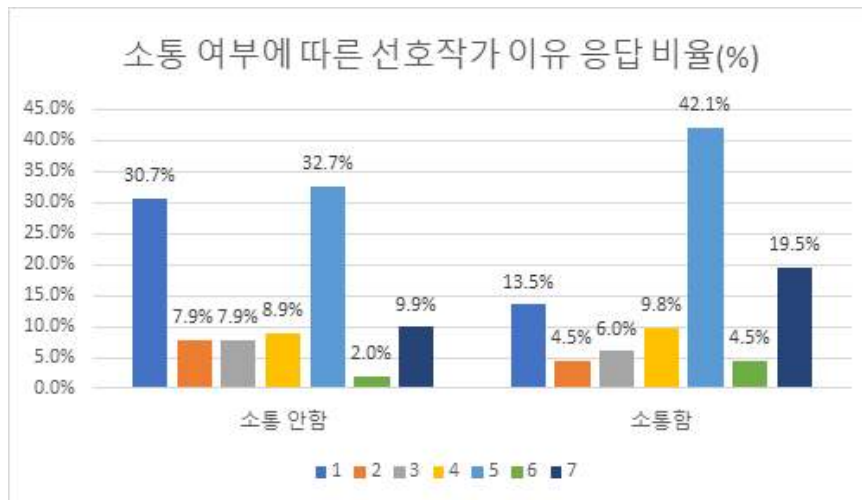


심리적 자원에 따른 선호 작품 응답 비율에서는 위 그래프와 같이 급간에 따라 다른 선호 유형을 보였다. 4급간의 경우 추리 소설을 선호작품으로 가장 많이 응답했으며, 그 다음으로 판타지 소설,本格소설을 꼽았다. 3급간의 경우 다른 장르에 비해 청소년소설의 응답 비율이 매우 높았다. 2급간의 경우 무응답 비율이 모든 급간 중 가장 높았으며, 응답한 사례 중에서는 추리 소설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1급간은 판타지 소설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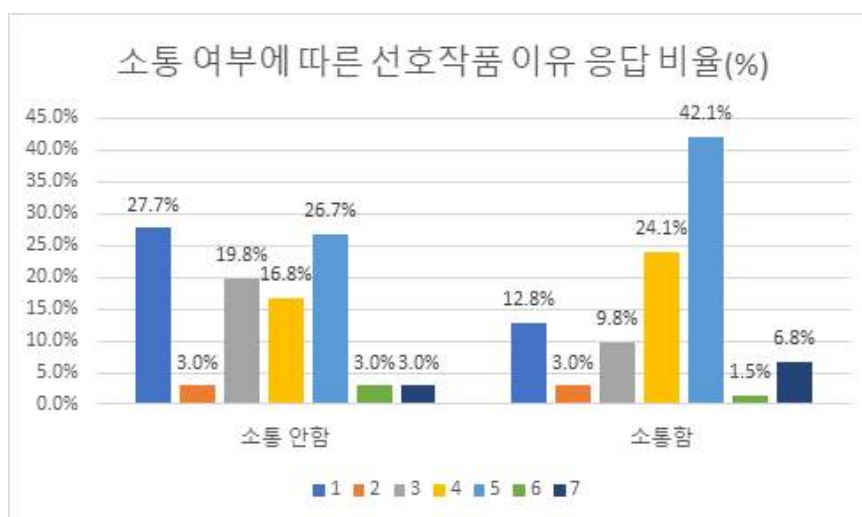


다음으로 사회적 자원의 ‘소통 여부’에 따른 선호 작가에 대한 응답 결과는 위 그래프와 같다. 소통을 하지 않는다고 답한 학습자의 경우 5번 ‘무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두 경우 모두에서 국외 작가를 국내 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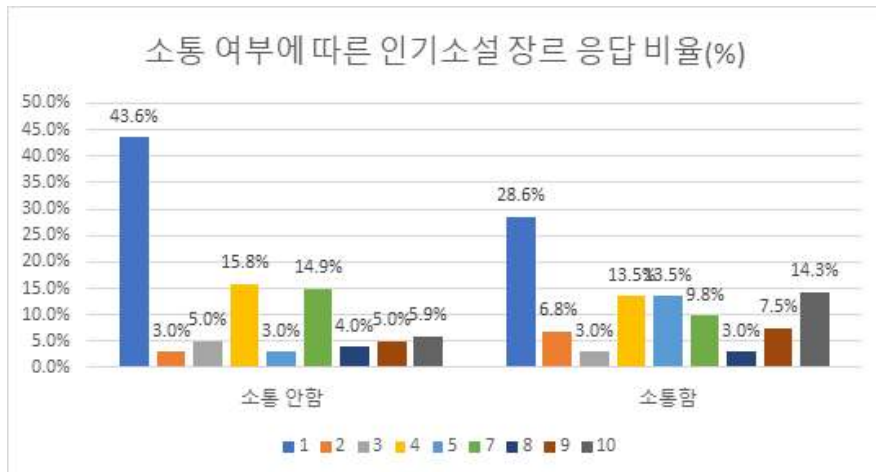
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앞선 심리적 자원의 경우와는 달리 소통을 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국내 작가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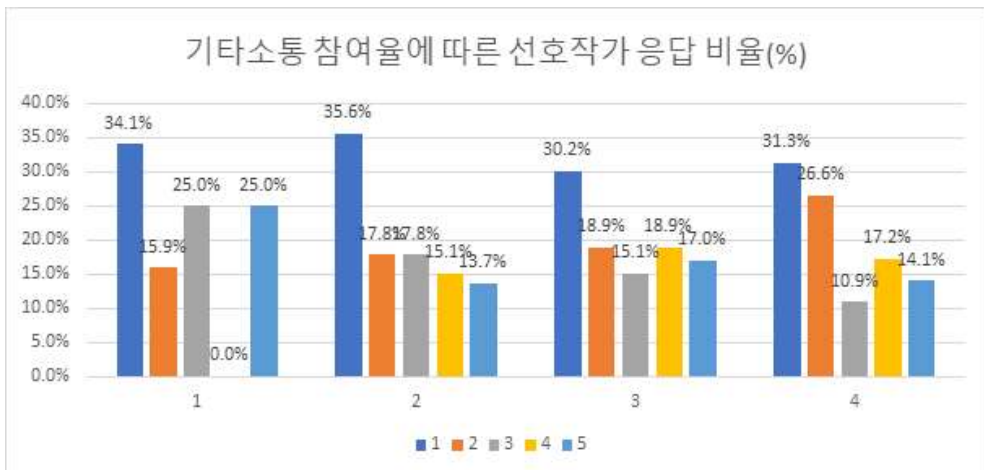
선호작가 이유에 대해서는 두 경우 모두 5번, 작품의 구조적 완성도를 주된 이유로 들었다. 그 외 응답에서 상대적으로 소통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1번 ‘무응답’ 비율이 높았으며, 소통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7번, 작가의 개성이나 작품의 이미지 등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았다.



선호작품 이유 응답 비율에서는 소통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작품의 구조적 완성도에 해당하는 5번이 가장 많았으며 주제의식 및 교훈에 해당하는 4번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소통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3번, 재미와 몰입을 상대적으로 많이 선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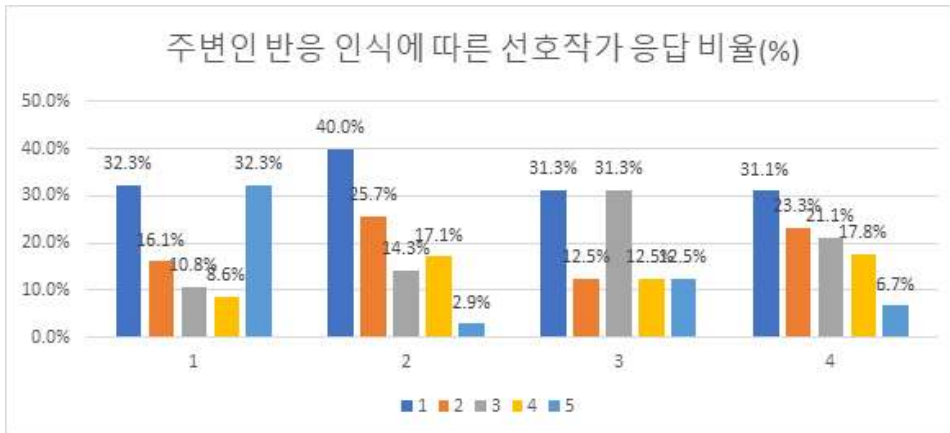


인기소설 장르에 대해서는 추리소설에 대한 응답 비율이 크게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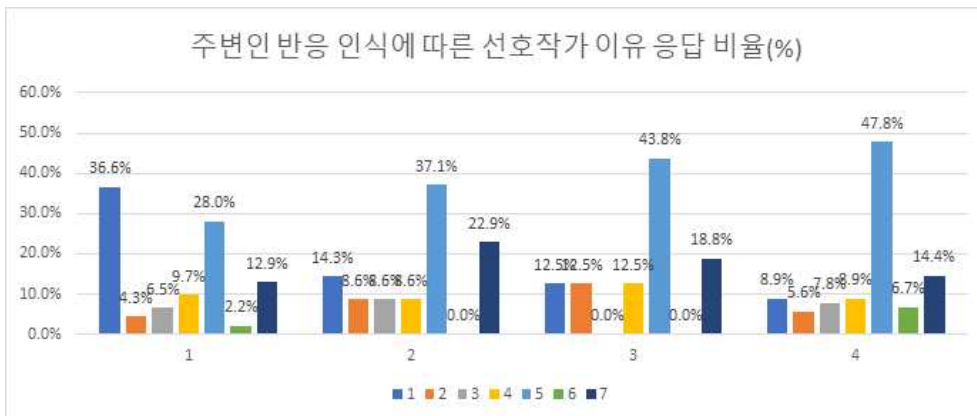


기타소통 참여율에 대하여 선호작가 응답비율에서는 위 그래프와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여기에서도 앞선 ‘소통 여부’의 응답 비율과 유사하게 ‘국내 작가’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그 비율도 기타소통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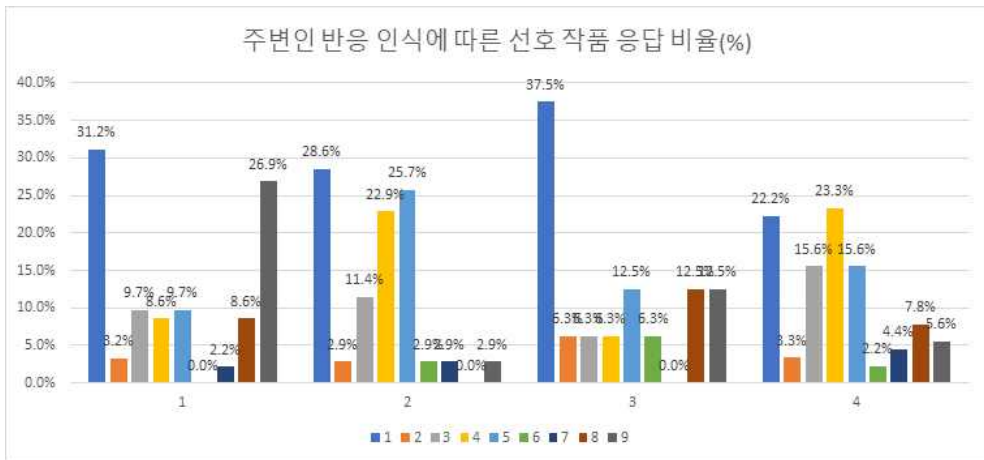
율이 높을수록 높아졌다. 사회적 자원이 높을수록 국내 작가를 선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사회적 자원이 낮을수록 외국 작가의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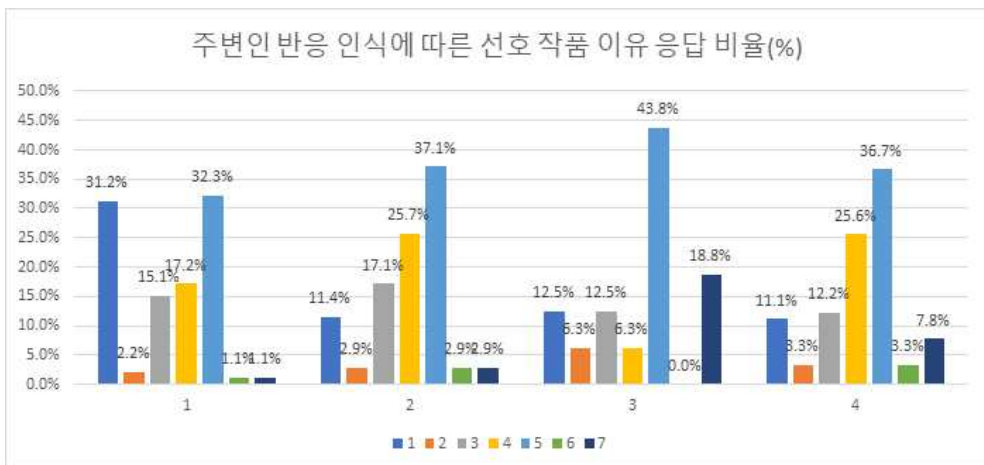
자신의 추천에 대한 주변인 반응 인식과 관련하여 선호 작가의 응답 비율은 위 그래프와 같다. 여기서도 4급간에서는 상대적으로 국내 작가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3급간에서는 외국 작가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며, 다시 2급간에서는 국내 작가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선호작가 이유에 대해서는 주변인 반응을 좋게 인식할수록 구조적 완성도에 초점을 두는 5번 선택지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작가적 개성이나 분위기에 초점을 두는 7번 선택지는 주변인 반응 인식이 높아질수록 응답 비율이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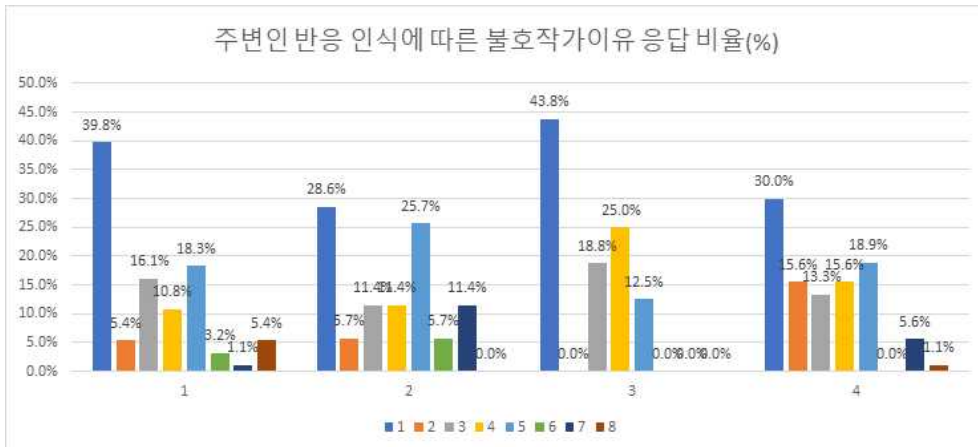


주변인의 반응이 좋다고 인식하는 4급간에서 선호작품의 장르는 판타지, 추리,本格소설의 순서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호불호가 갈린다고 인식하는 3급간에서는 자신의 취향에 대해 설명하는 ‘사례없음’에 대한 응답빈도가 크게 늘어났다. 주변인이 무관심하다고 인식하는 2급간에서는 추리, 판타지 소설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주변인의 반응이 나쁘다고 인식한 1급간은 ‘무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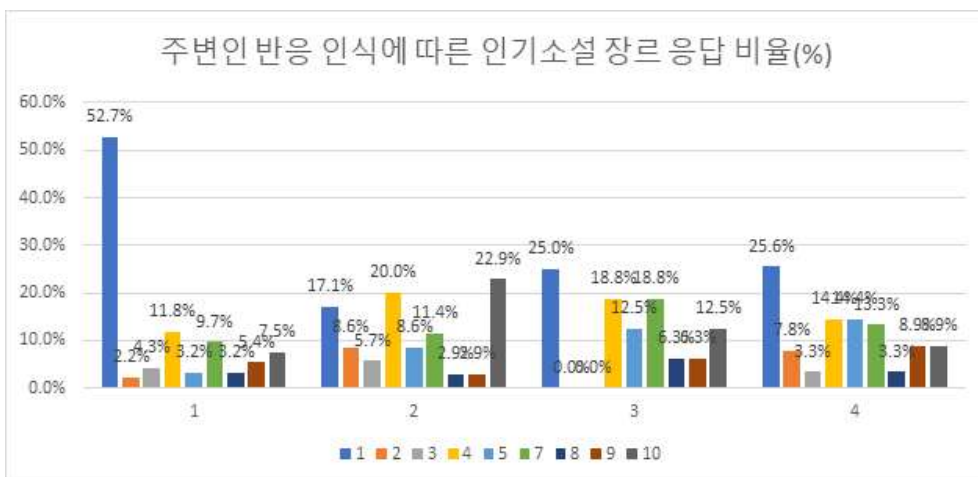


선호작품 이유에 대해서는 구조적 완성도에 초점을 두는 5번 선택지에 대한 응답 비율이 전체적으로 높은 가운데, 3급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다른 급간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에 비하여 3급간에서는 구조적 완성도와 작가적 개성 등 작품지향적인 응답을 하였으며, 이는 자

신의 취향에 대해 주변인의 반응에 호불호가 갈린다고 인식하는 3급간의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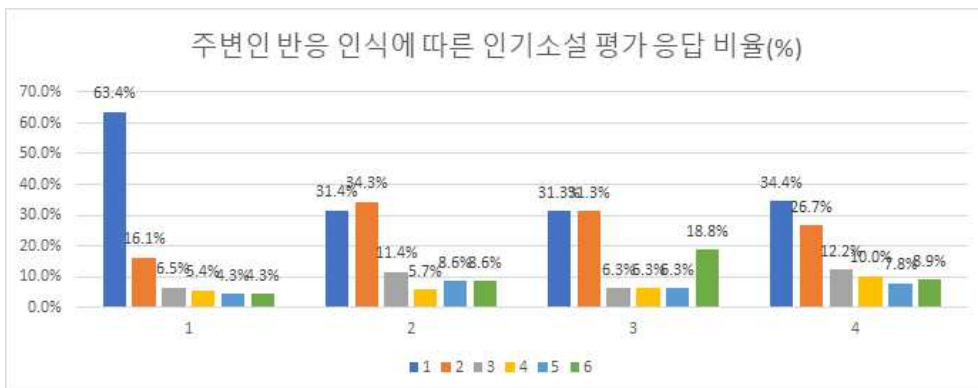
불호 이유에 대해서는 선호 이유와는 다소 다른 경향이 나타났는데, 4급간의 경우 구조적 완성도를 의미하는 5번 선택지의 응답 비율이 높기는 하지만, 큰 차이 없이 2번(자가지향), 3번(효용지향1 재미), 4번(효용지향2 교훈)에 대한 응답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반면 3급간의 경우 무응답이 급간들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교훈이나 주제의식에 초점을 두는 4번 선택지가 가장 높게 나타나서 선호 작가나 작품에서 구조적 완성도에 초점을 두던 것과 대조되는 반응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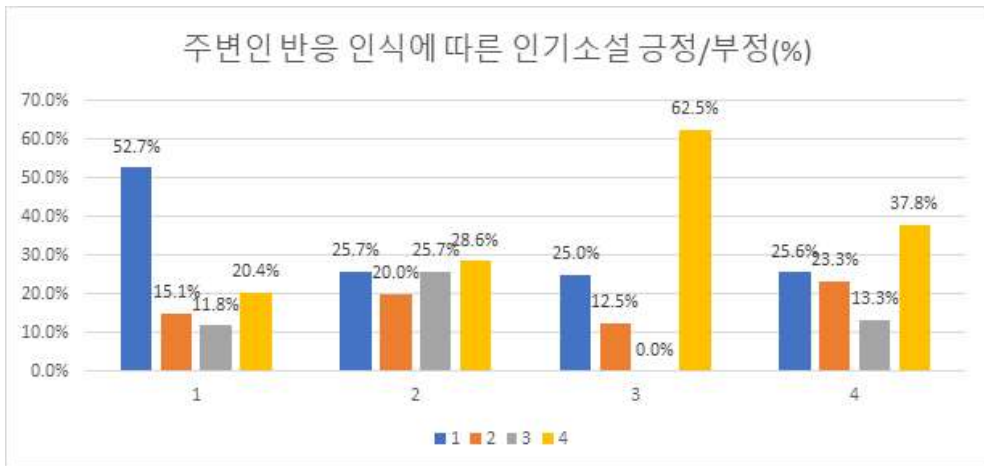
인기소설 장르 응답에 대해서는 5번 추리소설에 대한 응답이 주변인 반

응 인식 급간이 올라갈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4번 판타지 소설에 대한 응답은 2급간에서 최고 비율을 보였으며, 급간이 올라갈수록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3급간에서는 7번 연애소설을 가장 대중적으로 인기있는 소설로 인식하였다. 1급간에서는 무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이는 타인의 문학적 취향에 대한 무관심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으로, 앞서 선호작품에 대한 응답 결과와 비교해보면, 4급간의 경우 자신의 선호 장르로는 판타지가 가장 선호도가 높았고, 추리소설과本格소설이 그 다음이었으나, 대중적 인기소설에서는 추리소설이 가장 응답 비율이 높았으며, 그 다음이 판타지, 연애소설로 나타났다. 3급간의 경우 자신은 추리소설과 청소년소설을 가장 선호하지만, 대중적 인기소설로는 판타지와 연애소설을 꼽았다. 2급간은 자신의 선호 작품으로 추리, 판타지本格소설을 꼽았으나 대중적 인기작품으로 판타지와 연애, 추리 소설을 꼽았다. 학습자가 자신의 선호와 대중적 선호를 구별하여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급간이 낮을수록 편차가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



대중적 인기소설에 대한 평가는 주변인 반응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1급간에서는 1번 ‘무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무응답을 제외하면 모든 급간에서 2번 ‘독자 지향적 응답’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인기소설을 독자 층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독자의 요구를 잘 반영한 작품이 인기소설이 된 것으로 판단한다는 응답이며, 대중 독자의 취향에 대한 인정 혹은 판단유보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위 그래프는 대중적 인기 소설 평가 응답을 ‘무응답, 부정적, 판단유보, 긍정적’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 및 코드화하여 주변인 반응 인식과 비교한 그래프이다.⁴⁵⁾ 여기에서 3급간의 경우 긍정적인 평가인 4번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러한 응답 결과와 위의 인기소설 평가에서 3급간이 작품의 구조적 완성도에 초점을 맞춘 6번에 대한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3급간의 경우 인기소설을 대중의 취향으로 인정하는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구조적 근거를 바탕으로 취향을 객관화려는 의도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위계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

앞선 논의에 따라, 학습자 스스로 인식하는 각 자원의 수준을 기준으로 학습자 집단을 6개로 분류하였다. 집단별 비율은 아래 표와 같다.

45) 두 변수 간 상관관계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 결과, P값이 29.366, 유의확률 0.001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기준	빈도	백분율
상위집단	모든 자원이 우수	32	13.2
교육적 중간집단	지식 자원 우수, 심리적 자원 미흡	36	15.4
직관적 중간집단	심리적 자원 우수 지식 자원 미흡	29	12.4
사회적 중간집단	사회적 자원 우수	53	22.6
독립적 중간집단	지식 자원, 심리적 자원 우수 사회적 자원 미흡	33	14.1
대중집단	모든 자원이 미흡	51	21.8

분류된 집단과 문학교육의 장과 관련된 요소들과의 유의도 분석(ANOVA)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가정의 장에서는 부모의 독서 선호도와 형제자매의 독서 선호도에서 집단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 반면 교육의 장에 해당하는 문항들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온라인의 장에 대해서는 게시판, 블로그, SNS, Youtube 소통 참여도에서 집단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또래문화의 장에서는 친구의 독서 선호도와 독서모임 참여도에서 집단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구분	문항명	F값	유의확률
가정의 장	가족의 도서 이용 빈도	0.799	0.551(p>0.05)
	부모 독서 선호도	3.163	0.009(p<0.05)
	형제자매 독서 선호도	2.945	0.014(p<0.05)
교육의 장	도서관 이용 빈도	1.688	0.138(p>0.05)
	교사 독서 선호도	1.158	0.331(p>0.05)
온라인의 장	인터넷 도서 이용 빈도	1.328	0.253(p>0.05)
	웹 연재물 이용 빈도	1.482	0.197(p>0.05)
	게시판 소통 참여도	4.325	0.001(p<0.05)
	블로그 소통 참여도	7.871	0.000(p<0.05)
	SNS 소통 참여도	7.203	0.000(p<0.05)
	Youtube 소통 참여도	5.733	0.000(p<0.05)
또래문화의 장	지인의 책 이용빈도	1.508	0.188(p>0.05)
	친구 독서 선호도	4.373	0.001(p<0.05)
	독서모임 참여도	3.214	0.008(p<0.05)

1) 상위 집단

소셜 교육의 장 안에서 상위 집단은 지식 자원, 심리적 자원, 사회적 자원에서 우위에 있는 최상위 집단이며, 대개 교육의 영역 안에 있는 교사가 그 위상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습자들은 심리적 자원에 관련된 본인의 문학적 선호에 대해서는 강한 확신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독서량이나 독자로서의 수준과 같은 객관적 문학 능력과 관련해서는 스스로 세 가지 자원을 고루 갖춘 상위집단으로 인식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는 않았다. 많은 경우 교사가 상위집단으로 인식되었으며, 부모, 형제나 또래 중에 독서량이 많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상위집단의 위상을 가진 주변인으로 인식했다. 이러한 상위집단에 대한 태도는 앞서 살펴보았던 독서의 적극성에 대한 평가나, 추천인으로서의 신뢰도 등을 통해 드러난다.

이러한 상위 집단을 다시 지식 자원과 심리적 자원이 각각 우세한 경우와 두 자원이 모두 최고치로 보유하고 있다고 스스로 인식하는 세 경우로 구별해볼 수 있었지만, 상위 집단의 모수 자체가 적어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한 가지 특수한 양상이 나타났다. 지식 자원과 심리적 자원이 모두 최고 급간에 있고 사회적 자원에서도 주변인이나 기타 여러 방법의 독서 소통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학습자가 사회적 자원의 ‘자신의 도서 추천에 대한 주변인 반응’ 항목에 대해서만 매우 낮은 인식을 보이는 경우가 나타났다. 이는 상위집단 전체의 18.8%를 차지하여 그 수가 양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본인의 지식 자원과 심리적 자원을 최상위로 인식하고 사회적 소통에도 적극적인 학습자가 본인의 추천에 대하여 주변인의 반응을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는 점은, 본인의 의지나 노력에 대한 자기 인식과 그에 대한 타인의 평가에 대한 인식 간에 괴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2) 중간 집단

학습자들 대부분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중간 집단에 둔다. 중간 집단은 하위집단과 자신을 구별 지으며, 상위집단의 가치와 경쟁하고 상승 의지를 보인다. 여기에는 2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세 가지 자원의 분포에 따라 교육적 중간 집단과 직관적 중간집단, 사회적 중간집단으로 나누었다. 여기에 더하여, 학습자 응답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나타난 특수한 경향성을 바탕으로 독립적 중간집단을 추가하였다. 학습자 중에는 지식 자원과 심리적 자원이 우수한데 사회적 자원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유형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유형은 앞선 세 구분으로는 포괄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먼저 교육적 중간 집단은 지식 자원이 우세하고 심리적 자원이 미흡한 중간 집단으로, 상위 집단의 지식 자원을 동경하며, 이 지식 자원을 바탕으로 소셜 교육의 장 안에서 위계 상승을 지향하는 집단이다. 소셜에 대해 지식 자원에 기반한 구조주의적 접근이나 지식 위주의 관점을 높게 평가하며, 교육의 영역을 통해 습득한 해석 전략을 실제 읽기에 적용하고자 시도한다.

이 교육적 중간집단의 경우 문학능력의 기준을 지식자원에 두지만, 심리적 자원이 낮아 스스로의 문학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한다.

	교육적 중간집단	직관적 중간집단	사회적 중간집단	독립적 중간집단
독서량 자평	2.86	3.01	2.85	3.58
한해 독서량	14.81	3.59	5.66	41.24
한해 독서량 급간	3.39	1.52	2.17	3.52

따라서 위 표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독서량에 대한 자기 평가(2.86)는 사회적 중간집단 다음으로 낮지만 한해 독서량은 두 번째로 많다. 독서량의 경우, 한해에 수백편을 읽었다는 경우와 같이 일반적인 응답을 벗어나는 몇몇 응답들 때문에 평균이 크게 올라간 독립적 중간집단과 차이가 크게 벌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4개의 급간으로 나누어 비교해보면 큰 차이는 나지 않는다. 이 평균값들로 볼 때, 교육적 중간집단의 학습자는

지식 자원을 지향하여 교육적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하나, 자신의 수준에 대한 확신이 없어 스스로의 문학적 역량을 저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56%가 주변인과의 문학적 소통을 한다고 답했으며, 온라인을 통한 소통 참여도 평균은 2.09로 중간집단들 안에서는 보통 수준의 소통 적극성을 보였다.

	교육적 중간집단	직관적 중간집단	사회적 중간집단	독립적 중간집단
주변인과 소통한다	56%	31%	87%	58%
온라인 소통 참여도	2.09	1.83	2.70	1.83
신뢰할 수 있는 추천인	교사(22.2) 부모(25) 친구(30.5)	교사(13.8) 부모(17.2) 친구(17.2) 같은 취향(17.2)	교사(20.8) 부모(24.5) 친구(35.8)	교사(15.2) 부모(27.3) 친구(21.2)
주변인 독서 선호도	교사(3.97) 부모(3.92) 친구(3.17)	교사(3.57) 부모(2.93) 친구(2.48)	교사(4.04) 부모(3.68) 친구(3.08)	교사(3.82) 부모(3.36) 친구(2.39)

도서 추천에 대한 신뢰도는 친구(30.5%)가 가장 높았으나, 교사(22.2%)로 응답한 비율이 중간집단들 중에 가장 높았으며, 부모(25%)를 합하면 성인 독자에 대한 신뢰도는 47.2%로 이 역시 중간집단들 중 가장 높았다. 주변인의 독서 선호도에 대한 응답에도 교사와 부모에 대한 인식이 다른 중간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으며, 이러한 양상으로 보아, 교육적 중간 집단의 학습자들은 또래 집단보다 교사 혹은 부모와 같은 성인과 문학적 지향을 공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교사로 대표되는 교육의 영역에서 얻을 수 있는 객관적인 지식 자원을 추구하는 경향이 드러나며, 그에 따라 상대적으로 주관적인 소통의 영역에 대해서는 크게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

직관적 중간집단은 지식자원에 기반한 상위집단의 권위와의 대결 양상을 보이며 심리적 자원에 중점을 둔다. 자신의 취향과 선호에 확신을 가지

며 이를 공유하는 또래집단을 중요하게 여기고 작품에 대하여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추상적 가치들에 초점을 맞추어 지식 자원의 객관적인 가치들과 대비되는 양상을 보인다. 직관적 중간집단에 해당하는 학습자는 전체 응답자의 12.4%로 나타났다.

이 직관적 중간집단은 문학에 대해 객관적인 지식 자원을 추구하기보다는 본인만의 주관적인 가치를 추구하며, 따라서 스스로의 문학적 취향이나 가치관이 공고하다. 자신이 문학을 좋아한다는 것에 확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스스로의 문학적 능력을 고평한다. 이 직관적 중간집단의 실제 독서량은 한해 평균 3.59권으로 중간집단들 중에 가장 적으나, 본인의 독서량에 대한 자기평가는 3.01로 다른 집단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독서에 대한 선호도는 3.90으로 독립적 중간집단 다음으로 높았으며, 자신의 문학적 역량에 대해서도 대부분이 보통 이상으로 평가하였다. 학습자 스스로가 문학에 대해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있으며, 본인의 문학적 능력에 대한 신뢰도 높게 나타나, 심리적 자원이 높은 직관적 중간집단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주변인과의 소통이나 온라인 소통에 대해서는 적극성이 중간집단들 중에 가장 낮았으며, 도서 추천에 대한 신뢰도는 교사, 부모, 친구의 신뢰도가 중간집단들 중에 가장 낮았다. 반면 ‘취향이 같은 사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이것 역시 자신의 문학적 취향에 대한 공고한 가치 부여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변인의 독서 선호도도 중간집단들 중 가장 낮게 인식하고 있으며, 지식 자원에 기반한 객관적인 문학의 가치나 또래문화보다는 상대적으로 자신이 구성하는 주관적인 가치로서의 취향을 추구하는 양상을 보인다.

사회적 중간 집단은 지식 자원과 심리적 자원이 미흡한 상태에서 사회적 자원에 편중된 중간 집단이다. 직관적 중간 집단이 문학관을 형성하기 위해 사회적 소통을 한다면, 이들은 사회적 소통을 하기 위해 문학을 수단으로 사용한다. 따라서 소통에 초점이 있고, 작품 자체에 대한 객관적 가치를 인정하거나 뚜렷한 개인적 선호 혹은 주관적 문학관을 보이지 않는

다. 이는 청소년기의 집단 지향적 관계 지향적 정체성 형성과 관계되는 집단적 정체성으로도 볼 수 있다.

이 사회적 중간 집단의 학습자들은 실제 독서량이 직관적 중간집단보다 많음에도 독서량에 대한 자기평가 평균이 2.85로 중간집단들 중에 가장 낮게 나타났다.

자신의 문학적 역량에 대한 평가에서도 평균 이하의 응답 결과를 보였으며 독서에 대한 선호도를 묻는 질문에도 3.42로 낮은 선호도를 보였다. 문학 자체에 크게 흥미를 가지지 못하며 독서량이나 문학 능력에 대한 자신감도 적다. 사회적 자원에 대한 지향성을 제외하면 하위집단의 학습자들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이 집단의 학습자들은 주변인과의 소통 적극성이 중간집단 중에서 가장 높았으며, 온라인 소통에 대한 참여도도 높았다. 신뢰할 수 있는 도서 추천으로 또래 친구(35.8)를 가장 높게 선택했으며, 친구의 도서 선호도에 대한 인식도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독립적 중간 집단은 지식 자원과 심리적 자원이 우수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자원이 낮은 집단이다. 자신의 문학적 취향에 대한 신뢰가 공고하며 이를 뒷받침할 지식 자원까지 보유하고 있다. 독서량에 대한 자기평거나 실제 독서량은 상위집단의 수준을 보여 중간집단 중에는 가장 높았으며, 문학적 역량에 대한 자기 평가 역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신의 문학적 역량에 대한 응답들이 높은 수치를 보이는 반면 주변인과의 소통에 대해서는 낮은 수치를 보인다.

3) 하위집단

하위집단은 지식 자원, 심리적 자원, 사회적 자원 모두에 걸쳐 결핍이 있는 집단이며, 결과적으로 이는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 첫 번째가 소셜 교육의 장 자체에 대한 무관심과 거부이며, 두 번째가 상위집단의 가치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이다.

하위집단의 학습자들의 독서 선호도는 2.82로 모든 집단들 중에 가장 낮다. 싫어하는 이유로는 대부분이 지루하다거나 집중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독서를 싫어하는 이유로 독서의 한계나 단점을 들면서 왜 싫어하는지를 설명하려고 하기보다는 책 읽기 자체에 거의 관심이 없으며, 다른 미디어나 활동을 더 좋아한다고 답했다. 이런 학습자의 경우 설문 문항에 거의 답변을 하지 않거나 1~5 급간의 설문의 경우 1이나 3으로 일괄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극도의 무관심을 보인다.

하위집단에 속한 학습자들의 독서량 자기평가 결과는 2.31로 이 역시 모든 집단들 중 가장 낮으며, 실제 독서량도 3.37로 가장 낮다. 독자로서의 수준 역시 가장 낮게 평가했다.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문학적 능력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소통에도 적극적이지 않다. 78.4%가 주변인들과의 소통을 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온라인을 통한 소통도 2.01로 소극적이었다.

한편 특징적인 부분은 교사에 대한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추천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주변인으로 23.5%가 교사를 꼽았으며 교사의 독서 선호도에 대한 인식도 3.82로 높은 편이다. 또한 자신의 문학 능력에 대해서는 낮게 평가하면서도 소설에 대해 4급간 ‘조금 좋아한다.’ 이상의 선호 표현 응답을 한 학습자들이 56.9%로 적지 않다는 점이다. 구체적인 문학적 취향이나 주관을 드러내는 모습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막연한 선호 표현을 하는 것은, 앞서 언급했던 상위 집단의 가치에 대한 추종으로 볼 수 있다.

3. 집단별 학습자 인식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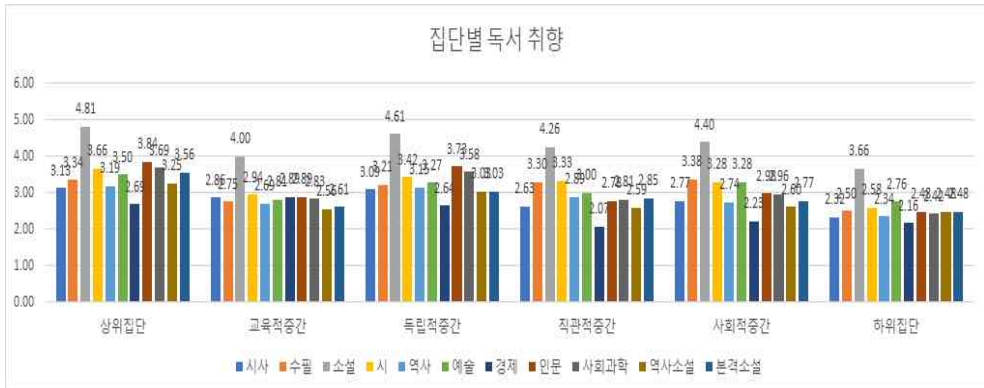
이 절에서는 소설 교육의 장에서 자원의 분포에 따른 학습자의 집단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학습자의 인식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그 양상을 살펴보려한다. 또한 이러한 집단이 장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도

함께 살펴본다.

우선 집단 구분과 각 도서 장르별 선호도 간 유의도 분석(ANOVA)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F값	유의확률
시사	2.420	0.037(p<0.05)
취미	0.649	0.662(p>0.05)
과학	0.789	0.558(p>0.05)
기술	0.811	0.543(p>0.05)
여행	0.481	0.790(p>0.05)
수필	3.606	0.004(p<0.05)
소설	7.819	0.000(p<0.05)
시	3.631	0.004(p<0.05)
역사	2.383	0.039(p<0.05)
예술	2.395	0.038(p<0.05)
IT	0.283	0.922(p>0.05)
자기개발	0.403	0.846(p>0.05)
수험	0.556	0.734(p>0.05)
경제	2.716	0.021(p<0.05)
인문	6.147	0.000(p<0.05)
사회과학	5.172	0.000(p<0.05)
SF소설	2.021	0.077(p>0.05)
역사소설	2.343	0.042(p<0.05)
연애소설	0.573	0.720(p>0.05)
청소년소설	0.466	0.801(p>0.05)
판타지소설	1.404	0.224(p>0.05)
추리소설	1.042	0.394(p>0.05)
本格소설	3.775	0.003(p<0.05)

집단 구분에 대한 유의도 검정 결과 도서 일반 장르에서는 시사, 수필, 소설, 시, 역사, 예술, 경제, 인문 장르에서 유의한 차가 나타났고, 소설 장르에서는 역사소설과本格소설에서 유의한 차가 나타났다.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항목에 대하여 집단별 취향의 양상은 위 그래프와 같다. 해당 항목들의 선호도 평균은 상위 집단(3.51)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독립적 중간 집단(3.34)이다. 가장 낮은 것은 하위집단(2.56)이었으며, 교육적 중간 집단(2.89)가 두 번째로 낮은 선호도를 보였다. 교육적 중간집단의 경우 집단 중 가장 균질한 선호도(표준편차 0.38)를 보였으며, 가장 편차가 큰 집단은 사회적 중간 집단(표준편차 0.56)과 직관적 중간 집단(표준편차 0.55)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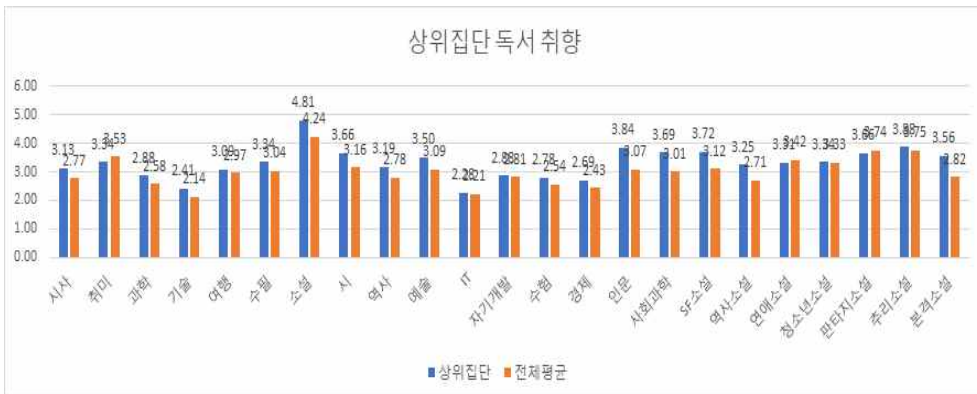
집단에 따른 소설 취향 서술형 응답과 소설에 대한 가치부여 관련 항목에 대한 Pearson 카이제곱 검정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소설 취향 서술형 응답에서는 집단에 따라 선호작가와 불호작가 항목에서 집단별로 유의한 차를 보였으며, 소설에 대한 가치부여 항목에서는 소설의 중요점에 대한 응답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문항	소설 필수요소	
	P값	유의확률
선호 작가	36.870	0.012(p<0.05)
선호 작가 이유	37.296	0.169(p>0.05)
선호 작품	45.319	0.260(p>0.05)
선호 작품 이유	42.834	0.061(p>0.05)
불호 작가	38.066	0.009(p<0.05)
불호 이유	46.401	0.094(p>0.05)
인기 작품	21.512	0.121(p>0.05)
인기 작품 평가	22.171	0.626(p>0.05)

문항	소설 필수요소	
	P값	유의확률
소설의 중요점	46.362	0.029(p<0.05)
소설 향유 이유	28.669	0.535(p>0.05)
좋은 소설이란	39.697	0.484(p>0.05)

1) 상위 집단

(1) 독서 취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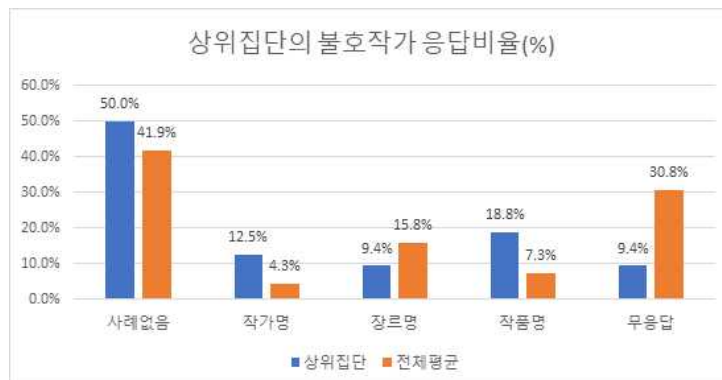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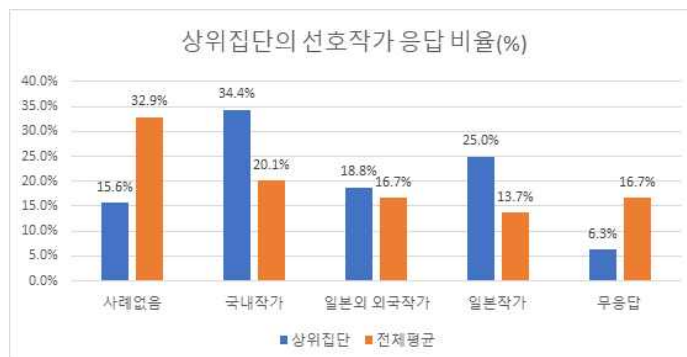


상위 집단은 대부분의 항목에서 평균 이상의 선호도를 보였으며, 앞의 유의도 검정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11개 항목에 대해서는 모두 평균보다 상위의 선호도를 보였다. 그중에서도 소설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는데, 이는 모든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성이다. 도서 일반에서는 시사, 취미, 여행, 수필, 소설, 시, 역사, 예술, 인문, 사회과학에서 보통 이상의 선호를 보였고, 소설에서는 모든 장르를 보통 이상으로 선호하였는데, 그중에서 SF, 판타지, 추리,本格소설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반면, 과학, 기술, IT, 자기개발, 수험, 경제 도서에 대해서는 보통 이하의 낮은 선호도를 보였다.

상위 집단은 취미, 연애 소설, 판타지 소설에서 평균 이하의 선호도를 보였다. 수필, 소설, 시 등 문학 장르와 예술 장르, 시사, 역사, 인문, 사회

과학과 같은 지식 정보 장르, 소설 장르 중에서는 SF소설, 역사소설,本格소설에 대하여 평균보다 크게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상위 집단은 흥미 위주의 소설이나 취미 같은 개인 취향을 반영하는 도서가 아니라 문학, 예술, 학술서적 등 예술이나 지식 정보 서적을 중심으로 자신의 취향을 구성하는 경향을 보인다. 소설 중에서도 역사소설과本格소설의 선호도가 전체 집단 평균값에 비하여 특히 높은 것에서도 그러한 경향이 드러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SF소설의 선호도가 예외적으로 높은데, 이는 선호 작품이나 대중적 인기작품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서술형 응답에서 SF 장르를 창의성이나 과학적 상상력과 연관짓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아 해당 장르에서 과학적 요소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다.

소설 취향 서술형 응답에서는 선호작가와 불호작가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구체적인 양상은 아래 그래프와 같다.



상위집단의 경우 선호작가를 묻는 설문에 대해 ‘사례없음’에 대한 응답율이 모든 집단들 중 가장 낮았다. 사례없음은 구체적인 작가 및 작품, 장르를 특정하여 답변을 하지 않고 ‘어떠한 작품이 좋다’와 같이 설명식으로 응답한 경우로, 상위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하여 자신의 취향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응답 비율 역시 모든 집단 중 가장 낮아서 해당 설문에 대해 가장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답변을 한 것으로 보인다.

선호작가 응답에서 나타나는 또다른 경향성은 국내작가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다는 점이다. 앞서 자원에 대한 취향의 상관관계에 대한 유의도 분석에서 지식 자원과 선호작가 취향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심리적 자원의 경우 높아질수록 국외작가 선호율이 높아지는 경향성을 보였고, 사회적 자원의 경우 높아질수록 국내작가 선호율이 높아지는 경향성을 보였다. 상위집단의 경우 모든 자원이 우수한 집단이므로 두가지 경향성을 모두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작가에 대한 높은 선호도(34.4)는 높은 사회적 자원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일본 외 외국작가와 일본작가를 합한 전체 외국 작가에 대한 선호도(43.8)는 높은 심리적 자원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불호작가에 대한 응답에서는 사례없음에 대한 응답율이 평균 이상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무응답 비율은 집단들 중 가장 낮아서 답변에 대해 적극성을 보였으며 구체적인 작가명이나 작품명을 응답한 비율 역시 전체 응답 평균치보다 높았으나 사례없음 비율이 선호작가 응답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아, 선호작가에 비해 불호작가에 대한 취향에 구체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소설에 대한 선호 표현은 구체적이고 적극적이거나 불호 표현이 추상적이고 막연한 것은 소설 장르 자체에 대한 긍정적 가치부여 때문일 수도 있고, 부정적 취향 표현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답변의 구체성 부족은 선호 표현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지, 불호 표현의 집단 간 비교에서는 여전히 상위집단의 답변 구체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2) 독자로서의 자의식

독자로서의 자의식 항목에 대한 집단별 응답 결과는 아래 그래프와 같다.



상위집단은 다른 모든 집단에 비해 모든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응답을 보였다.

(3) 문학적 가치부여

상위집단의 문학적 가치부여 양상은 아래 표와 같다.

	무응답	자기 지향	흥미	교훈 및 감동	구조적 완성도	독자 배려 및 공감	작가적 개성
소설 중요점	6.3%	3.1%	9.4%	9.4%	50.0%	0.0%	21.9%
전체 평균	10.9%	5.2%	12.3%	10.0%	51.1%	0.8%	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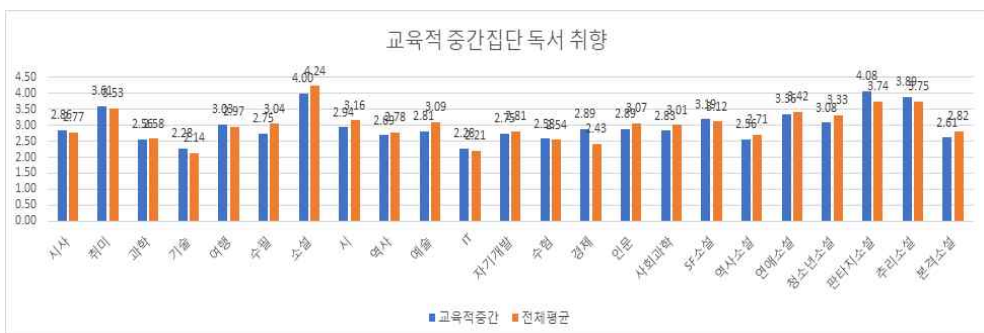
먼저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무엇인지를 묻는 문항에는 50%가 구조적 완성도를 꼽았다. 이는 상위집단의 응답들 중 가장 높은 비율이기는 하지만 전체 집단의 응답 결과를 비교해볼 때, 평균값에 미치지 못하는 응답 비율이다. 반면 작가적 개성과 작품의 분위기 등 해당 작품만의 고유한 특성을 언급한 응답은 21.9%로 모든 집단 중 가장 높았다. 기본적으로 작품의 구조적인 완성도와 객관적인 요소를 작품에 대한 가치부여 기준으로 삼고는 있으나 상대적으로 작품의 개성과 같은 주관적 가치부여도 중요하다.

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작가적 개성이나 작품의 분위기는 작가와 작품의 경향성을 바탕으로 독자 스스로 구축한 이미지로, 객관성과 주관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가치평가요소이며, 이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은 것은 문학적 가치평가에서 고려할 요소로 구조적 완성도 외에 자신의 주관적 취향을 우회적으로 강조하는 응답 양상으로 볼 수 있다.

2) 교육적 중간 집단

교육적 중간 집단은 상대적으로 지식자원의 양이 많거나 지식자원에 대한 지향성을 강하게 갖는 중간집단이며, 그에 비해 심리적 자원이나 사회적 자원이 부족한 집단이다. 따라서 지식 자원을 획득하는 데에 유효한 대상들을 선호하며, 대중적 도서들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1) 독서 취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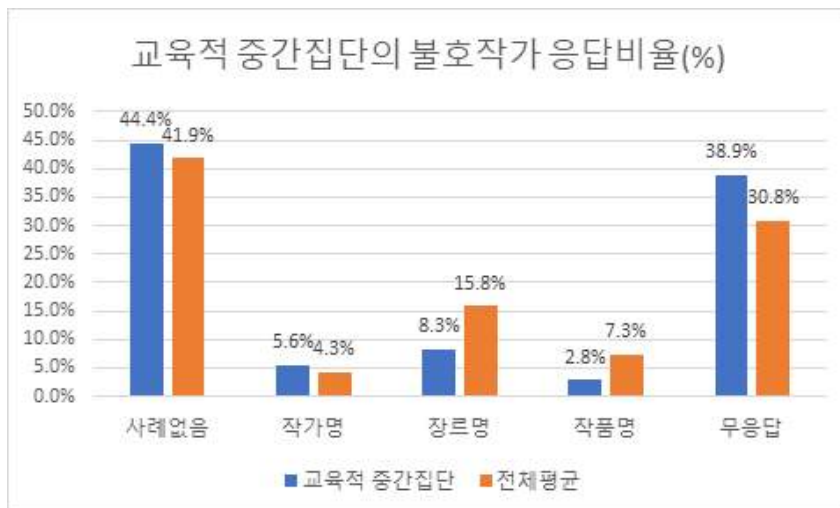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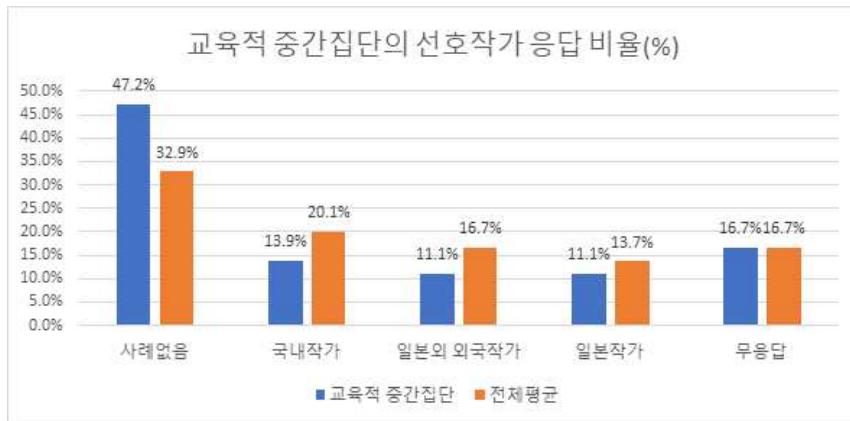
위 그래프는 교육적 중간 집단의 독서 취향 응답 결과이다. 시사, 취미, 기술, 여행, IT, 수험, 경제, SF소설, 판타지소설, 추리소설에 대해서 평균 이상의 선호도를 보였으며, 수필, 소설, 시, 예술, 인문, 역사소설, 연애소설, 청소년소설,本格소설에 대해서는 평균 이하의 선호도를 보였다. 다른 집단에 비해 최고 선호도를 보이는 서적의 절대 수치는 낮으나, 상대적으로

로 관심도가 고른 분포를 보인다. 특히 다른 집단에서 낮은 선호도를 보이는 교양 지식 관련 서적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기 개발서나 수험 서적과 같은 현실적인 필요에 따른 서적에도 흥미를 보인다. 전반적으로 뚜렷한 차별적인 취향을 보이기보다는 지식 자원에 대한 포괄적인 지향을 보인다.

상위집단과 구별되는 지점은 수필, 소설, 시 등의 문학작품에 대한 선호도가 하위집단에 이어 두 번째로 낮다는 점이며, 일반 도서 장르에 대한 선호 경향과 소설 장르에 대한 선호 경향에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일반 도서 장르에서는 시사, 기술, IT 등 지식 정보 관련 서적에 대한 선호도가 높으며, 특히 경제 서적에 대해서는 모든 집단들 중에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인다. 반면 소설 장르에서는 지식적 요소가 많이 포함되거나 난이도가 높은本格소설이나 역사소설에 대한 선호도는 낮은 반면 판타지 소설이나 추리소설과 같은 흥미 위주의 소설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상위집단과는 달리 문학 장르를 지식 정보 장르와 구별하여 취미의 영역으로 인식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두 영역 간에 상반되는 취향을 보여 자신의 성장을 위해 지향해야할 영역과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의 영역 간에 괴리된 인식을 보인다.

특히 문학과 예술에 대해서 낮은 선호도를 보이는데, 이것은 교육적 중간집단과 하위집단만 보이는 특수한 반응이다. 이 두집단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는 공통적으로 문학과 예술 도서에 대해서 평균 이상의 선호도를 보였다. 이는 교육적 중간집단이 해당 장르에 대해 지식자원의 맥락에서 지적 부담감을 가지고 접근하거나, 객관적 지식의 맥락에서 크게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소설 취향 서술형 응답에서는 선호작가와 불호작가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구체적인 양상은 아래 그래프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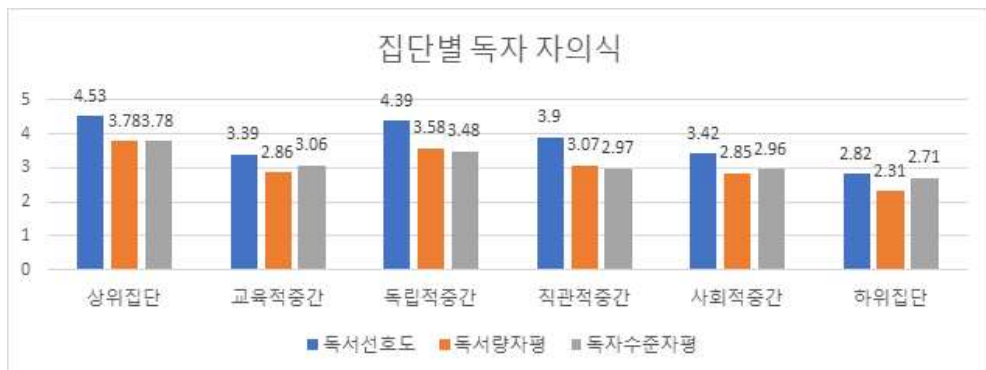


교육적 중간집단의 경우 선호작가에 대한 응답에서 사례없음과 무응답이 모두 평균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국내 및 국외 작가에 대한 선호도가 모두 평균 이하로 나타났다. 사례없음의 응답비율(47.2)이 모든 집단들 중 가장 높았으며, 무응답 비율(16.7)은 하위집단(27.5)과 직관적 중간집단(17.2)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사례없음의 비율이 높은 것은 응답의 적극성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무응답의 비율이 낮지 않으므로, 여기에서는 답변의 구체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된다. 국내 및 국외작가에 대한 선호도에서 모두 평균이하로 나타난 것은 하위집단과 교육적 중간집단 뿐이며, 그중에서도 교육적 중간집단의 사례없음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아 집단들 중 선호작가에 대한 자신의 취향 표현에서

가장 구체성이 떨어지는 집단이 교육적 중간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불호작가에 대한 응답에서는 무응답 비율(38.9)이 하위집단(41.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아 응답의 적극성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사례없음의 비율도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 응답의 구체성도 떨어지며, 구체적인 작가명(5.6), 장르명(8.3), 작품명(2.8)에 대한 응답을 모두 더한 비율이 모든 집단들 중 가장 낮았다. 교육적 중간집단은 선호작가에 대한 응답과 불호작가에 대한 응답 모두에서 구체적인 취향을 구성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2) 독자로서의 자의식



교육적 중간집단의 경우 독자로서의 자의식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독서 선호도는 하위집단에 이어 두 번째로 낮으며, 독서량 자평과 독자수준 자평도 낮은 수준이다. 이는 교육적 중간집단이 독서에 대해 갖는 교육적 이상과 현실적인 흥미 사이의 괴리에서 비롯된 부담감이나 거부감의 발현으로 볼 수 있다.

(3) 문학적 가치부여

	무응답	자기 지향	흥미	교훈 및 감동	구조적 완성도	독자 배려 및 공감	작가적 개성
소설 중요점	16.7%	2.8%	11.1%	2.8%	55.6%	0.0%	11.1%
전체 평균	10.9%	5.2%	12.3%	10.0%	51.1%	0.8%	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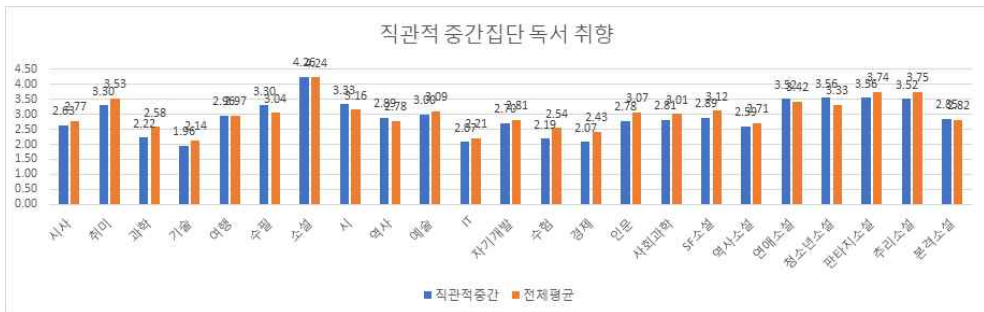
위 표는 소설에서 중요한 요소에 대한 응답 비율이며, 구조적 완성도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다. 이는 상위집단(50.0)보다 높은 수치이며, 독립적 중간집단(69.7)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응답 비율이다. 소설에 대해 가치부여할 때 지식자원적 요소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으로 보이며, 교훈 및 감동(2.8)은 모든 집단 중에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나는 것에서도 작품의 내용에 대한 가치판단보다는 구조적 완성도를 우선하는 경향이 드러난다.

무응답 비율이 모든 집단들 중 가장 높은데, 이는 앞의 다른 항목들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교육적 중간 집단의 자신의 취향 표현에서 구체성이 부족하며 능동적이지 못한 경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직관적 중간 집단

직관적 중간 집단은 상대적으로 심리적 자원이 우세하거나 심리적 자원에 대한 지향성을 강하게 갖는 중간집단이며, 그에 비해 지식 자원이나 사회적 자원이 부족한 집단이다. 따라서 심리적 자원을 확인하고 표출하는데에 유효한 대상들을 선호하며, 지식 자원에 기반한 문학적 능력이나 권위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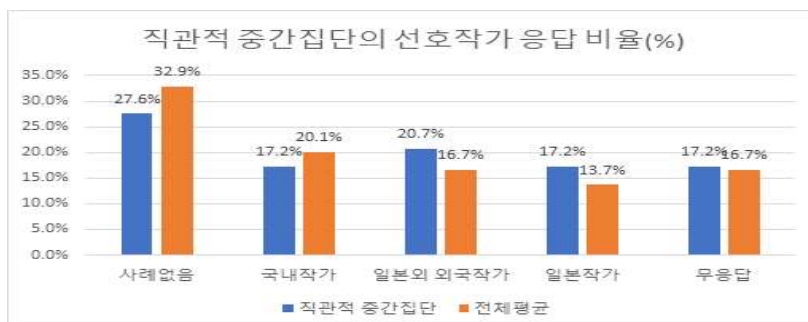
(1) 독서 취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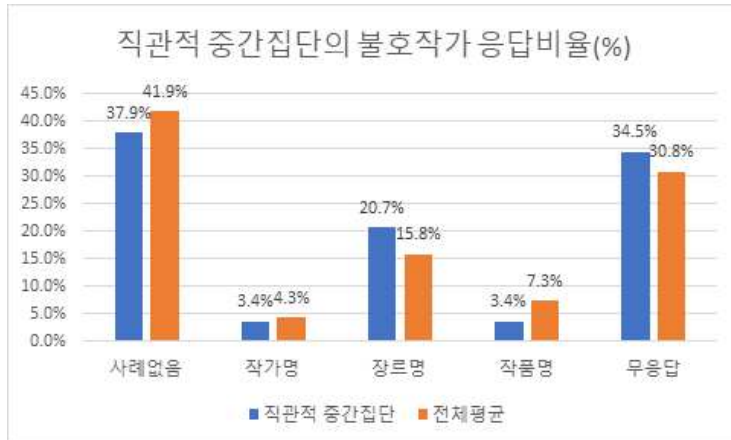


위 그래프는 직관적 중간 집단의 독서 취향 응답 결과이다. 수필, 시, 역사, 연애소설, 청소년소설,本格소설에 대하여 평균 이상의 선호도를 보였으며, 시사, 취미, 과학, 기술, 자기개발, 수험, 경제, 인문, 사회과학, SF소설, 판타지소설, 추리소설 등 절반 이상의 장르에서 평균 이하의 선호도를 보였다.

다른 집단에 비해 장르별 선호도 응답에 편차가 크며(표준편차 0.581) 이는 사회적 중간집단(0.583)에 이어 두 번째로 큰 편차이다. 앞선 교육적 중간집단의 선호도와 반대되는 경향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시사, 기술, 수험, 경제, SF소설 등 지식 정보 중심의 도서에 대한 선호도가 낮으며 수필, 소설, 시 등 문학장르에 대한 선호도와 연애소설과 청소년소설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본인의 취향에 맞지 않는 장르에 대해서는 극단적으로 낮은 선호도를 보이지만 자신의 취향에 맞는 소수의 장르에서는 높은 선호도를 보인다.

소설 취향 서술형 응답에서는 선호작가와 불호작가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구체적인 양상은 아래 그래프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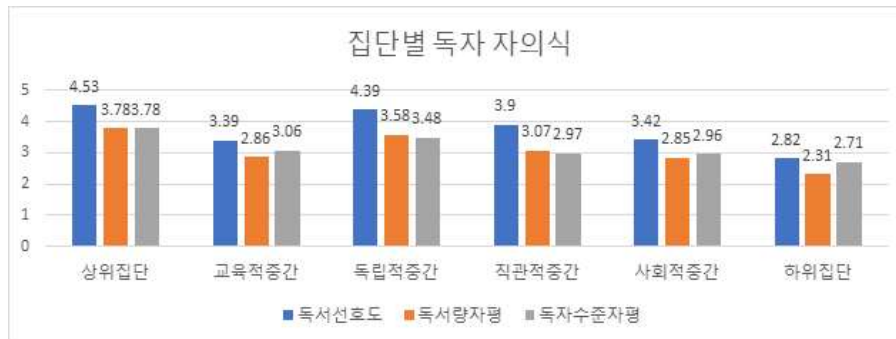




직관적 중간집단은 선호작가 응답에서 무응답 비율이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지만 사례없음 비율이 평균보다 낮아 다른 집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구체성을 가진 취향 응답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보았던 심리적 자원과 취향 간의 관계에서 심리적 자원이 높을수록 국외작가에 대한 선호율이 높아지는 경향성을 보였는데, 직관적 중간집단에서도 국내 작가에 대한 선호율이 평균치 이하이고, 일본 및 기타 외국 작가에 대한 선호율은 둘 다 평균 이상으로 높아, 마찬가지로의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직관적 중간집단에서 외국 작가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은 소설 교육이나 일반적인 지식자원의 맥락에서 주된 대상으로 다루지 않는 외국소설에 대한 선호를 통해 자신의 취향의 고유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

불호작가 응답에서는 사례없음과 무응답의 비율이 높기는 하나, 구체적인 작가명, 장르명, 작품명을 언급한 비율(27.5)이 교육적 중간집단(16.7)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만 작가명이나 작품명 응답보다 장르명으로 응답한 비율이 월등히 높아서 불호 취향에 대한 인식을 장르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독자로서의 자의식



직관적 중간집단의 독서 선호도(3.90)는 상위집단(4.53), 독립적 중간집단(4.39)에 이어 세 번째로 높으며, 자신의 독서량에 대한 인식도 세 번째로 높다. 반면에 독자로서의 수준에 대한 자기평가에서는 교육적 중간집단에 비하여 미세하게 낮은 수치를 보인다. 이는 독서 활동 자체에 동기부여가 확고하게 되어있고, 양적으로 충분히 읽고 있다고 스스로 자신감을 가지고는 있으나, 그러한 자신감과 독자로서의 객관적인 수준은 다른 맥락이라는 인식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3) 문학적 가치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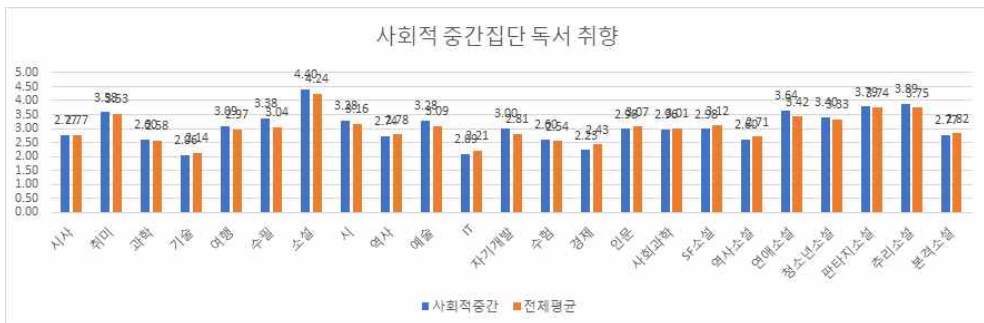
	무응답	자기지향	흥미	교훈 및 감동	구조적 완성도	독자 배려 및 공감	작가적 개성
소설 중요점	13.8%	0.0%	20.7%	6.9%	44.8%	0.0%	13.8%
전체 평균	10.9%	5.2%	12.3%	10.0%	51.1%	0.8%	9.8%

직관적 중간집단 역시 구조적 완성도를 소설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으나 그 응답 비율(44.8)은 하위집단(41.2)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반면에 흥미에 대한 응답 비율(20.7)은 모든 집단들 중에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작가적 개성에 대한 응답(13.8)도 상위집단(21.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지식 자원보다 심리적 자원이 우수한 직관적 중간집단의 경향성을 보여주는 응답 양상으로 볼 수 있다.

4) 사회적 중간 집단

사회적 중간 집단은 상대적으로 사회적 자원이 우세하거나 사회적 자원에 대한 지향성을 강하게 갖는 중간집단이며, 그에 비해 지식 자원이나 심리적 자원이 부족한 집단이다. 따라서 문학 자체의 내용보다는 사회적 소통에 초점을 두는 경향성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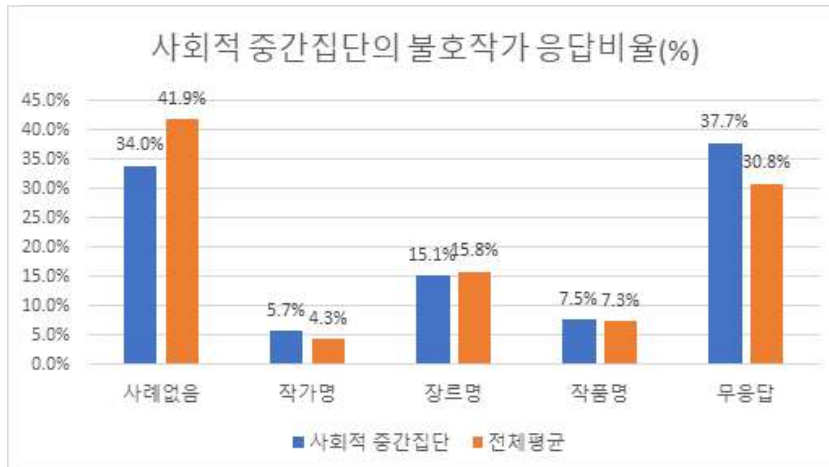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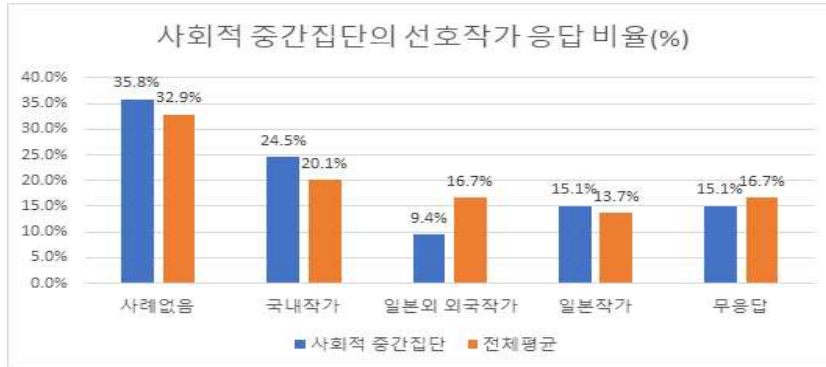
(1) 독서 취향



위 그래프는 사회적 중간 집단의 독서 취향 응답 결과이다. 여행, 수필, 소설, 시, 예술, 자기개발, 연애소설, 청소년소설, 판타지 소설, 추리소설에 대하여 평균 이상의 선호도를 보였으며, 기술, 역사, IT, 경제, 인문, SF소설, 역사소설,本格소설에서 평균 이하의 선호도를 보였다.

다른 집단에 비해 장르별 선호도 응답에 편차가 가장 크며(표준편차 0.583), 수필과 연애소설 장르에서 집단 중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여 가볍게 타인의 일상을 공유할 수 있는 수필이나 사회적 관계를 그려내는 연애소설과 같이 사회적 자원을 드러내는 작품에 대한 높은 선호도를 보인다. 또한 대부분의 소설장르에 대하여 평균 혹은 그 이상의 선호도를 보이는데, 이는 소설 장르가 학습자 수준에서 타인과 소통하는 매개로 적합하기 때문으로 보이며, 기술, 역사, 경제 등 지식자원에 관계되는 장르들이 배제되는 것으로 보아 독서 소통은 객관적 지식의 공유보다는 주관적 감상의 공유에 초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설 취향에 대한 서술형 응답에서는 선호작가와 불호작가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구체적인 양상은 아래 그래프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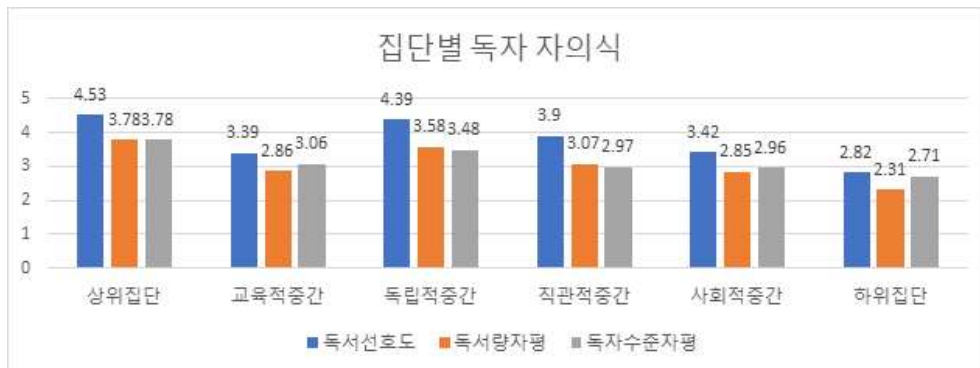


사회적 중간집단은 선호작가 응답의 구체성 차원에서 교육적 중간집단 보다는 구체적인 양상을 보였지만, 직관적 중간집단보다는 사례없음과 무응답의 비율이 높아 구체성이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앞서 살펴본 사회적 자원과 취향 간 유의도 검정 결과와 마찬가지로, 국내 작가에 대한 선호도(24.5)가 상위집단(34.4)에 이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 자원이 높을수록 국내 작가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은 문학 소통에 인지도가 높거나 언어적 장벽이 없는 국내 작품이나 작가가 보다 적합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불호작가 응답에서는 상위집단을 제외하고 모든 집단에서 장르를 기준

으로 불호 표현을 하는 경향성을 보이며, 사회적 중간집단은 독립적 중간집단(30.3)과 직관적 중간집단(20.7) 다음으로 장르명에 대한 응답비율(15.1)이 높다. 대부분의 집단에서 구체적인 작가나 작품을 언급하지 않고 장르명을 언급하는 것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불호 취향 표현에 대한 거부감 때문일 수도 있고, 문학적 취향이 선호 취향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구체화되면서 불호 취향은 선호취향에 대하여 배타적인 방법으로 규정되기 때문일 수도 있다.

(2) 독자로서의 자의식



사회적 중간집단은 독서 자체보다도 독서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적 소통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독서에 대한 선호도(3.42)가 하위집단(2.82)과 교육적 중간집단(3.39) 다음으로 낮다. 독서량에 대한 자기평가가 낮은 수치를 보이고 독자로서의 수준에 대한 평가(2.96) 역시 하위집단(2.71)에 이어 두 번째로 낮다. 이는 사회적 자원보다는 심리적 자원의 결핍에서 기인하는 경향성으로 보인다. 위 그래프를 보면 심리적 자원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위집단, 독립적 중간집단, 직관적 중간집단이 같은 패턴을 보이고, 심리적 자원이 상대적으로 낮은 교육적 중간집단, 사회적 중간집단, 하위집단이 같은 패턴을 보이는데, 이 역시 심리적 자원이 독자로서의 자기 인식에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볼 수 있다.

(3) 문학적 가치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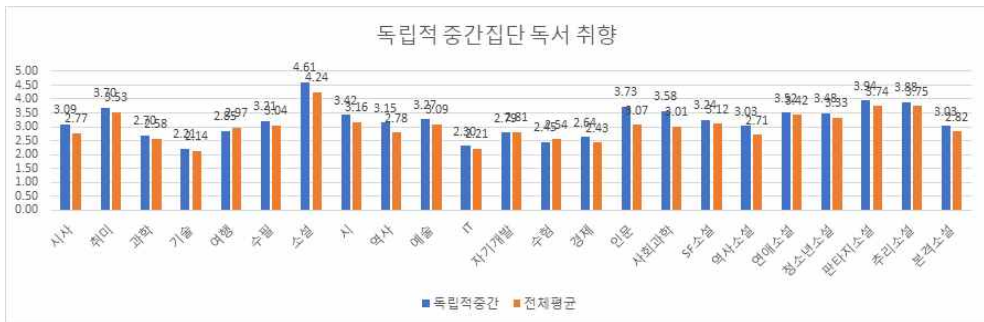
	무응답	자기지향	흥미	교훈 및 감동	구조적 완성도	독자 배려 및 공감	작가적 개성
소설 중요점	5.7%	13.2%	18.9%	15.1%	45.3%	0.0%	1.9%
전체 평균	10.9%	5.2%	12.3%	10.0%	51.1%	0.8%	9.8%

사회적 중간집단은 직관적 중간집단, 하위집단과 더불어 구조적 완성도에 대한 응답이 평균 이하로,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에 속한다. 반면 자기지향에 대해서는 모든 집단 중에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였으며, 흥미(18.9)에 대해서도 직관적 중간집단(20.7)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응답율을 보였다. 교훈 및 감동(15.1)의 경우도 하위집단(19.6)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응답율을 보였다. 상대적으로 구조적 완성도의 비중이 낮은 반면 흥미나 교훈 등 사회적인 소통의 주제가 될 수 있는 작품의 내용적 측면에 대한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주목할만한 점은 자기지향적 응답이 집단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것인데, 이는 사회적 중간집단이 지향하는 사회적 소통의 형태가 다소 자기중심적인 경향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자기중심성이 강한 청소년 학습자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도 볼 수 있다.

5) 독립적 중간 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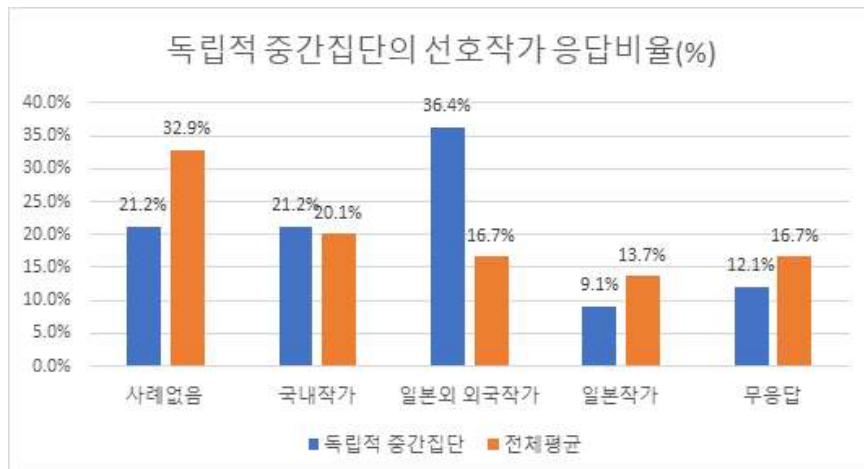
독립적 중간집단은 지식 자원과 심리적 자원이 우수하지만 사회적 자원이 낮은 집단이다. 지식 자원과 심리적 자원이 우수하기 때문에 상위집단의 성향을 갖지만 사회적 자원이 극단적으로 낮아 다른 집단과 구별되는 특수한 성향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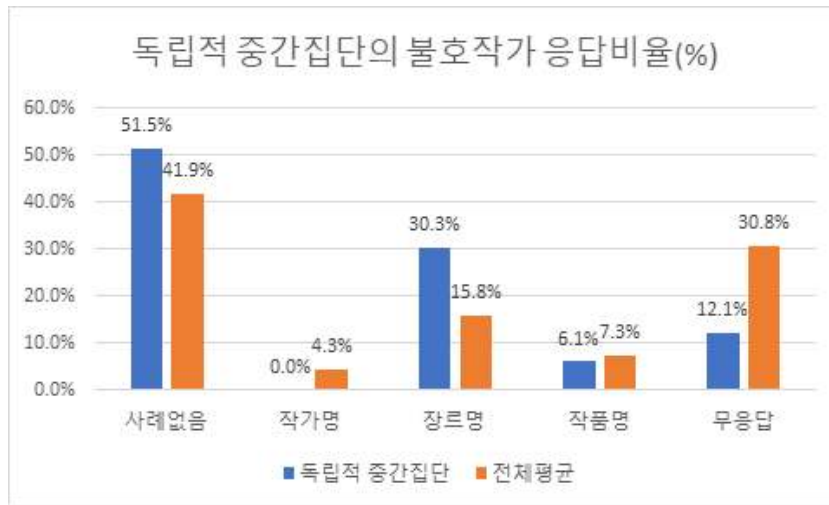
(1) 독서 취향



독립적 중간 집단은 지식 자원과 심리적 자원이 우수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위집단과 유사한 취향 양상을 보인다. 여행과 수험 도서를 제외한 모든 장르에 대해 평균 이상의 선호도를 보이지만, 대부분의 장르에서 상위집단보다는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낮다. 다만 취미 부분에서 평균 이하의 선호도를 보인 상위집단과는 달리 취미 부분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으며, 소설 장르에서는 연애소설, 청소년소설, 판타지소설에서 상위집단보다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전문지식 정보 관련 서적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았던 상위집단에 비해 큰 차이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취미나 흥미 관련 장르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소설 취향에 대한 서술형 응답에서는 선호작가와 불호작가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구체적인 양상은 아래 그래프와 같다.





독립적 중간집단은 선호작가에 대한 응답에서는 상위집단과 명백한 차이를 보였다. 국내 작가 선호도가 높았던 상위집단과는 달리 독립적 중간집단은 일본 외 외국작가에 대한 응답 비율(36.4)이 모든 집단들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같은 외국작가 중에서도 일본 작가에 대한 선호도는 전체 응답 평균 이하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앞서 자원과 취향 간 유의도 분석에서, 심리적 자원이 높을수록 국외작가 선호율이 높았고 사회적 자원이 높을수록 국내작가 선호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맥락에서 독립적 중간 집단이 보이는 경향은 높은 심리적 자원과 낮은 사회적 자원을 보여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불호작가 응답에서는 낮은 무응답 비율과 높은 사례없음 비율로 상위집단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지만, 장르명 보다는 작가명과 작품명에 대한 응답이 많았던 상위집단과는 달리 장르명에 대한 응답비율(30.3)이 모든 집단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독립적 중간집단은 선호작가 응답과 불호작가 응답 모두에서 사례없음 비율과 무응답 비율이에서는 상위집단의 경향성을 보였지만, 구체적 답변에서는 직관적 중간집단의 경향성을 훨씬 극단적인 형태로 보였다. 이러한 경향성은 독립적 중간 집단이 가진 우수한 심리적 자원과 낮은 사회적 자원 간에 배타적 연관 관계를 짐작하게 한다. 다시말해, 이러한 경향성은

자신의 문학적 역량에 대한 공고한 신뢰가 타인과의 사회적 소통에 대해 끼친 부정적 영향의 결과일 수 있다.

(2) 독자로서의 자의식



독립적 중간 집단의 독자로서의 자의식 양상은 각 항목의 값이 상위집단보다 미세하게 낮을 뿐 상위집단과 거의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

(3) 문학적 가치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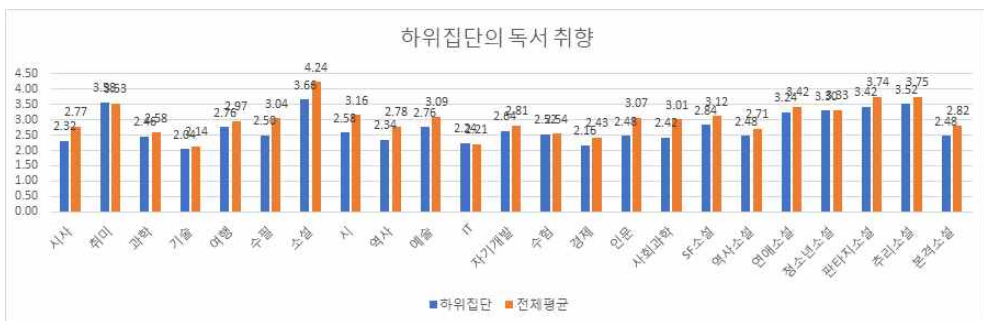
	무응답	자기지향	흥미	교훈 및 감동	구조적 완성도	독자 배려 및 공감	작가적 개성
소설 중요점	9.1%	6.1%	0.0%	6.1%	69.7%	3.0%	6.1%
전체 평균	10.9%	5.2%	12.3%	10.0%	51.1%	0.8%	9.8%

독립적 중간 집단의 경우 구조적 완성도에 대한 응답 비율(69.7)이 모든 집단들 중 가장 높으며 흥미, 교훈 및 감동, 작가적 개성 항목에서는 평균 이하의 낮은 응답 비율을 보인다. 이러한 경향성은 독립적 중간 집단의 높은 지식 자원 인식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높은 심리적 자원과 낮은 사회적 자원이 함께 영향을 미치면서 이러한 극단적 편중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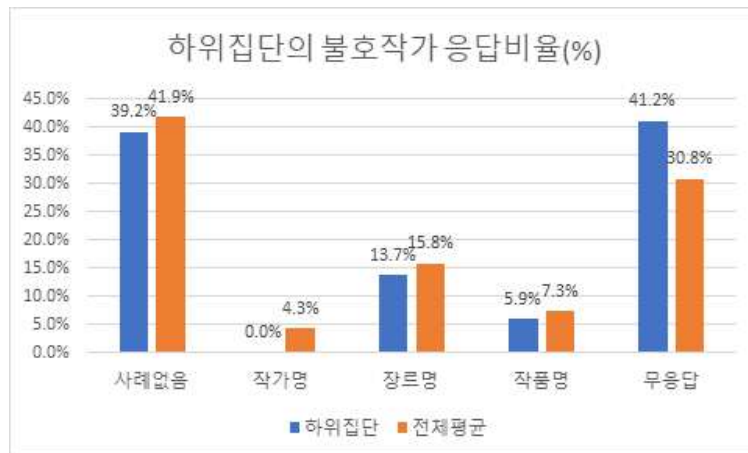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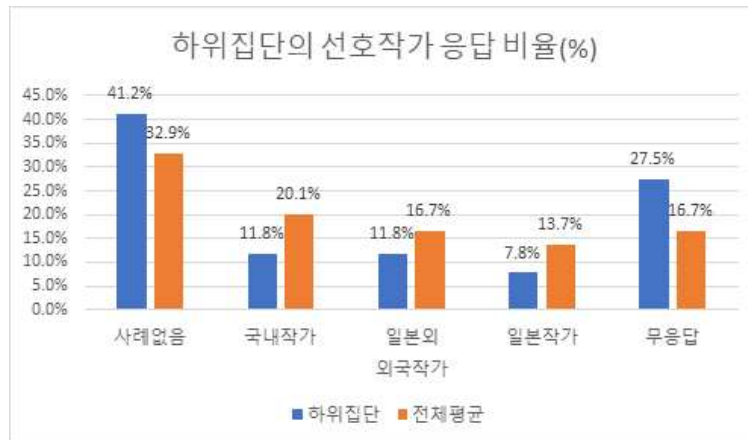
6) 하위집단

하위집단은 지식 자원, 심리적 자원, 사회적 자원 모두가 낮은 수준을 보이는 집단이며, 이는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 첫 번째가 소설 교육의 장 자체에 대한 무관심과 거부이며, 두 번째가 상위집단의 가치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이다.

(1) 독서 취향



하위집단은 하위집단은 각 장르별 응답 비율의 편차(표준편차 0.482)가 가장 작으며 취미 장르를 제외한 모든 장르에서 일관되게 전체 집단 평균 값보다 낮은 선호도를 보였다. 취미 장르에서만 평균보다 미세하게 높은 선호도를 보였으며, 전체 장르들 중 소설에 이어 두 번째로 선호도가 높다. 과학기술 및 인문학, 사회과학 등 전문적 지식에 대한 선호는 매우 낮으며, 소설 중에서도 역사소설,本格소설 등 지식의 양이 많거나 어려운 장르는 선호도가 낮았다. 도서 일반 장르에서는 취미와 소설이 3점 이상의 선호도를 보였고, 소설 장르 중에서는 연애소설, 청소년소설, 판타지소설, 추리소설이 3점 이상의 선호도를 보였다. 독서에 대해 전반적인 동기 부여가 낮으며, 흥미 위주의 독서를 선호하는 양상을 보인다.



선호작가에 대한 응답에서는 무응답 비율이 집단들 중 가장 높으며, 사례없음의 비율(41.2)도 교육적 중간집단(47.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아 선호 표현 응답의 구체성이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집단은 높은 무응답 비율을 제외하면 교육적 중간집단의 응답 비율과 거의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불호작가에 대한 응답에서도 무응답 비율이 집단들 중 가장 높아 소설에 대한 선호 표현에 무관심함을 보여준다.

(2) 독자로서의 자의식



독자로서의 자의식 양상은 교육적 중간집단, 사회적 중간집단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모든 수치가 집단 중 최하이며, 독서 선호도가 2점대인 유일한 집단이다.

(3) 문학적 가치부여

	무응답	자გი지향	흥미	교훈 및 감동	구조적 완성도	독자 배려 및 공감	작가적 개성
소설 중요점	13.7%	5.9%	13.7%	19.6%	41.2%	2.0%	3.9%
전체 평균	10.9%	5.2%	12.3%	10.0%	51.1%	0.8%	9.8%

하위집단도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구조적 완성도를 꼽았으나 그 응답 비율은 집단들 중 가장 작았다. 반면 교훈 및 감동에 대한 응답비율이 집단들 중 가장 높았는데, 자გი지향적 응답이나 흥미에 대한 응답보다 교훈 및 감동에 대한 응답비율이 높은 것은 자신을 독서로 이끌어줄 흥미 이상의 무언가에 대한 기대를 읽을 수 있다.

V. 교육적 시사점

1. 작용태로서의 태도 개념의 소설교육적 의의

이 연구에서는 그간 소설 교육에서 태도 교육을 다루어온 관점들을 바탕으로 정적 개념으로서 태도를 조망하는 시각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작용태로서 태도를 재조명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태도는 지식과 경험의 축적에 대한 결과로서 획득하는 하나의 상태가 아니라 세계를 바라보는 인지와 수행을 가능케하는 기능과 실질적인 언어 경험을 포괄하는 역동적이고 총체적인 사고 작용이다. 태도는 인지와 수행과 경험에 방향성을 부여하며, 그렇게 만들어진 인지와 수행과 경험들은 다시 태도를 구성하고 조정하여 변화시킨다.

이러한 작용태로서 태도를 조명하고 소설 교육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작용 양상을 포착하고 특정화해서 교육적 장으로 전환시킬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 주목한 것이 태도 중에서도 문학의 생활화 개념이다. 문학의 생활화는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태도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가치의 내면화, 체화된 태도라는 점에서 학습자에게 내면화된 인지 구조의 양상을 포착하기에 유효한 개념이라 판단하였다.

문학적 태도의 생활화 혹은 체화에 대한 논의는 학습자의 일상에서 문학이 소외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으며, 따라서 다분히 그 목적이 ‘바람직한 태도의 정착’으로 초점화되었다. 이러한 관점은 태도를 일상적인 문학의 향유에 중요한 요소로 조명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지만, 역설적으로 현재 학습자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문학 향유를 포괄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교육을 통해 바람직한 문학적 태도를 정착시키려면 그 이전에 문학적 태도가 없었거나 바람직하지 못했다는 전체

가 필요하다. 하지만 문학교육 이전에도 학습자들은 무수한 문학작품을 일상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접하고 있으며, 그 경험들 속에서 자신의 문학적 태도를 형성하고 있다. 바람직한 태도의 설정과 그것을 지향하는 교육적 방향성도 중요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학습자에게 체화된 문학적 태도와 인식이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 어떻게 형성되었고 어떻게 표출되는지를 포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체화된 태도의 양상을 포착하기 위해 부르디외의 아비투스 개념을 원용하였다. 그리고 체화된 주관적 인지 성향과 객관적 사회 조건 간의 간극을 극복하기 위해 제안된 아비투스 개념을 소설 교육의 장에 적용하기 위해 폴 리코르와 캐스린 흄의 서사이론을 함께 원용하였다. 이들의 서사이론에서는 작품의 창작과 독서를 다중의 미메시스를 통해 설명한다. 서사문학의 향유에서 중요한 것은 작가와 독자에 의해 구성되고 상호작용하고 새롭게 탄생되는 미메시스이며, 캐스린 흄은 미메시스에 작가 혹은 독자가 구성한 ‘합의된 리얼리티’라는 개념을 추가하였다. 서사문학의 장에서는 작가든 독자든 ‘주체가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현실 개념’이 문학적 세계관 형성의 기반이 된다.

그러므로 소설 교육의 장에서 학습자의 체화된 태도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구성한 합의된 리얼리티를 포착해야 한다. 학습자가 소설을 향유하는 과정에서 합의된 리얼리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학습자의 취향과 태도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며, 이를 위해 학습자가 인식하는 합의된 리얼리티와 태도의 영향관계를 소설 교육의 장과 자원, 취향으로 구체화하였다.

이 논의는 학습자의 인식과 태도의 양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소설 교육에서 태도 교육을 설계하기 위한 방향을 설정하면서 동시에 서사적 주체가 구성하는 세계관의 확장적 순환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한 방법으로서도 의의를 가진다. 이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았으나, 이 영향 관계는 나아가 학습자의 작품 창작과 감상에도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영향의 구체적 양상을 밝히기 위한 후속연구로도 이어질 수 있다.

2. 학습자 자기인식 양상의 특수성

앞의 논의에서 장, 자원, 취향의 관계를 통해 소셜 교육의 장 안에서 학습자가 체화한 자기인식 양상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나타난 인식 양상의 특수성은 아래와 같다.

1) 장르에 대한 선호도

도서 장르	선호도 평균	표준편차
시사	2.77	1.203
취미	3.53	1.169
과학	2.58	1.269
기술	2.14	1.186
여행	2.97	1.229
수필	3.04	1.253
소설	4.24	0.999
시	3.16	1.303
역사	2.78	1.274
예술	3.09	1.186
IT	2.21	1.138
자기계발	2.81	1.320
수험	2.54	1.260
경제	2.43	1.210
인문	3.07	1.372
사회과학	3.01	1.330

우선 소설 장르에 대한 선호도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위 표는 도서 일반 장르에 대한 선호도 응답 결과의 평균 및 표준편차이다. 소설의 선호도 평균값은 4.24로 전체 장르 중 유일하게 4점대 선호도를 보였으며, 2위인 취미 장르의 3.53에 비해 월등히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표준편차 역시 0.999로 전체 장르 중 유일한 소수점 이하값을 보여, 응답자 대부분이 일관되게 가장 선호하는 장르로 소설을 선택했음을 보여준다. 사례 분석을 위해 다양한 집단으로 나누어 취향과의 유의도 분석을 진행했으나

대부분의 집단에서 소설 장르의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 집단과 조건 설정에 따라 응답에 영향관계나 변화가 거의 없어 유의미한 분석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웠다. 다만 소설의 하위장르에 대해서는 선호도가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충분히 분석 대상으로 삼을 수 있었다. 이는 현 세대의 학습자들도 소설을 주된 문학적 향유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시 장르에 대한 선호도인데, 시는 소설, 취미에 이어 세 번째로 선호도 평균이 높았으나, 표준편차가 1.303으로 상대적으로 응답에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관련한 분석 과정에서 나타난 특수한 양상이 시 장르에 대한 취향이 부모, 교사, 또래친구의 독서 선호도 및 SNS 소통 참여도와 유의한 상관 관계를 보였다는 점이다. 부모, 교사, SNS의 경우에는 선호도와 참여도에 비례하여 응답자의 시 장르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였다. 명확한 비례 관계를 보이고 있어 학습자들이 시 장르를 부모, 교사, SNS와의 소통 및 영향 관계에서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대로 또래친구에 대해서는 친구의 선호도 인식을 낮게 인식할수록 시 장르에 대한 선호도를 높게 응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의 세 경우와 다르게 또래친구의 독서 선호도 인식과 시 장르 선호도는 반비례하는 형태로 상관관계를 갖는데, 이것은 부모, 교사, SNS와 또래 친구를 차별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시 장르를 해당 주체나 미디어를 서로 구별하는 코드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2) 장에서 구성원 간 관계에 대한 대응

응답자의 일반적인 경향성으로, 학교 교육이나 가정을 통해 문학 역량이 학습자보다 우월한 것으로 간주되는 교사 혹은 부모와 같은 장의 구성원들로부터 전수되는 영향 관계에 대해 크게 저항감을 갖는다거나 부정적인

태도가 나타나지 않았다. 부모의 독서에 대한 선호도를 높게 인식할수록 유의미한 관련을 갖는 도서 장르에 대한 선호도 또한 높게 인식되었으며, 가정의 장에서 이루어지는 독서에 대하여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가정의 도서 인프라나 취향을 부모가 구성하는 것에 저항하지 않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동시에 자신의 취향에 대한 표현에서는 부모의 영향에서 벗어난 답변을 하여 부모의 영향력과 자신의 취향을 독립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경우도 부모의 경우와 유사한 장르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마찬가지로 교사의 도서 선호도를 높게 인식할수록 관련 도서 장르에 대한 선호도를 높게 인식하였다. 또한 SNS 참여도에 대한 양상이 부모나 교사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도 주목할 만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SNS는 또래친구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성인들과도 소통할 수 있는 매체이면서 동시에 사적 계정을 통해 소통한다는 형식적인 요소가 상대를 익명의 대상이 아닌 실제 인간관계를 맺은 인격체로 인식하게하는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특성들 때문에 SNS가 부모나 교사와 유사한 대상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짐작된다.

반면 형제자매와 또래친구에 대해서는 정확한 비례관계가 나타나지 않으며, 형제자매의 경우 오히려 형제자매의 도서 선호도를 높게 인식하는 경우 관련 도서 장르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지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상대의 도서 선호도에 감화되는 부모나 교사의 경우와는 다르게 형제자매를 일종의 경쟁자로 인식하여 상대의 높은 도서 선호도가 자신의 역량을 저평가하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래 친구에 대해서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 장르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부정적 영향관계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응답자들은 장 속에서 부모나 교사와 같이 일반적으로 문학적 역량이 뛰어난 구성원의 상태에 감화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형제자매나 또래친구에 대해서는 문학적 역량에 대해 높게 평가하거나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모든 장에서 공통적으로 각 장에서 도서 인프라에 대한 유의도 검정에

서 해당 장에서 요구되는 취향과 자기 고유의 취향을 분리해서 인식하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가족의 도서 이용빈도와 관련 장르에 대한 선호도는 대체로 비례하는 양상을 보이거나, 취미, 시 등 주관적 감성의 영역에 있는 장르의 경우 이용 빈도가 낮은 경우에 더 높은 선호도를 보인다. 가족들과 취향이 다를 경우 가족의 책 이용빈도가 낮아지면서 동시에 해당 장르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것이다. 또한 학교 도서관 이용 빈도의 경우 보다 직접적인 경향성을 보였는데, 도서관 이용 빈도가 높은 응답자가 관련 장르 도서의 선호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것 역시 자신의 실제 취향과 도서관의 이용 목적 간에 괴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3) 문학 역량에 대한 척도로 기능하는 코드

응답자들이 장 안에서 구성원 간의 문학적 역량을 구별짓고 가늠하기 위해 나름의 코드들을 구성하게 되는데, 분석을 통해 발견된 코드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도서관 이용 빈도가 높은 학습자의 장르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보통이나 자주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습자의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학습자의 취향과 도서관의 도서 인프라 간에 어긋남이 있음을 보여준다. 자신의 취향 선호를 덜 드러내는 학습자가 도서관을 더 자주 이용하고 자신의 선호를 드러내는 학습자들이 도서관에 가지 않는 양상을 보이는 것에서, 학습자들이 교육의 장에서 도서 인프라를 이용하는 것에 자신의 취향 이외의 의미 부여를 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자신의 취향과 긴밀한 관계없는 다른 목적, 말하자면, 교육의 장 안에서 문학적 위계가 높은 상태를 지향하는 코드로 도서관 이용을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한 현상이 역사, 예술, 수험, 경제 등의 전문 분야에 비하여 취미와 같은 개인의 주관적 취향에 관한 장르에서 더 뚜렷하게 드러난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또한 심리적 자원의 경우 높아질수록 국외작가 선호율이 높아지고, 사회적 자원의 경우 높아질수록 국내작가 선호율이 높아지는 뚜렷하게 대조적인 경향성을 보였다. 이 역시 국외 작가에 대한 선호 취향을 자신의 심리적 자원 및 사회적 자원과 연관되는 코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4) 학습자 집단별 특성

각 자원의 수준에 따라 응답자를 6가지 집단으로 구별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집단별로 주목할만한 특성들이 나타났다. 우선 독자로서의 자의식 차원에서 상위집단과 독립적 중간집단, 직관적 중간집단이 유사한 경향성을 보였으며, 교육적 중간집단, 사회적 중간집단, 하위집단이 유사한 경향성을 보였는데, 이는 심리적 자원의 영향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불호작가에 대한 응답 비율 항목에서도 독립적 중간집단에서 상위집단과 직관적 중간집단의 특성이 혼합되어 나타났다. 반면 교육적 중간집단의 경우 앞서 언급한 독자로서의 자의식 외에는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집단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심리적 자원을 공유하고 있는 집단 간의 유사성이나, 지식 자원의 특성이 모호하게 발현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보아, 지식 자원과 심리적 자원이 함께 작용할 경우 학습자의 취향에 심리적 자원이 더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짐작된다.

상위집단의 경우 응답의 적극성이나 취향의 구체성 등으로 미루어보아 스스로 소설 교육의 장 안에서 문학 능력으로 상위의 위계에 위치한다는 자의식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를 전문 학술서적과 문학, 예술에 대한 선호 취향으로 드러낸다. 하지만 교육적 중간집단의 경우 상위집단과 마찬가지로 지식 자원을 중시하여 전문지식 관련 장르에 대한 선호를 보이나 상위집단과는 다르게 문학과 예술 항목에 대한 선호도가 낮게 나타난다. 낮은 심리적 자원의 영향으로 응답의 적극성도 떨어지며 상위집단의

지식 자원을 지향하지만 실제로 나타나는 취향은 오히려 하위집단과 유사성을 갖는 부분이 적지 않다.

독립적 중간집단의 경우 심리적 자원과 사회적 자원이 서로 배타적 영향 관계에 있는 양상을 보였다. 독립적 중간집단은 도서장르 취향에서는 상위집단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거나, 선호작가 및 불호작가에 대한 응답에서는 직관적 중간집단의 성향을 훨씬 증폭된 형태로 보였으며 동시에 사회적 중간집단에 대해 반대되는 경향성을 보였다. 또한 소설의 중요점에 대한 서술형 응답에서 구조적 완성도에 대해 극단적으로 편중된 응답을 보이는 것과 같은 양상들을 볼 때, 독립적 중간집단은 우수한 지식자원과 강한 심리적 자원을 바탕으로 작품에 대한 자신의 판단의 합리성을 강하게 신뢰하고 있으며, 이것이 사회적 소통에 대한 장애물로 작용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3. 소설 교육에서 태도 교육 설계에 대한 제언

이상의 논의를 통해 소설 교육의 장 안에서 학습자들이 인식과 취향을 구성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논의들을 통해 소설 교육에서 태도 교육 설계와 관련하여 제언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2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먼저 태도의 개념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현재까지의 태도 관련한 연구들은 태도를 결과론적인 관점에서 다루어왔다. 태도는 정서와 인지를 아우르는 포괄적 개념의 위상을 가지기는 했으나, 다른 활동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행동의 결과로 간주되었으며, 목적된 태도를 이끌어내는 유효한 수단이라고 증명된 교육적 방법론이 드물기 때문에 태도 자체는 교육의 초점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었다. 연구의 장뿐 아니라 실제 교육 현장에서도 학습자들이 태도에 대해 실질적으로 고민하고 자신의 태도를 재구성하는 경험이 교육과정이나 교과서를 통해 효과적으로 구체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결과로서 바람직한 태도를 형성하는 것을 지향하는 현재의 관점에서 벗어나, 태도를 문학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에 기반하여 문학 향유 활동 전반에 관여하는 작용태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독자반응이론 이후 문학에 대한 해석도 바람직한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해석의 과정을 경험하고 근거를 탐구하면서 작품과 자아에 대해 이해를 심화하는 활동으로 해석의 패러다임이 옮겨왔듯이, 바람직한 태도로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아님 독서 활동을 통해 자신의 태도에 대해 가치중립적으로 성찰하고 그 양상과 근원에 대해 탐구해나가는 과정을 통해 작품과 자신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교육적 패러다임을 구성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태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실체화하여 성찰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체화된 문학의 양상으로서 학습자의 자기인식을 살펴보았으며, 그러한 양상을 학습자 스스로 탐구하는 것이 새로운 태도 교육 설계의 방향으로 적절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제언을 대신하여 그러한 방향성을 견지한 태도 교육의 가능한 한 양상을 설명하고자 한다.

학습자가 초인지적으로 자신의 태도를 성찰하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속한 소설 교육의 장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그러나 학습자마다 관계하는 장의 비중이 다르고 영향을 받는 자원의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장에서 어떤 자원이 작용하는지를 먼저 인식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학습자들은 스스로의 취향과 문학 작품에 대한 감상 등 실제로 인식할 수 있는 특질들을 바탕으로 문학적 가치 부여 모델을 통해 자신이 어떤 계기와 과정을 통해 문학에 대한 자기 인식을 형성해왔는지를 추론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학습자가 자신을 둘러싼 소설 교육을 구성하는 장에 대해 인식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문학 경험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요인들에 대해 살펴보고 각 영역별로 구조화되어있는 구성 요소들을 살펴본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어떤 장을 인식하고 있고, 그 장들을 구별하기 위해 어떤 코드들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성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실제 자신을 둘러싼 영

역의 구성원이나 요소들을 하나하나 리스트화 하여 적어두고, 각각의 구성원들이 소설 교육의 장 안에서 자신에게 어떤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지를 기술하거나, 자신이 어떤 영역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는지 각 영역별 중요도와 영향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함께 정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 학습자가 스스로 자신이 속해있는 소설 교육의 장을 살펴보고 구도를 구성하도록 유도한다. 이후에 그 장 안에서 지식자원, 심리적 자원, 사회적 자원의 세가지 문학적 자원이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살펴본다. 구성한 장에 따라 세 가지 자원의 가치와 비중도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장별로 학습자 자신과 그 구성원들이 상호주관적으로 해당 자원에 대해 어떤 관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정리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들 간에 문학적 취향에 대한 토론을 수행하게 하거나, 다른 학습자의 감상문 등을 자료로 분석하게 하는 등 상호주관적 위계에 대하여 근거자료가 될 수 있는 경험들을 제공한다.

다음으로는 그렇게 성찰한 자기인식이 실제 작품 읽기나 창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활동을 진행하면 보다 직접적으로 인식의 작용과 결과를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소설 작품에 대해 감상문을 작성하고 감상문에 대한 초인지적 분석을 통해 소설 교육의 장 안에서 구성된 집단적 특성과 연관되는 자기인식과 취향들을 확인한다. 이 과정만으로도 소설을 둘러싼 자신의 인지구조와 태도 요소들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 한걸음 더 나아가 확인한 태도 요소들의 양상을 분석해보고 학습자간 공유 등을 통해 태도를 심화하거나 개선하고 조정할 부분이 있는지를 성찰해보는 것도 가능한 태도 교육의 방법이다.

이 연구는 체화된 정체성 및 가치로서 태도를 재조명하고, 소설 교육에서 새로운 태도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실증적인 연구라는 점에 그 의의를 두고 있다. 그간의 선언적인 태도 교육 연구의 경향성에서 벗어나 학습자의 현 상태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 학습자의 실제 정보가 담지하는 의미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연구 대상이 양적으로 충분치 못하다는 점과, 방법론이 엄밀치 못하여 무리하게 원용한 측면이

있다는 점은 이 연구의 한계이다. 향후 새로운 태도 교육 설계에 대한 후속 연구를 통해 이 연구의 의의를 발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학습자 대상 설문지

연구 과제명 : 소설에 대한 학습자의 자기 인식 연구

연구 책임자명 : 한태구(서울대학교 국어교육학과 박사과정)

본 설문은 박사 학위 논문 ‘소설에 대한 학습자의 자기 인식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소설과 소설 독서에 관련한 귀하의 경험과 가치관에 대한 질문에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설문의 결과는 연구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응답자의 익명성은 철저히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자 연락처 : 010-0000-0000)

I 부. <아래는 독서 일반에 대한 설문입니다.>

1. 학교명을 적어주세요

2. 성별을 적어 주세요.

3. 학번을 적어주세요.

4. 책 읽기를 좋아하시나요?

아주 싫어한다	조금 싫어한다	보통이다	조금 좋아한다	아주 좋아한다

4-1. 좋아하거나 싫어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5. 아래 여러 종류의 책들에 대해 본인이 흥미를 가지는 정도에 따라 1~5까지 숫자를 적어 주세요.(1은 전혀 흥미 없음. 2는 거의 흥미 없음. 3은 보통. 4는 조금

흥미 있음. 5는 아주 흥미 있음)

- 시사 관련 서적()
- 취미 관련 서적()
- 과학 서적()
- 기술 공학 서적()
- 여행 관련 서적()
- 수필()
- 소설()
- 시()
- 역사 관련 서적()
- 예술, 대중문화 관련 서적()
- 컴퓨터 IT 관련 서적()
- 자기개발서()
- 수험 관련 서적()
- 경제 경영 관련 서적()
- 인문학 관련 서적()
- 사회과학 관련 서적()

6. 책은 보통 어떤 경로로 접하나요? 자주 이용하는 정도에 따라 1~5까지 숫자를 적어 주세요.(1은 전혀 이용해본 적 없음, 2는 거의 이용하지 않음, 3은 보통, 4는 자주 이용함, 5는 아주 자주 이용함)

- 서점에서 구입()
- 도서관에서 대출()
- 지인에게 빌림()
- 인터넷 도서 구입()
- 웹 연재물()
- 집에 있는 가족의 책()

7. 본인이 생각하기에 본인의 독서량은 또래 친구들에 비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나요?

아주 적은 편이다	조금 적은 편이다	보통이다	조금 많은 편이다	아주 많은 편이다

8. 본인이 생각하기에 주변의 사람들은 독서를 얼마나 좋아하나요? 책을 좋아하거나 자주 읽는 정도에 따라 1~5의 숫자를 적어주세요.(1은 전혀 좋아하지 않음, 2는 거의 좋아하지 않음, 3은 보통, 4는 조금 좋아함, 5는 아주 좋아함.)

- 또래 친구들()
- 부모님()

- 형제자매()
- 교사()

9. 주변 사람들과 종종 책을 서로 추천하고 추천 받는 편인가요? (예 / 아니오)

9-1. 추천에 대해 특히 믿을만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9-2. 추천에 대해 믿음이 안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9-3. 최근에 본인이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한 책의 제목을 적고, 추천한 이유를 적어주세요.

9-4. 본인이 생각하기에, 본인의 추천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고 왜 그렇게 반응했다고 생각하시나요?

10. 읽은 책과 관련하여 주변 사람 외에 다른 소통 대상이 있나요? 아래 대상들에, 본인의 의견을 게시하거나 타인의 의견을 듣기 위해 이용하는 정도에 따라 1~5의 숫자를 적어 주세요.

(1은 전혀 이용해본 적 없다. 2는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 3은 보통. 4는 자주 이용한다. 5는 아주 자주 이용한다.)

- | | |
|------------------|----------------------------|
| - 인터넷 게시판() | - Youtube 등 동영상 사이트() |
| - 개인 블로그() | - 오프라인 독서 모임() |
| - SNS() | - 오프라인 독서 관련 행사() |

Ⅱ 부. <아래부터는 소설 독서에 관련한 설문입니다.>

1. 소설 읽기를 좋아하시나요?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	거의 좋아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조금 좋아한다	아주 좋아한다

2. 소설 독자로서 본인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주 미숙한 독자	조금 미숙한 독자	보통	조금 능숙한 독자	아주 능숙한 독자

3. 한 해 동안 소설 작품을 몇 편정도 읽나요? (동화 포함 장르 무관, 장편 단편 등의 작품의 길이에 관계없이 작품 한편으로 간주)

4. 어떤 장르의 소설을 좋아하나요? 좋아하는 정도에 따라 1~5의 숫자를 적어주세요.

(1은 전혀 좋아하지 않음. 2는 거의 좋아하지 않음. 3은 보통. 4는 조금 좋아함. 5는 아주 좋아함.)

- | | |
|-----------------|-----------------|
| - SF 소설() | - 판타지 소설() |
| - 역사 소설() | - 추리 소설() |
| - 연애 소설() | -本格 소설() |
| - 청소년 소설() | |

5. 좋아하는 작가가 있다면 적고, 어떤 점이 좋은지 설명해주세요.(복수 응답 가능, 실제 작가를 적기 어렵다면, 어떤 작가가 좋은 작가라고 생각하는지 써주세요.)

6. 좋아하는 소설 작품을 들고 어떤 점이 좋은지 설명해주세요.(복수 응답 가능, 실제 소설을 들기 어렵다면, 어떤 특징을 가진 소설을 좋아하는지를 써주세요.)

7. 본인의 취향에 맞지 않는 작가나 작품이 있다면 적고,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복수 응답 가능, 실제 작가나 소설을 선택하기 어렵다면, 어떤 특징을 가진 작가나 소설이 본인 취향이 아닌지 써주세요.)

8. 현재 어떤 소설들이 인기가 많은가요?

8-1. 그 소설들이 인기 있는 상황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어떤가요?

9. 본인이 소설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를 적고, 그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10. 소설을 읽고 쓰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11. 좋은 소설이란 어떤 소설인가요? 본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써주세요.

참고문헌

1. 자료

교육부,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별책5], 2022
교육부, 『중학교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별책3], 1997
노은희 외, 『202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시안(최종안) 개발 연구』, 교육부
11-1342000-000911-01, 2022

2. 논저

김경희, 『정서심리학』, 박영사, 2004
민동원, 『문화적 배경과 체화된 인지』, 집문당, 2016
배식한, 『인터넷 하이퍼텍스트 그리고 책의 종말』, 책세상, 2000
양은경 외, 『문화와 계급: 부르디외와 한국사회』, 동문선, 2002
이상길, 『상징권력과 문화』, Culture Look, 2020
이동훈 외, 『프레임은 어떻게 사회를 움직이는가』, 삼성경제연구소, 2012
현택수, 『문화와 권력: 부르디외 사회학의 이해』, 나남출판, 1998
황정규, 『학교학습과 교육평가』, 교육과학사, 1984
홍성민, 『취향의 정치학: 피에르 부르디외의 『구별짓기』 읽기와 쓰기』, 현
암사, 2012
홍성민, 『문화와 아비투스: 부르디외와 유럽정치사상』, 나남출판, 2000
Erwin, P., *Attitudes and persuasion*, 고은경 역, 『태도와 설득』, 시그
마프레스, 2006
Bourdieu, P., *La Distinction: critique sociale du jugement*, 최종철
역, 『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上, 下, 새물결, 2006
Bourdieu, P, Passeron, J, *La Reproduction*, 이상호 역, 『재생산』, 동

- 문선, 2003
- Bourdieu, P., Sur La Television, 현택수 역, 『텔레비전에 대하여』, 동문선, 2006
- Bourdieu, P., *Language and Symbolic Power*, 정일준 역, 『상징폭력과 문화재생산』, 새물결, 1997
- Bourdieu, P., *Meditations pascaliennes*, 김웅권 역, 『파스칼적 명상』, 동문선, 2001
- Bourdieu, P., *Algérie 60: structures économiques et structures temporelles*, 최종철 역, 『자본주의의 아비투스 - 알제리의 모순』, 동문선, 1955
- Bourdieu, P., *Homo academicus*, 김정곤 외 역, 『호모 아카데미쿠스』, 동문선, 2005
- Bourdieu, P., *Les règles de l'art*, 이태환 역, 『예술의 규칙: 문학 장의 기원과 구조』, 동문선, 2002
- Bourdieu, P., The Forms of Capital,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 edited by John G. Richardson New York : Greenwood Press, 1986
- Goffman, E., *Frame analysis: An essay on the organization of experience*. Cambridge, Miami : HarvardUniversityPress, 1974
- Hume, K., *Fantasy & Mimesis*, 한창엽 역, 『환상과 미메시스』, 푸른나무, 2000
- Lakoff, G., *Thinking points : communicating our American values and vision : a progressive's handbook*, 나익주 역, 『프레임 전쟁: 보수에 맞서는 진보의 성공전략』, 창비, 2007
- Lamont & Lareau, 'Cultural Capital: Allusion, Gaps and Glissandos in recent Theoretical Development', Sociological Theory Vol 6, No 2,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1988,

pp.153-168

Lipovetsky, G., *Le bonheur paradoxal*, 정미애 역(2009), 『행복의 역설』, 알마

Martin & Briggs(1986), *the Affective and Cognitive Domains : Intergration for Instruction and Research*, New Jersey : Educational Technology Publications. 1986,

Pinto, L., *Pierre Bourdieu et la theorie du monde social*, 김용숙 외 역, 『부르디외의 사회학 이론』, 동문선, 2003

Reeve, J., *Understanding motivation and emotion*, 정봉교 역, 『동기와 정서의 이해』, 박학사, 2011

Ricoeur, P., *Temps et récit*, 김한식 외 역, 『시간과 이야기 1』, 문학과 지성사, 2000

Tannen,D., *What's in a frame? Surface evidence for underlying expectations*. In R.Freedle(Ed.), *New directions in discourse processing*. (137-181). Norwood,NJ:Ablex, 1979

3. 연구논문

강명구 외, 「이론과 현실 사이에서=부르디외 이론의 적용과 변용, 혹은 생성」, 『언론과 사회』 19권 4호, 2011, pp.87-133

강진아 외, 「가르치는 몸: 초등교사의 아비투스에 대한 자문화기술지」, 『한국교원교육연구』 40권 3호, 한국교원교육학회, 2023, pp.231-260
고광식, 「‘언어적 아비투스를 통한 영화 <언터처블>의 주인공들의 언어행위 분석: 부르디외 이론의 적용성과 한계」, 『한국프랑스학논집』 118집, 한국프랑스학회, 2022, pp.59-86

권미화 외, 「청소년소비자의 소비가치에 따른 집단간 차이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제7권1호, 한국청소년학회, 2000, pp.169-193

- 권순금, 「고전에서 의 일상생활과 문학-문학생활화의 방식을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7권, 한국문학교육학회, 2001, pp.41-68
- 김경만, 「사회과학에 대한 부르디외의 성찰적 과학사회학: 성과와 한계」, 『사회과학연구』 16권 2호,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8, 42-74
- 김대행, 「문학 생활화의 패러다임」, 『문학교육학』 7권, 한국문학교육학회, 2001, pp.9-23
- 김대행, 「국어교과학을 위한 언어 재개념화」, 『선청어문』 30호, 서울대 국어교육과, 2002, pp.29-54
- 김대행, 「내용론을 위하여」, 『국어교육연구』 10,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2002, pp.7-37
- 김도희, 「MZ세대의 '갤러리 오픈런' 현상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인문사회 21』 13집 4호, 인문사회21, 2022, pp.79-94
- 김상욱, 「어린이 문학의 특성과 어린이 문학의 생활화」, 『문학교육학』 8권, 한국문학교육학회, 2001, pp.13-34
- 김상욱, 「문학교육, 도약을 위한 성찰-삶, 생활을 위한 문학교육을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38권, 한국문학교육학회, 2012, pp.69-97
- 김서윤, 「문학의 가치에 대한 고등학생 학습자의 인식과 문학 태도 교육」, 『청람어문교육』 81권, 청람어문교육학회, 2021, pp.101-131
- 김수이, 「문학비평 방법론의 적용, 변주를 통한 문학교육:작가비평, 주제비평, 복수의 비평적 관점을 적용한 문학교육에 대한 상상」, 『한국문예비평연구』 25호,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8, pp.439-458
- 김영실 외, 「수학 수업에서 발휘되는 초등학교 교사들의 아비투스 분석」, 『열린교육연구』 30집 1호, 한국열린교육학회, 2022, pp.177-205
- 김영실 외, 「수학수업에서 발휘되는 초등학교 교사들의 아비투스 분석」, 『열린교육연구』 제30권1호, 한국열린교육학회, 2022, pp.177-205
- 김은성, 「국어 문법 교육의 태도 교육 내용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 김은성, 「국어지식영역의 정의적 범주에 대한 고찰」, 『국어교육학연구』 22권, 국어교육학회, 2005, pp.125-157
- 김정우, 「국어과 교육과정에서의 정의교육 범주에 대한 연구 : 내용 체계 및 위계의 문제를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12권, 한국문학교육학회, 2003, pp.11-40
- 김종률, 「국어과 정의적 사고의 유형화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49권 3호, 국어교육학회, 2014, pp.94-136
- 김종철, 「대학 교양교육으로서의 문학교육의 방향-성인의 문학 생활화와 관련하여」, 『문학교육학』 10권, 한국문학교육학회, 2002, pp.75-94
- 김창원, 「고전문학의 생활화에 관한 하나의 단상-향가를 예로 하여」, 『문학교육학』 10권, 한국문학교육학회, 2002, pp.95-112
- 김창원, 「2015 교육과정을 통해 본 국어과 교육과정 발전의 논제 -영역과 내용 체계」, 『국어교육학연구』 51집,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2016, pp.6-35
- 김천기, 「부르디외의 장, 아비투스 이론의 적용 가능성과 난점: 학교와 교사의 성향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17권 3호, 한국교육사회학회, 2007, pp.79-99
- 김혜영, 「문학교육의 문화적 지향 고찰」, 『교육문화연구』 24권 3호, 인하대 교육연구소, 2018, pp.205-220
- 나은영, 「태도 및 태도 변화 연구의 최근 동향」, 『한국심리학회지』 8권 2호, 한국심리학회, 1994, pp.3-33
- 나종민, 「부르디외의 장 이론 관점에서 본 혁신학교 교원들의 권력관계 특성」, 『교육사회학연구』 25권 1호, 한국교육사회학회, 2015, pp.79-103
- 박인기, 「국어과 교육에서 정의교육의 향방과 재개념화」, 『국어교육학연구』, 국어교육학회, 2000, pp.1-25
- 박정호 외, 「부르디외의 예술사회학에 대한 비판적 검토: '상징적 재화의 경제'에 함축된 '예술의 주술 종교적 본성'과 '경제적 환원론'을 중심으로」, 『사회와 이론』 16집, 한국이론사회학회, 2010, pp.79-116

- 박종임, 「2011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태도’ 범주의 문제점 고찰 - 쓰기 영역을 중심으로」, 『청람어문교육』 44집, 청람어문교육학회, 2011, pp.249-268
- 박준홍, 「뉴스 이해 능력 신장을 위한 국어교육 내용 연구 - 틀(frame)인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6
- 박진영, 「1960년대 후반의 대중소비사회 담론과 증상으로서의 글쓰기-김승옥의 『60년대식』을 대상으로」, 『현대소설연구』 80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20, pp.151-173
- 박치범, 「국어과 교육과정 문학 영역 교육 내용 변천에 관한 연구 -내용성취 기준의 서술어 분석을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제40호, 한국문학교육학회, 2015, pp.133-170
- 선주원, 「초등학교 문학교육에서 ‘태도’범주의 교육 내용과 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초등국어교육』 50권,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2012 pp.161-188
- 양은아, 「부르디외 실천이론과 행위와 구조의 동학: 아비투스 개념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33권 1호, 한국교육사회학회, 2023, pp.69-110
- 양종희, 「문화적 취향의 분화와 계급」, 『한국사회학』제43집5호, 2009, pp.170-209
- 이미은 외, 「독서문화현상과 문화권력 -독서캠페인과 권장도서목록을 중심으로-」, 『마인드연구』 1권1호, 마인드교육융합학회, 2022, pp.165-184
- 이미은 외, 「독서문화현상과 문화권력」, 『마인드교육』 1집, 마인드교육융합학회, 2022, pp.165-184
- 이수민 외, 「어머니의 사교육 실천의 구조적 원인:부르디외의 아비투스를 활용한 질적 메타분석」, 『교육사회학연구』제31권4호, 한국교육사회학회, 2021, pp.101-140
- 이성희, 「부르디외의 ‘아비투스’, 장, 자본의 상호형성 매커니즘 -이론적

- 고찰과 경험적 연구의 활성화 방안-], 『교육사회학연구』 23권 2호, 한국교육사회학회, 2013, pp.151-171
- 이윤미, 「초등교사의 아비투스를 통한 교육과정 실행 행위와 현상 해석」, 『통합교육과정연구』 제14권1호, 한국통합교육과정학회, 2020, pp.45-74
- 이인화, 「문학교육에서 수용 계열 개념어에 대한 연구」, 『문학교육학』 76집, 한국문학교육학회, 2022, pp.283-330
- 이주영, 「어린이문학 생활화 방법과 실천 사례」, 『문학교육학』 8권, 한국문학교육학회, 2001, pp.149-166
- 이혜선 외, 「아비투스 실천으로서 기 부르댕의 패션사진 연구-피에르 부르디외 이론을 바탕으로-」, 『기초조형학연구』 21집 6호, 한국기초형학회, 2020, pp.505-521
- 장봉기 외, 「국어과 학습 관련 정의적 요소와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 연구 - 자아효능감, 흥미, 가치 인식과 수업 몰입,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국어교육』 144호, 한국어교육학회, 2014, pp.431-464
- 장서란, 「취향 탐구를 통한 현대시 교육 연구」, 『국제어문』 92호, 국제어문학회, 2022, pp.295-315
- 장지혜, 「가치 해석 글쓰기의 정당화 기제 생성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20
- 전기정, 「한중 웹소설의 특징 및 시장 현황 비교 분석」,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21집 2호,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20, pp.55-75
- 정경희 외, 「패션 브랜드 팬덤의 아비투스와 창조적 생산성」,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제26권4호, 한국디자인문화학회, 2020, pp.433-456
- 정과리, 「이 아이들을 어찌할 것인가? - 판타지 소설 붐을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7권, 한국문학교육학회, 2001, pp.107-114
- 정선기, 「Bourdieu의 구성적 구조주의와 사회적 장의 동학」, 『사회과학연구』 35권 1호,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24, pp.3-25

- 정혜승, 「읽기 태도의 개념과 성격」, 『독서연구』 16호, 한국독서학회, 2006, pp.383-405
- 조남현, 「소설교육의 정향(定向)과 대중소설 문제」, 『문학교육학』 7권, 한국문학교육학회, 2001, pp.83-105
- 채오병, 「부르디외의 국가: 상징권력과 주체」, 『문화와 사회』, 제26권 2호, 한국문화사회학회, 2018, pp.217-260
- 최미숙, 「성인의 문학생활화 방안」, 『문학교육학』 10권, 한국문학교육학회, 2002, pp.27-44
- 최지현, 「국어과 교육에서 정의적 교육 내용」, 『국어교육학연구』 11집, 국어교육학회, 2000, pp.27-46
- 최지현, 「인터넷에서의 청소년 문학 생활화 방안」, 『문학교육학』 9권, 한국문학교육학회, 2002, pp.77-99
- 하흥규, 「취향, 계급, 구별짓기, 그리고 혐오: 혐오의 사회학을 위하여」, 『사회와이론』 41집, 한국이론사회학회, 2022, pp.199-230
- 하흥규, 「실천적 전환에 대한 비판적 고찰: 기든스와 부르디외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8집 1호, 한국사회학회, 2014, pp.205-233
- Lamont, M. & Lareau, A.(1988), 'Cultural Capital: Allusion, Gaps and Glissandos in recent Theoretical Development', *Sociological Theory Vol 6, No 2*,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pp.153-168

Abstract

A Study of Learners' Self-awareness About Novel -For the planning of attitude education in novel education-

HAN, Tae-goo

Based on the discussion of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research on attitude in novel education, this study seeks to reexamine attitude as an working state and suggest a direction for planning attitude education in novel education. this study focus on the practising literature among the attitude concepts presented in the curriculum, examine the aspects of habitus as an embodied attitude in learners, and draw educational implications based on this.

In this study, based on the critical awareness that the consequentialist view of attitude in attitude-related studies conducted so far in the field of literature education research has caused the alienation of the concept of attitude in the field of literature education, I aim to understand attitude in a more practical and dynamic way. For this purpose, attention was paid to the concept of 'practising literature' as an internalized and embodied attitude, and Bourdieu's concept of habitus was used to specify and capture this.

First, based on the concept of habitus, we divided the field

where novel education takes place into the home field, the field of education, the online field, and the field of peer culture and examined the status of each field within the field of novel education. And within that domain, knowledge resources, psychological resources, and social resources were set as the resources that serve as the basis for subjects forming their tastes and attitudes, and learner groups were distinguished according to the amount and distribution of these three resources.

Within the field of novel education, learners were divided into upper, middle, and lower groups, and the middle group was further divided into educational middle group, independent middle group, intuitive middle group, and social middle group. In this study, through analysis of questionnaires filled out by learners, we looked at how the identity of the group is constructed in the actual novel education field and what tastes and attitudes are expressed. Based on this, the complex effects of learners' tastes based on fields and resources as an objective domain on the formation of learner attitudes as a subjective domain were statistically analyzed.

This study has educational significance in that it goes beyond the consequentialist perspective on attitude and illuminates attitude as a mental action that comprehensively affects the entire process from motivation to internalization of novel reading, and aims for learner-centered reflective reading education.

Key Words: Novel Education, Attitude education, Practising Literature, Learners' Self-awareness, Habitus

Student Number: 2009-31022